"주석사찰에서 다비의식을"
연화회 '사찰 다비' 생전접수
상담문의 010-4727-6065

#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55호 HYUNBULNEWS.COM 2025년 11월 19일(음력 9월 30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 금산사 압수수색 조계종 "깊은 유감"

**11월 7일, 금산사·은적사서 진행**
**조계종·본사주지협·금산사 논평**
**조계종, 자체 조사·징계 진행 중**
**"강압 집행 참담…공정 수사 당부"**
**진실 규명·자정 제도 보완 약속**

김내영 기자·조동제 전북지사장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금산사와 은적사에서 이뤄진 경찰의 압수수색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공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자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고 조사 협조 의사를 밝혔음에도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된 데 우려의 뜻을 밝힌 것이다.

조계종은 11월 7일 대변인 묘장 스님(기획실장)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종단은 이 사안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수사를 통해 모든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되기를 바란다"며 "종헌·종법에 따른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내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은 올해 7월부터 해당 의혹을 조사해 현재 호계원에 징계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다만 전통사찰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진 점에는 깊은 유감을 표했다. 조계종은 "해당 사찰들은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성실히 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음에도 압수수색이라는 과도한 조치가 이뤄진 것은 법 집행의 본래 취지를 넘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탄압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경찰 당국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종교적 특수성과 국민의 신앙 감정을 헤아려, 보다 신중하고 중립적인 절차로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진실 규명을 위해 성실히 협조함과 동시에 종단의 자정과 쇄신을 위해 더욱 철저한 점검과 제도적 보완을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도 "압수수색이라는 수단이 동원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모멸감을 갖게 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등운 스님, 이하 본사주지협의회)는 11월 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먼저 "불미스러운 일로 법적 논쟁과 언론에 올라 국민과 불자들에게 염려를 끼쳐 안타깝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는 데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본사주지협의회는 "지금까지 해당 사찰들은 당국의 수사 등에 성실하게 임할 준비가 되어 있던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17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신앙 영역에 과도하고 무차별적이고 신중하지 못한 법적 조치는 더 크고 더 소중한 가치를 잃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협의회는 두 사찰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닌 국민의 신앙적 토대이자, 1700년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보고"임을 강조하며 법 집행에만 천착해 이러한 가치를 간과한 점을 강하게 규탄했다.

협의회는 "우리는 단순히 '종교적 성역이다',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다' 등 철저히 자기방어적인 자세와 상투적인 몰염치의 태도로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다"며 "그러나 이번 조치가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정신문화 기반까지 허물어 버린다면 자칫 법 집행의 취지는 무색해지고 종교탄압이라는 모양새로 변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끝으로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사려 깊은 법 집행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행정당국에 거듭 유감을 표했다.

금산사 승가회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승가회는 "금산사와 은적사가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나 경찰이 근거 없는 예단으로 강압적인 절차를 진행한 것은 너무나 참담한 일"이라며 "경찰 당국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종교적 특수성과 국민의 신앙 감정을 깊이 헤아려 보다 신중하고 중립적인 절차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금산사 부주지 덕림 스님은 "사전 조사나 통보 없이 교구본사 주지 스님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한 것은 불교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광화문 광장에 울려퍼진 영산회상 法音**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1월 8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원에서 '2025 태고종 영산재 · 국제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종조 태고 보우 국사의 원융회통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불교 전통종단인 태고종의 정통성을 대내외에 알리고자 열린 이번 법석에는 전국 태고종도와 국내외 불자, 시민 등 1만여 명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웠다. 사진은 태고종 종정 운경 대종사를 비롯한 법회 참석 스님들을 법회장으로 모시는 종사이운 의식. 사진=정현선 작가 현장기사 8·9면

# 종조 선양·韓中교류…태고종 광폭 행보

**광화문서 영산재 · 수계법회**
**태고 보우 국사 탄신다례재**
**中불교와 '종조 법맥' 조명**
**상진 스님, 대외 행보 이어가**

종조 태고 보우 국사 선양부터 영산재·국제수계법회를 통한 대중 소통, 한중불교 교류까지 태고종의 광폭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취임 이후 변화된 종단 위상과 발전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11월 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봉행된 '2025 태고종 영산재·국제수계대법회'에는 1만여 태고종도와 시민이 동참해 십선계를 수지하고 온 인류의 행복을 위해 바라밀과 보살도를 함께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태고 보우 국사의 원융 화합 정신을 선양하고 이어받아 종도들의 화합을 다짐하는 행사도 진행됐다. 태고종은 11월 10일 북한산 태고사 대웅보전과 부도탑 앞에서 '태고종조 태고보우 원증 국사 탄신 제724주년 다례법회'를 봉행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추도사에서 "태고 보우 원증 국사의 법맥을 잇는 이 법석은 우리 종단이 전통과 수행의 정신을 새롭게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라며 "종조의 정신을 기려 수행과 포교의 본분을 바로 세워 대중에게 신뢰받는 종단, 사회에 울림을 주는 불교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제종 제18대 법손인 석옥 청공 선사와 태고 보우 국사의 법맥과 불교 교류사를 조명하는 노력도 이어졌다. 태고종은 지난해에 이어 후저우시불교협회와 함께 11월 12일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두 선지식의 전법 교류의 면면을 살펴봤다. 특히 올해에는 태고 보우 국사와 석옥 청공 선사의 법맥과 다맥을 조명하는 논문들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 후저우시불교협회장 계륭 스님을 비롯한 중국불교대표단은 11월 11일 서울 백련사에서 태고종 종정 운경 대종사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운경 스님은 "후저우시불교협회 대표단의 한국 방문을 환영한다"면서 "임제종 법맥을 나눈 형제들로서 앞으로도 세미나 뿐 아니라 문화·예술·음악 등 전반에 걸쳐 불교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계륭 스님은 "태고종의 가장 큰 어른이신 종정 예하를 친견하게 돼 무척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큰스님들의 법통과 법력으로 세상의 화합과 평화가 빨리 실현되길 기원한다"고 답사했다.

상진 스님의 활발한 대외 행보도 역시 태고종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상진 스님은 11월 19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호국선봉사(주지 정행 스님)의 초청으로 법상에 올해 군장병을 위한 법문을 설했다. 특히 이날 법석은 주성운 지상작전사령부 사령관 부임을 기념해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상진 스님은 '오종대은명심불망(五種大恩銘心不忘)'을 강조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나라를 위하고 이웃을 돕는 마음을 키워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상진 스님은 11월 11일 중앙승가대 본관 4층 대강당에서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들과 신도들을 대상으로 '의례, 의식의 의의' 주제 특강을 진행했다.

신중일 기자 ·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대행선사 탄신 100주년 기념
지구사랑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사와 한마음선원은 2027년 대행선사 탄신 100주년을 맞아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담은 '지구사랑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생활 속에서 꽃 피우는 자비 실천 - EM사용하기
격월 1회, 생활 속 실천 가능한 지구 환경 살림 방법을 소개하고, 동참하는 분들에게 소정의 환경지킴이 상품을 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현대불교신문

Heungkuk 흥국생명
제례의식의 수행 주체인 사찰을 수익자(보험금 수령)로 지정할 수 있는
(무)흥국생명 49재 하늘소풍 제례 종신보험
누구나 좋은보험!
"죽고 나면 내 제사는 누가 지내주나?"
더 이상 자녀와 후손에게 부담은 그만!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인 제사 고민 끝!
이제 사찰에서 여법하게 모십니다.
다양한 보장금액으로
나의 재정 상황에 알맞게
든든한 미래 준비
보험료 납입 중 사망하더라도 가입금액 전액 보장
가입 후 2년 이내 자살 등의 경우 부지급
선택사항
49재(천도재)와 기제사(1년~5년)를 기본으로 구성
범패, 바라, 위패봉안, 큰스님 영가법문 등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전통 다비식까지 다양한 옵션
보험가입자(피보험자)
웰다잉! 내가 선택하는 사후(死後)
유가족
제사 부담 해소, 고인에 대한 예우
사찰
안정적인 제사 확대
상담문의전화
선우HK 보험대리점 1522-1543
대리점등록번호 제 2025038022호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본 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으로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이며 저축보험, 연금보험이 아닙니다. *본 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청약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고의로 안한 사고 및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2년 이내 자살할 경우 보험금이 제한됩니다. ※ 계약자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65세 이상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보험계약의 경우에는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청약 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듣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납입한 보험료와 청해진 이자를 더하여 돌려드립니다.※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약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기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위험직(업)종 또는 운전차량 종류 및 용도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께서는 본상품에 대한 내용과 본상품에서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에 관한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홈센터 1588-2288로 문의하여 주시면 신속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흥국생명보험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https://fss.or.kr) : 국번없이 1332 ※ 보험상품비교공시 : 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heungkuklife.co.kr(당사홈페이지) ※ 승인번호 :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5-06402호 (2025-09-23~2026-09-22)

# 조계종 내년 예산 1054억원…격론 끝 승인

**11월 7일, 정기회 44명 속개**
**날선 질의…집단퇴장에 지연**
**49명 동참해 만장일치 가결**
**오후 이어 10일도 유회 결정**
**11월 19일 오전 10시 속개**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 10일 오전 11시 서울 조계사 안심당에서 제236회 정기회를 속개할 예정이었으나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유회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가 11월 7일 속개한 제236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불기 2570(2026)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을 1054억여 원으로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의원 81명 중 44명이 참석해 가까스로 성원이 이뤄졌다.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은 '비구니 호계원 참여' 관련 종헌 개정안이 부결된 데 대한 항의로 불참했다.

중앙종회는 총무원장이 제출한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내년도 예산 중 일반회계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대비 15% 감액된 325억 2600만원, 특별회계는 10.5% 증액된 728억 9600만원으로 편성됐다.

심의 과정에서는 삼원 통합 후 포교와 교육 종책의 방향성을 묻는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원경 스님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포교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포교부 예산이 오히려 10.5% 줄었다"며 "내년 일본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불자 운동선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빠져 있다. 추경을 통해서라도 관련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진 스님도 총무부, 기획실, 포교부 등 각 부서별 예산을 꼼꼼히 짚으며 "포교종책과 어린이·청소년 불교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함에도 예산이 줄었다"며 "관련 보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다수 의원 스님은 "예산안은 이미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올라온 것"이라며 "끝없는 세부 질의는 회의에 비효율적"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격론 끝에 정법회 소속 스님들이 항의 차원에서 집단 퇴장하면서 한때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기도 했다. 이에 종회의장단이 정법회 스님들을 설득해 복귀를 이끌어 냈고, 뒤늦게 동참한 의원 스님들을 포함 49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예산안을 가결했다.

점심 공양 이후 재개된 회의에는 재적의원 81명 중 33명만이 참석,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유회됐다. 중앙종회는 이날 오전 예산안 확정에 이어 오후에는 종책질의와 종무보고 등 나머지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의원 스님들의 참석을 독려했지만 결국 성원되지 않았고, 중앙종회법 시행규칙 19조에 따라 유회를 선언했다. 중앙종회법 시행규칙 19조는 회의 개의 시 1시간이 경과하도록 의사정족수가 성원되지 않으면 유회를 선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1월 10일에도 이 같은 상황은 반복됐다. 이날 중앙종회는 오전 11시 서울 조계사 안심당에서 제236회 정기회를 속개할 예정이었으나 성원이 무산돼 유회가 결정됐다. 본회의장에는 재적의원 81명 중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수석부회장 태효 스님, 차석부회장 경암 스님을 비롯해 종회의원 31명만 출석했다.

이에 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중앙종회법 제43조에 따라 "최대한 종회의원 스님들의 참석을 독려해 11월 19일 오전 10시에 속개하고, 장소는 사무처와 논의에 다시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중앙종회법 제43조는 '의장은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에 대해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또는 회의를 끝마치지 못했을 때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정기회 일정은 11월 19일 오전 10시로 결정됐다. 장소는 미정이다. 또 본회의에서 '2027 가톨릭 세계청년대회'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 조계종, 종책특보에 노욱선·박준수 임명

**진우 스님, 11월 11일 임명장 수여**


노욱선


박준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종책특별보좌관에 노욱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박준수 국회 법우회(보좌진 불자회) 회장을 새로 임명했다.

진우 스님은 11월 11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 담소에서 임명장을 수여하고 노욱선 부의장에게 "그간 종단 정책자문위원을 맡아 특보에 버금갈 만큼 잘 도와주셨다"며 "앞으로도 종단 발전을 위해 역할을 많이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노 부의장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련해 줘 감사하다"며 "종단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우 스님은 국회 법우회의 신행활동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박준수 회장에게 "진작 특보로 모셨어야 했는데 늦은 감이 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격려했다.

박 회장은 "국회 법우회에는 1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분기별 모임과 여름 템플스테이 등 활발한 신행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며 "12월 19일에는 총무원 기획국장 스님을 모시고 송년법회도 예정돼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임명에 걸맞게 국회와 종단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총무원 총무부장 성웅 스님과 기획실장 묘장 스님, 종책특보 우봉 스님(조계종 연예인전법단장, 화계사 주지)이 배석했다.

노욱선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불교문화발전특위 위원장, 제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종교(불교)본부 상임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종단 정책자문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박준수 회장은 조계종 불교정책기획단 정책위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략기획보좌단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국회 한지아 의원실 보좌관, 국회 법우회 회장을 맡고 있다.

김내영 기자

# 진우 스님, 강훈식 비서실장에 "통합의 정치" 당부

**11월 12일, 강훈식 비서실장 예방**
**최근 청와대 불자회장 제안 수락**
**'가톨릭' 종교에 "12월 12일 수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청와대 불자회장에 내정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통합의 정치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11월 12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 담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예방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예방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청와대 불자회장을 맡게 된 강훈식 비서실장이 불교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통합 구현의 가르침을 얻고자 마련됐다.

진우 스님은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통령실이 빠르게 안정을 찾은 것 같다"며 "무엇보다 국민이 분열되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정치를 하다 보면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여야가 균형을 이뤄야 발전의 동력이 된다"며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고 대통령께서 양쪽의 목소리를 잘 조율해 통합과 화합의 큰 틀에서 정치를 이끌 수 있도록 비서실장님이 곁에서 역할을 잘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강훈식 비서실장은 "핑계 같지만 대통령실 업무가 많이 이제야 인사드리게 됐다. 죄송하다"며 "처음 업무를 맡았을 때 인수인계 받을 사람도 없어 혼란스러웠지만, 점차 자리를 잡아 이제는 시스템이 안정돼 가고 있다"고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그러면서 "오늘 스님께서 해 주신 말씀은 대통령께 잘 전달드리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화답했다.

예방은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는 12월 12일 수계를 받고 진우 스님으로부터 법명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방을 마친 뒤 강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최근 청와대 불자회장을 맡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집안이 모두 불교 집안이고 부모님이 신심이 깊다"며 "내외부적으로 대통령실 불자회장 제안이 있어, 대통령실과 불교계의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수락했다"고 말했다. 취임법회는 대통령실 이전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종교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결혼 전까지는 불자였지만, 결혼 후 가톨릭 신자가 됐다. 그게 (불자회장을 맡는 데) 흉이 되느냐"고 답했다. 그는 '안드레아'라는 세례명까지 사용하고 있어, 청와대 불자회장으로서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내영 기자

# 진각종, 보살십선계 수계관정불사

**11월 11일, 희락심인당서**
**107명의 진각행자 탄생**



보살십선계를 수지한 진각행자들이 새로 탄생했다.

진각종(통리원장 능원 정사)은 11월 11일 대구 희락심인당에 삼매야계단을 개설하고 '진기 79(2025)년 보살십선계 수계관정불사'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관정불사에는 배영일(선재·희락심인당) 신교도 등 107명의 수계자들이 보살십선계를 수지했다.

수계관정불사에서 수계자들은 갈마아사리 능원 정사로부터 금강선(金剛線)을, 전계아사리 덕정 정사로부터 금강수(金剛水)를, 교수아사리 정법 정사로부터 계첩(戒牒)을 받고 십선계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갈마아사리 능원 정사(진각종 통리원장)는 설계단문을 통해 "삼세의 모든 부처님은 믿음을 일으키는 자가 반드시 먼저 계를 가지지 않으면 일체의 선한 공덕을 얻지 못하며 청정한 계로서 몸과 마음을 지키면 지혜를 얻어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거듭 설하셨다"며 "부처님의 인연을 만나 모든 진각행자들이 환희하여 계를 받아 이를 복전으로 삼고 무량한 공덕 받기를 바란다"고 발원했다.

수계자를 대표해 배영일(선재) 신교도는 입지게에서 "이제 계를 설해 받았으니 금생으로부터 성불에 이르기까지 견고히 가지고 지키겠다"며 "차라리 신명을 버릴지언정 물러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신중일 기자


## 존엄한 역사·문화가치와 국민의 정신적 토대를 훼손한

# 압수수색 조치에 대한 입장문

지난 11월 7일 김제 금산사와 군산 은적사에 압수수색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에는 참담함과 동시에 모멸감을 느낍니다.

아직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고 사법적 판결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저희 또한 불미스런 일로 법적논쟁과 언론에 오르게 된 점은 국민들과 불자들에게 염려를 끼치게 한 점만으로도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는 공정한 법집행이 이뤄지는데 있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당 사찰들은 당국의 수사 등에 충분히 성실하게 임할 준비가 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이라는 수단이 동원된 것은 너무나도 참담함을 넘어 모멸감을 갖게하는 처사로 너무나도 과도했습니다.

한반도의 국민과 함께 17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신앙영역에 과도하고 무차별적이고 신중하지 못한 법적 조치는 더 크고 더 소중한 가치를 잃게 하였습니다.

저희도 단순히 '종교적 성역이다'.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다'. 등등의 철저히 불법적 자기방어적인 자세와 상투적인 몰염치의 태도로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심하고 고심하는 주안점은 앞선 두 사찰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닌 국민의 신앙적 토대이며 1700년의 역사와 문화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법집행에만 천착하여 진행한 점에 대단한 유감을 표합니다.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정신문화의 기반까지 허물어 버린다면 금번 조치는 자칫 법집행의 취지는 무색해지고 종교탄압이라는 모양새로 변질되어 보일 겁니다.

이에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사려깊은 법집행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행정당국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불기2569(2025)년 11월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일동

# 서운 대종사 법등 이을 전등사 역사문화관 준공

**30주기 다례재 · 교육관 준공 법회**
**인천·경기 서부 전법 거점 '기대'**
**'처무규정' 발굴 개정판 문집 발간**
**세미나 개최…12월까지 사진전**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강화 전등사는 11월 8일 서운 대종사 30주기 다례재 및 역사문화교육관 준공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역사문화교육관 테이프 커팅 모습.


서운 대종사 30주기 다례재에서 전등사 회주 장윤 스님이 영전에 절하는 모습.

조계종 총무원장을 세 번 역임하고 불교정화운동을 이끈 서운 대종사의 30주기를 맞아 스님의 법등을 이을 전등사 역사문화교육관 건립 불사가 원만 회향했다.

강화 전등사(주지 여암 스님)는 11월 8일 '서운 대종사 30주기 다례재 및 역사문화교육관 준공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전등사 회주이자 조계종 원로의원 장윤 스님, 원로의원 법등 스님(제산문도회 대표), 서운문도회 대표 무선 스님 등 문도 스님들과 신도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다례재에서는 서운 스님이 직접 만들었으나 그동안 이름만 전해지던 '처무규정(處務規定)'의 등사본 원본과 옛 사진, 신문기사, 서철류 등을 담은 〈서운대종사문집〉이 봉정됐다. 이어 주지 여암 스님은 문집 발간에 기여한 공로로 김광식 교수(동국대)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다례재 후 열린 역사문화교육관 준공 기원법회에서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내빈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며 불사의 원만한 회향을 축하했다.

총사업비 84억원이 투입된 전등사 역사문화교육관은 연면적 884㎡에 지하 1층, 지상 1층의 한옥 2개 동으로 구성됐다. 지하층에는 다목적문화홀과 어린이법당, 북카페, 교육실 및 강의실, 휴게 공간 등이 마련되고 지상층에는 템플스테이에 사용될 방사가 배치됐다. 전등사는 교육관을 템플스테이와 어린이 법회, 명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어린이·청소년·청년 세대를 포용하는 복합문화포교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진우 스님은 축사에서 "교육관은 서운 대종사께서 일생을 통해 밝히신 법의 등불을 이어받아 수행과 교육, 전통과 현대를 잇는 선문화의 중심 도량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암 스님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교육관을 통해 인천과 수도권 서부를 대표하는 사찰로서 우리 전통문화를 전 세계로 펼쳐 나가는 전진기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관에서는 '이목당 서운 대종사 30주기 기념 세미나'가 열렸다. 전등사 회주 장윤 스님은 여암 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에서 "오늘 세미나에서 새롭게 드러난 서운 대종사의 위법망구하는 애종심이 저희 문도들뿐만 아니라 종단적으로도 귀감이 되어 널리 알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기조 강연에 나선 정휴 스님은 "서운 큰스님께서는 출가 전 용맹정진을 통해 제산 스님께 깨달음을 인가받은 분"이라며 "지극한 효성으로 역사 속에 잠든 큰스님을 일깨워 여러분에게 그 진면목을 보이게 한 장윤 스님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홍사성 불교평론 주간의 사회로 김광식 교수가 '서운 대종사의 큰스님론', 박부영 전 불교신문 편집국장이 '서운 대종사의 총무원장 활동·성격',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봉은사 토지의 매각과 이목서운의 대응'을 발표했다.

한편, 전등사 대조루에서는 12월 31일까지 '서운 대종사 30주기 사진전-차가운 달, 빈 산의 진리'가 열린다.

# 동국대 새로운 100년 기틀 로터스관 불사 원력 모였다

**동국대, 11월 12일 '동행의 밤'**
**스님 · 동문 동참…128억원 모연**
**돈관 스님 "100년 기틀 마련"**

내년 개교 120주년을 맞는 동국대(총장 윤재웅)가 새로운 랜드마크 '로터스관' 건립 불사를 통해 새로운 100년의 기틀을 마련할 것을 선포했다. 이를 위해 불교계와 동문들의 후원도 집중되고 있다.

동국대는 11월 12일 서울 앰버서더 풀만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동국 120년, 로터스관으로 이어 가는 미래를 위한 동행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윤재웅 총장은 미래비전 발표를 통해 로터스관 건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로터스관은 본관과 별관 2개동으로 구성된다. 본관은 지하 3층 지상 3층(2422평), 별관은 지하 6층 지상 2층(5585평)으로 연면적 합계 2만6470㎡(8007평) 규모로 건립된다. 시설로는 △박물관 및 수장고 △선센터 △러닝 커먼스 △대형 교육공간 △명예의 전당 등이 들어서며 오는 2028년 8월 완공될 계획이다.

윤 총장은 "내년은 동국대학교 건학 120주년이 되는 해로 우리 대학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며 "건학이념 구현, 교육과 연구의 역량 강화, 재정 선순환, 인프라 확충 등 6대 추진 전략을 통해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모든 동국인과 불자들의 염원인 로터스관 건립불사가 원만하게 성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통해 동국대 건학이념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가오는 100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인연이 밝은 내일의 씨앗이 되어, 우리 사회와 인류에 희망과 자비의 빛을 전하는 대학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여러분의 원력이 이어져 더 좋은 동국,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 환히 열리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이날 현장 모금에서는 동국대 총동창회가 50억원을 쾌척해 눈길을 끌었다. 문선배 총동창회장은 "더 좋은 동국,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 자리에 동참했다"면서 "모교 개교 120주년을 앞두고 숙원 사업인 로터스관 건립이 추진되는 만큼 불사가 원만 회향할 수 있도록 동문이 함께 응원하고 후원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불교계와 동문 등 각계 인사 300여 명이 동참해 로터스관 건립기금 128억8000만원을 모연했다.

윤 총장은 "이제 닻을 올렸으니 순풍에 돛을 달고 목표 지점까지 나아가야 한다. 우리 '동국호'가 순항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와 함께 건립 불사에 동참하기 위한 각계 각층의 후원도 이어지고 있다. 80대 불자 정연화 보살은 아파트 등 부동산과 예금을 포함한 50억원 상당을 학교 발전을 위해 11월 6일 기부했다. 정연화 보살은 동국대와 직접적인 인연은 없지만, 평소 지녀 온 깊은 신심과 회향의 뜻이 불연(佛緣)으로 이어지며 이번 기부로 결실을 맺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독실한 불자이자 동국대 동문기업인인 전순표 세스코 총회장은 11월 5일 발전기금 1억원을 학교에 쾌척했으며, 불자 개그맨이자 카레이서인 한민관 씨도 로터스관 건립 불사 기금 1000만원을 전했다. 신중일 기자


동국대는 11월 12일 서울 앰버서더 풀만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동국 120년, 로터스관으로 이어 가는 미래를 위한 동행의 밤'을 개최했다. 사진은 참석 대중들이 로터스관 건립 불사를 알리는 점등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 "종교갈등 화쟁적 해법, 사회적 연대에 있다"

**조계종연구소, 11월 10일 세미나**
**'화쟁에 기반한 사회갈등 연구'**

종교 간의 이해와 화합, 또 사회 속에서 종교라는 분야가 지녀야 할 존립 가치를 화쟁적 해법으로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사회연구소(소장 원철 스님)는 11월 10일 서울 센트로폴리스 컨퍼런스 세미나룸에서 '2025년 2차 학술세미나-화쟁에 기반한 사회 갈등 연구'를 개최했다.〈사진〉 '한국사회의 종교 갈등, 그 화쟁적 해법'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자들은 이 자리가 기독교, 이슬람 등 각 종교의 경계를 넘어 상호 존중과 공감의 장이 되고 우리 사회의 평화와 통합을 위한 실천적 해법을 제시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했다.

민순의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원은 발제 '한국불교의 과거와 현재: 사회갈등의 연원과 현상에 대한 제언'에서 현 시기 한국사회에서 불교라는 이름으로 관계되는 대표적인 갈등 양상을 '호국불교', '문화재관람료', '공동성지'라는 세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재고했다. 이날 민 연구원의 발표를 종합해 보면, 불교의 공공성 회복은 '과거의 신성화된 전통'을 보존하는 데 있지 않고 '현재의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불교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일'에 달려 있다. 이에 대해 민 연구원은 "불이론은 이를 위한 철학적 기초를 제공하며 세속주의와의 대화는 그 실천적 장을 마련한다"면서 "나아가




호국불교의 성찰은 불교가 더 이상 특정 이념이나 집단의 정당화 도구가 아니라 시대적 윤리의 발전지로 거듭나야 함을 일깨운다"고 강조했다.

결국 한국불교가 지향해야 할 미래는 '종교 간의 공존'이나 '국가와의 화합'이라는 표면적 조화가 아니라 인간과 사회, 자연이 하나의 생명공동체로 연결돼 있다는 자각 위에서 새로운 공공성을 창출하는 일이라는 것. 민 연구원은 "불교가 이 시대에 다시금 의미를 가지려면 교리의 재해석과 제도적 개혁, 그리고 사회적 연대라는 세 층위의 변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불이 사상은 종교 내부의 자기성찰과 외부 세계와의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철학적 원천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찬수 아시아종교평화학회 부회장은 '기독교에 의한 사회적 갈등의 역사: 신앙화한 반공주의와 평화 지향의 화쟁'에서 한국사회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은 화쟁 논리와 그에 기반한 실천임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최정화 서울대 강사는 '현대 한국 사회 이슬람과의 갈등'을, 최유진 경남대 명예교수는 '원효의 화쟁과 종교 갈등의 해결'을 주제로 발제했다. 임은호 기자


# 입 장 문

11월 7일 김제 금산사 주지실과 군산 은적사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군산 은적사는 이미 사전에 충분히 조사에 협조하였고, 금산사는 압수수색 당시 필요한 것은 다 가져가도 좋다고 할 정도로 협조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에 비협조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예단으로 강압적인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참담한 일이며, 교구 본말사 주지스님 및 대중 스님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산사는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계획이었으나 강압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개산 1400년이 넘는 동안 전법의 등불을 밝혀왔던 금산사에 대한 과도하고 무차별적인 법적 조치입니다. 이는 불교와 불자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유감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대한불교조계종 내부에서도 이 사안과 관련하여 종헌 종법에 따른 자체 조사를 이미 진행하였으며, 현재 종단 내부의 자정 절차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 중입니다.

수사 당국이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강제 수사를 진행한 것은 상식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종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민주 사회의 법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경찰 당국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종교적 특수성과 국민의 신앙 감정을 깊이 헤아려 보다 신중하고 중립적인 절차로 진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시 한 번 금산사와 은적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 승가회

| | | | | | | | | | | | | | | | |
|---|---|---|---|---|---|---|---|---|---|---|---|---|---|---|---|
| 보천사 | 주지 | 의종 | 원통사 | 주지 | 진일 | 성관사 | 주지 | 상진 | 불주사 | 주지 | 덕운 | 법륜사 | 주지 | 정국 |
| 영월암 | 주지 | 정효 | 상주사 | 주지 | 도연 | 단암사 | 주지 | 서림 | 팔성사 | 주지 | 성우 | 은적사 | 주지 | 법자 |
| 대원사 | 주지 | 대진 | 금선암 | 주지 | 덕산 | 금복사 | 주지 | 영명 | 송광사 | 주지 | 법진 | 남고사 | 주지 | 석초 |
| 귀신사 | 주지 | 무여 | 안수암 | 주지 | 보승 | 법우사 | 주지 | 삼명 | 망해사 | 주지 | 우림 | 안심사 | 주지 | 일연 |
| 서고사 | 주지 | 마일 | 문수사 | 주지 | 보견 | 옥련암 | 주지 | 동묵 | 죽림암 | 주지 | 정진 | 청룡사 | 주지 | 보생 |
| 원등사 | 주지 | 보광 | 진북사 | 주지 | 태유 | 학선암 | 주지 | 도웅 | 위봉사 | 주지 | 송욱 | 천고사 | 주지 | 우경 |
| 흥복사 | 주지 | 원혜 | 정수사 | 주지 | 효진 | 칠성사 | 주지 | 산성 | 귀정사 | 주지 | 혜도 | 학림사 | 주지 | 인담 |
| 학소암 | 주지 | 원묵 | 대복사 | 주지 | 원명 | 화암사 | 주지 | 방착 | 불교회관 | 주지 | 제환 | 덕음암 | 주지 | 진선 |
| 수현사 | 주지 | 원묵 | 수도암 | 주지 | 현성 | 선국사 | 주지 | 희권 | 관음사 | 주지 | 덕림 | 고림사 | 주지 | 성목 |
| 선원사 | 주지 | 운문 | 남원사 | 주지 | 관성 | 금당사 | 주지 | 원행 | 실상사 | 주지 | 승묵 | 문수사 | 주지 | 원공 |
| 옥천암 | 주지 | 경호 | 영선사 | 주지 | 월공 | 백운사 | 주지 | 우성 | 천황사 | 주지 | 현정 | 운지사 | 주지 | 용담 |
| 법성사 | 주지 | 혜민 | 안면암 | 주지 | 설봉 | 죽림정사 | 주지 | 창엄 | 사자암 | 주지 | 향봉 | 백운암 | 주지 | 광진 |
| 현불사 | 주지 | 법우 | 숭림사 | 주지 | 도헌 | 정각사 | 주지 | 각진 | 송원사 | 주지 | 신해 | 심곡사 | 주지 | 정안 |
| 선덕사 | 주지 | 담준 | 관음사 | 주지 | 자원 | 연국사 | 주지 | 묘주 | 무염사 | 주지 | 해안 | 백련사 | 주지 | 평상 |
| 자명사 | 주지 | 공해 | 북고사 | 주지 | 혜진 | 정각사 | 주지 | 일행 | 안국사 | 주지 | 능엄 | 신광사 | 주지 | 일문 |

불기 2569(2025)년 11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 승가회

# 제4회 생명나눔대상에 '한마음선원' 선정

**생명나눔실천본부 주최로**
**11월 22일 중랑구청서 시상**
**제15회 자선음악회도 열려**
**장미화·엄영수·신현선 등 출연**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제4회 생명나눔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현대불교 자료사진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이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가 주최하는 제4회 생명나눔대상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생명나눔대상 선정위원회(위원장 성명용)는 11월 11일 제4회 생명나눔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생명나눔대상은 한 해 동안 생명나눔 정신을 실천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그 활동을 널리 알려 더 밝고 깨끗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대상·특별공로상·홍보상·생명상·나눔상 5개 부문으로 수여된다.

대상을 받은 한마음선원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매월 정기 및 일시 기부를 통해 누적 1억원 이상 난치병 환자 치료비를 지원했다. 2025년에는 캄보디아 의료 및 복지 취약계층을 위해 4000만원 상당의 EM생활용품을 기부하기도 했다. 지역 내 저소득층에게 생활지원금, 물품 지원, 지진 피해 복구 성금 기부, 무료 급식, 독거노인 지원, 장학금 전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며 사회 나눔 활동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별공로상은 마하무용단에 돌아갔다. 2017년 창단 후 매년 지역 복지관, 어르신 효잔치 무료 공연, 불우이웃돕기 봉사 활동, 장기기증자를 위한 살풀이 공연 등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자선음악회를 기획해 티켓 수익금을 난치병 환자를 위한 나눔을 한 점에서 큰 점수를 받았다.

홍보상은 황재훈 BBS불교방송 라디오국 PD가 받았다. 황 PD는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주요 행사 연출을 맡고, BBS불교방송 라디오 '김병조의 이야기쇼'와 '백팔가요'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나눔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생명상은 의대생 자살예방 동아리 따숨(따뜻한 숨결)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명 교육을 진행하고 SNS를 통한 자살예방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생명존중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자살예방의 날, 지자체 걷기대회 행사 등에서 자살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나눔상은 조한순 생명나눔실천본부 소속 자원봉사자가 받았다. 1997년부터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전 국민 1인 1장기 기증 등록 운동, 길거리 장기기증 캠페인, 소식지 발송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다.

성명용 선정위원장은 "본부 사무국이 장기기증, 조혈모세포 등 관련 활동 또는 사회봉사 활동을 펼친 사례를 취합해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시상식은 11월 22일 서울 중랑구청에서 열리는 제15회 생명나눔 자선음악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선율 위의 나눔 춤추는 마음'을 주제로 열리는 자선음악회는 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들과 이식대기 환자들의 치료비 및 수술비를 모금하고 지원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함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산하단체인 마하무용단(단장 정현숙)의 한국무용 춤사위와 행복나누리문화예술단의 태권도 시범 공연을 만나 볼 수 있다. 또 가수 장미화, 개그맨 엄영수, 소프라노 신현선, 소리꾼 이장학이 특별출연해 무대를 한층 풍성하게 채운다.

# 본지 '無장애 불교' 불교언론문화상 우수상

**조계종, 11월 12일 프레스센터서**
**제33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
**대상은 BBS부산 '간화선'이 수상**



11월 12일 열린 '제33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아래 오른쪽 두번째가 본지 임은호 기자.

임은호 현대불교신문 기자의 기획보도 '無장애 불교'가 제33회 불교언론문화상 언론보도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1월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제33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불교언론문화상은 한 해 동안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에서 불교문화 우수성을 알리고 건강한 사회발전에 기여한 작품 및 언론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한 편의 기사, 한 장면의 영상, 한 번의 기획이 불교의 정신을 세상 속에 살아 숨 쉬게 했다"며 "자비의 메시지로 분열의 시대를 어루만지고, 지혜의 언어로 혼탁한 현실을 맑히며, 불교문화의 아름다움을 대중의 삶 속에 스며들게 한 그 헌신과 열정에 깊은 찬사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첫 주관을 맡은 미디어홍보실 실장 덕안 스님은 "앞으로도 불교의 정신문화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이고 감동적인 콘텐츠가 더욱 많이 탄생해 불교문화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불교언론문화상 언론보도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임은호 기자의 기획 보도 '無장애 불교'는 사찰이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아 불편하다는 인식을 낮추고, 고령자·장애인·임산부·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신행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소개했다. 또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제거한 모범 사찰을 조명하고, 이웃 종교 사례와 비교해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상세히 보도했다.

올해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에는 BBS부산불교방송의 특집 다큐멘터리 5부작 '한국인의 수행법, 간화선'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최우수상 방송부문에는 KBS 다큐온의 '봉녕사 수행일기'가, 라디오부문에는 MBC의 '여성시대 양희은 김일중입니다-님과 함께 영혼의 바캉스 특집'이, 언론보도부문에는 BTN의 BTN뉴스 기획보도 '명상, 이젠 알고 하자'가, 뉴미디어부문에는 유튜브 마음 울리는 선율과 지혜의 '천수경 뮤직 비디오'가 각각 수상했다.

또 현대불교신문의 '무장애 불교', 울산MBC의 3부작 다큐멘터리 '바실라-1300년 유라시아 문명교류탐사', BBS불교방송 특집 '마음 디코딩'이 우수상을, BBS대구불교방송의 '팔공산 은해사 시절인연', KBS의 '연애보고서 나는 절로', MBC의 '문화유산의 축복이 끝없는 경주-천년 동안 엎드려 있던 불상 미스터리'가 특별상을 받았다.

이와 함께 류지호 (주)불광미디어 대표이사가 불교언론인상을 수상했다.

글=김내영 기자 · 사진=송정인 수습기자

#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청년페스타

**11월 7일, 서울 정토회관서 개막**
**법륜 스님 즉문즉설로 청년 소통**
**무소음 디제잉·조인성 강연 이어**




정토회가 11월 7일 서울 정토사회문화회관에서 '2025 청년페스타-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움직임'을 개막했다.〈사진〉 '이제는 K-불교다'를 슬로건으로 한 '청년페스타'는 전통 불교문화에 청년세대의 감성과 힙한 라이프 스타일을 결합한 '힙(Hip)불교' 축제로 11월 9일까지 진행됐다. 청년세대와의 진솔한 대화부터 마음치유, 평화, 환경, 예술, 음악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면서, 청년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3일간 이어진 이번 축제 개막식 무대에 오른 법륜 스님은 청년들에게 '기운'을 주고 싶어 청년페스타를 열었다고 했다. "청년들이 희망이 없다고 말한다. 취업도 어렵고, 높은 집값에, 자살률도 높고, 은둔고립 청년도 많다"고 안타까움을 전한 법륜 스님은 "청년이 미래 우리사회의 주인이다. 재미있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축제의 장을 꾸려 청년에게 위로와 각성, 희망을 건네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번 청년페스타는 특히 청년들이 중심이 돼 기획한 것으로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축제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이날 정토사회문화회관은 지하 2층부터 15층까지 청년들이 진행하는 강연과 공연, 먹거리·체험 부스 등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11월 8일에는 방송인 김제동과 김예지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강연과 무소음 디제잉 파티, 청년 공감 연극 등이 진행됐다. 11월 9일에는 폐막식에 앞서 배우 조인성의 강연이 이어졌다.

임은호 기자 · 송정인 수습기자

# 제22회 대원상에 법상 스님·은장권 이사장

**대한불교진흥원, 수상자 발표**
**오는 11월 21일 시상식 개최**


법상 스님


은장권 이사장

제22회 대원상 특별상 수상자에 목탁소리 지도법사 법상 스님과 은장권 사단법인 함께하는세상 이사장이 선정됐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구상진, 이하 진흥원)은 "제22회 대원상 심사위원회의를 열고 최종 수상자를 선정·발표한다"고 11월 12일 밝혔다.

출가 부문 특별상은 법상 스님이, 재가 부문 특별상은 은장권 이사장이 수상했다. 해외에서 학업과 수행에 정진 중인 스님들을 지원하는 특별 정진상에는 정은 스님(인도 다람살라 체니 다창 무종파 지도자 과정)과 지묘 스님(일본 하나조노대학대학원 석사 과정)이 각각 선정됐다.

법상 스님은 20여 년간 군 장병 포교에 헌신해 왔다. 또한 인터넷 마음공부모임 '목탁소리' 지도법사로서 젊은 불자들의 마음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다. 군승 소임을 마친 후에는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는 명쾌한 법문을 펼치고 있다.

진흥원은 "법상 스님은 깊이 있는 사유와 통찰을 통한 저서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시대 언어로 재해석하여 전파함으로써 현대 포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은 이사장은 불교의 자비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대구불교호스피스센터'를 창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국제구호지원단체인 '함께하는세상'을 설립하여 국내외를 아우르는 구호 활동을 펼쳐 오며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시상식은 11월 21일 오후 2시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열린다.

신중일 기자

해외불교는 지금

# 부탄, 세계평화 기원 대기도회 개최

**11월 4~17일, 왕실 주최로 진행**
**세미나·수계식·사리 이운도**


기도회에 참석한 스님들에게 인사하는 부탄의 현 국왕(좌)과 선왕(우). 사진출처=페이스북

히말라야의 불교왕국 부탄에서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대기도회가 개최됐다.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부탄의 수도 팀푸에서 열린 기도회는 부탄의 4대 국왕 지그메 싱계 왕축 국왕의 칠순을 기념하며 열렸다. 전 세계 사부대중이 모인 이 행사를 해외 불교전문 매체인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을 비롯해 '더 힌두', '더 트리뷴' 등의 해외매체들이 특별보도했다.

부탄 왕실에서 주최한 13일간의 대기도회에는 테라와다와 대승불교 등 모든 불교 종파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부탄의 모든 불교 원로 스님들과 티베트 불교 4대 종단의 대표와 테라와다 각 교단의 대표 스님들이 함께 기도를 이끌었다.

주최 측은 "이 대기도회는 전통 불교의례를 현대적이고 세계화된 방식으로 조화를 이루어 세계의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부탄의 총리 체링 톱게이는 기자회견에서 "이 기도회는 왕실의 비전에서 비롯됐다. 국왕은 부탄 전통불교인 금강승의 전통에 뿌리를 둔 우리의 영적유산을 기반으로 한 세계평화기원 기도회를 선왕의 칠순을 기념하는 특별한 시기에 개최하라고 명했다"고 기도회의 의의를 설명했다.

11월 4일 오전, 기도회는 부탄의 랜드마크인 석가모니 대불이 서 있는 쿤셀포당 사원에서 시작됐다. 여러 악업와 장애를 정화하는 '잡시 되촉(Jabzhi Dhoechog)' 이라는 의식이 제켄포의 주도하에 각 불교계 대표들과 함께 봉행됐다. 잡시 기도가 진행되는 시간에 맞춰 팀푸 시내의 창리미탕 사원에서는 사부대중들이 함께 세계평화 기도회를 봉행했다. 기도는 영어, 티베트어, 종카어 등 여러 언어로 진행됐고 동시통역이 함께했다.

이번 기도회는 단순한 기도뿐만 아니라 각 세계불교와 관련된 학술세미나, 전시회, 관정법회, 수계식 등이 함께 진행됐다. 기도회를 위해 인도 정부는 최근 러시아에서 귀환한 피프라와 스투파의 불사리를 부탄에 특별히 전달해 전시했다. 불사리와 함께 부탄왕실은 왕실 법당 등에서 보관해 온 여러 불사리와 불상 등 여러 성보들도 함께 공개했다.

특히 주목을 받은 행사는 부탄 비구니 재단의 교육과 지원 하에 제 켄포 스님을 전계사로 하는 비구니 수계산림이다. 전계에서 모인 티베트 불교권 250여 명의 사미니 스님들이 비구니 구족계를 수계했다. 이는 부탄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비구니 수계산림으로 의미를 더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 캄보디아에 정수시설 '희망선물'

**11월 7일, 로터스월드·만수사**
**1200명에 깨끗한 식수 제공**



불교국가의 빈곤퇴치에 힘쓰고 있는 국제개발협력단체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가 군포 만수사(주지 다래 스님)의 후원으로 캄보디아 아동들을 위한 정수시설을 설치하며 학생뿐 아니라 지역민들에게도 희망을 선물했다.

최근 연일 보도되고 있는 캄보디아 사회 불안 소식으로 원조 사업이 축소·중단될 위기에 몰린 가운데, 무고한 지역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염원하며 불자들이 십시일반으로 이뤄낸 지원이라 의미가 크다.

로터스월드는 11월 7일 캄보디아 시엠립 주 프레야꼬 트마이(Preah Ko Thmei) 초등학교에서 '맑은물 정수시설 기증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를 통해 1200여 명의 학생과 주민들이 맑고 깨끗한 식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시엠립 지역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캄보디아 사회 불안 소식과 달리, 평화롭고 안전한 분위기 속에서 주민과 아이들이 밝은 미소로 일상을 이어 가고 있다. 이번 정수시설 설치로 지역의 위생환경과 교육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기증식에서 만수사 주지 다래 스님은 "깨끗한 물은 생명의 근본이자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라며 "오늘의 정성이 모연 동참자들의 삶도 맑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콘 짠와띠 어린이가 학생대표로 감사 편지를 낭독하며 "이제는 아플 걱정 없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만수사 스님과 신도들은 이날 전교생에게 교복과 학용품 세트, 가방 등을 전달하며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기증식 후에는 '만수사 맑은물 급수대' 제막식과 더불어 생명력과 번영을 상징하는 피콕꽃 나무 기념식수로 양국 우정과 평화의 의미를 되새겼다.

임은호 기자




**대불련, 고3 수능 응원 "내년에 만나요"**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중앙회장 유주연)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전국 14개 불교종립 고등학교 파라미타 고3 수험생 500명에게 수능 응원선물을 전달했다. 선물은 비타민과 홍삼, 초콜릿 등 간식을 비롯해 핫팩, 굿즈 등 10가지 물품으로 구성됐다. 대학 진학 후에도 불교 활동을 이어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국 불교동아리가 있는 대학 목록과 함께 '대입합격 수능대박' 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은 편지도 첨부됐다. 임은호 기자

# 미디어아트부터 학술대회까지 의상 스님 조명 잇달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해동화엄 초조 의상 스님의 탄신 1400주년을 맞아 대형 미디어아트 전시와 학술대회가 잇달아 열린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성원 스님)는 "의상 스님 탄신 1400주년을 기념해 '의상화엄 문화체험전 – 바다를 건너온 법성세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와 불교문화콘텐츠개발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의상화엄 문화체험전은 11월 14일부터 23일까지 열흘간 서울 토포하우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지난 5월 30일 열린 학술대회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됐으며, 의상 스님의 화엄사상을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했다.

전시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의상 스님 진영(범어사 소장)' △의상 스님과 선묘 낭자의 '화엄연기'를 재현한 미디어아트 작품 △'오감으로 느끼는 나의 본래 모습'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선보인다.

체험 프로그램은 △'법성게'를 직접 써 보는 사경체험(집중과 몰입) △13세기 '법성게' 선율을 현대적으로 복원한 음악을 들으며 수행하는 듣기명상(호흡) △'일승법계도'와 '법성게' 사상을 거울 오브제로 구현한 법성체험(관법) 등으로 구성됐다.

더불어 △조계종 지화명장 정명 스님의 지화장엄작품 △서예가 다천 김종원의 '법성게 병풍' △평산 박청용 작가의 '호흡의 통로에서' 등이 전시돼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정명 스님은 의상 스님 진영단에 백련과 부채난을 천연 한지로 장엄해, 의상 스님의 관음신앙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화엄사와 불교문화콘텐츠개발원 측은 "의상 스님은 '내가 곧 부처'라는 깨달음을 '오척법성(五尺法性)'이라 표현하며, 지금 이 순간의 '나'가 곧 구래불(舊來佛)임을 설했다"면서 "이번 전시도 의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쓰기·읽기·그리기·듣기·걷기 등 몸의 감각을 활용한 체험 중심으로 기획됐다. 이를 통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새로운 불교문화 체험의 장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정총림 범어사에 소장된 의상 스님 진영. 가장 오래된 진영으로 알려졌다. **사진=국가유산청**

**조계종 문화부 등 문화체험전**
**11월 14~23일 토포하우스서**
**'바다 건너온 법성세계' 개최**

**불교학연구회 추계학술대회**
**'의상의 화엄 계승' 주제로**
**오는 11월 22일 서울대서**

불교학연구회(회장 김원명)는 오는 11월 22일 서울대 인문대학 14동 203호에서 의상 스님 탄신 1400주년을 기념하는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학의 재조명: 의상의 화엄, 1400년의 울림과 계승'을 주제로 진행되는 학술대회에서는 의상 스님의 사상들을 수용사적 관점에서 조명하는 논문들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학술대회는 정병삼 숙명여대 명예교수의 '의상 연구의 현황과 과제' 기조 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지는 주제 발표에서는 △의상계 화엄의 동교 개념-송대 화엄과의 비교(고승학, 서울대) △의천이 의상의 화엄사상을 어떻게 수용했을까(셈 베르메르스, 서울대) △조선 시대 의상 화엄의 전승과 연구사의 지형(김용태, 동국대) △일본에서의 화엄경문답의 수용(김천학, 동국대)이 발표된다.

논평자로는 박수현(서울대), 이상엽(서울대), 박보람(충북대), 장진수(원광대) 교수가 참여한다. 종합토론은 정병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다.

# '법정 스님 빠삐용 의자' 첫 '예비문화유산'

**국가유산청 10건 선정안 가결**
**"법정 스님 삶 · 가치관 상징해"**



〈무소유〉 저자 법정 스님의 '빠삐용 의자'가 첫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됐다. 더불어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메달 및 증서' 등 10건도 함께 '예비문화유산'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지난 2024년 9월 15일 시행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근현대분과 소위원회)가 최초의 예비문화유산 10건에 대한 선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예비문화유산'은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근현대문화유산 중 장래 등록문화유산으로서 보존 가치가 높은 것을 선정하여 훼손·멸실을 막고, 지역사회 미래 문화자원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이번 가결된 10건에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주요 순간과 인물, 사건, 이야기가 담긴 중요 유물들이 포함됐다"는 게 국가유산청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선정에는 법정 스님의 유품인 '빠삐용 의자'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법정 스님 빠삐용 의자'는 〈무소유〉의 저자 법정 스님이 1975년 송광사 불일암(佛日庵)을 지은 후, 이듬해 땔나무를 이용해 직접 제작하여 수행 시 사용한 의자이다. '빠삐용'이라는 명칭은 영화 '빠삐용'에서 주인공이 외딴섬에 갇혀 인생을 낭비한 것에 비춰 의자에 앉아 스스로 삶을 되돌아본다는 의미로 스님이 이름 지은 것이다. 이는 법정 스님의 삶, 가치관, 철학을 상징한다.

이밖에도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메달 및 증서 △소록도 마리안느와 마가렛 치료 및 간병도구 △의성 자동 성냥 제조기 △이한열 최루탄 피격 유품 등이 함께 선정됐다.

신중일 기자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⑱ 유마방장

# 좁은데 왜 이리 넉넉할까?




〈유마경〉 '부사의해탈품'에는 주인공 유마 거사의 방, 이른바 유마방장이 소개된다. 그 방은 가로세로 1장(丈), 즉 약 3미터 남짓이었다.

유마 거사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붓다의 제자들이 그를 문안하러 찾아왔다. 그때 사리불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방 안에 의자 하나 없는데, 이 많은 보살들과 제자들은 어디에 앉는단 말인가?"

그의 마음을 읽은 유마가 말했다.

"진정 법을 구하는 이는 자신의 몸조차 돌보지 않습니다. 하물며 의자 따위에 마음을 쏟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마친 유마가 신통력을 일으키자, 그 좁은 방 안에 3만2천 개의 법좌가 들어왔다. 놀랍게도 그 많은 좌석이 서로 넉넉히 자리를 차지하고도 방은 여전히 여유로워 보였다.

이 일화는 환상도, 전설도 아니다. 유마의 방과 의자는 상징이다. 마음에 분별과 차별이 없고 자애로 사람을 대하면, 비좁은 곳에서도 번잡하지 않고 늘 넉넉하다는 뜻이다.

이와 통하는 선시가 있다.

"내게 하나의 주머니가 있으니,
넣고 또 넣어도 늘 여유롭고,
퍼내고 또 퍼내도 여전히 가득하도다."

동서양의 민담과 신화에도 이와 같은 '요술 주머니'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리스 신화에는 '마르지 않는 주전자' 이야기가 있다. 제우스는 아들 헤르메스와 함께 인간의 모습으로 프리기아 지방을 여행했다. 두 신은 여러 집의 문을 두드리며 하룻밤 묵을 곳을 청했으나, 누구도 초라한 나그네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직 한 집, 산기슭의 초라한 오두막만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곳에는 늙은 농부 필레몬과 그의 아내 바우키스가 살고 있었다. 노부부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정성을 다해 나그네를 대접했다. 식탁은 소박했으나, 그들이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음식으로 차려졌다. 그런데 한 병뿐이던 포도주는 잔을 따를 때마다 다시 가득 채워졌다. 차별 없는 연민과 자비의 마음이 '마르지 않는 주전자'를 불러온 것이다.

필레몬과 바우키스의 이야기는 이후 수많은 예술가와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괴테는 〈파우스트 2부〉에 그들을 등장시켰고, 고골은 단편 〈옛 기질의 지주〉에서 이 신화를 풍자적으로 재해석했다. 너새니얼 호손은 〈기적의 주전자〉에서 같은 모티프를 차용했다.

화려한 대저택에서도 고립과 적막 속에 사는 이가 있다. 반면 비록 좁은 집이라도 좋은 벗들이 드나들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 있다.

지금 나의 방은 어떤가. 과연 '유마의 방'인가?

〈화순 불암사 주지〉

# 조선 명필, 탁본으로 만난다

**불교중앙박물관 온라인**
**'조선代 명필가 탁본'展**
**11월 10일~12월 28일**

돌에 새겨진 조선 시대 명필들의 글씨를 탁본으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서봉스님)은 '2025년 금석문 탁본 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11월 10일부터 12월 28일까지 온라인 전시 '조선 시대 명필가 탁본' 전시를 개최한다. 전시는 불교중앙박물관과 국가유산청이 함께 진행해 온 '전국 금석문 탁본 조사 사업'의 결과물이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조사 사업을 통해 지난 12년간 925건 2600여 점에 이르는 양질의 탁본을 수집했다.

전시에서는 석봉 한호(1543~1605), 죽남 오준(1587~1666), 추사 김정희(1786~1856) 등 13인의 명필가가 쓴 비문(碑文) 탁본이 공개된다.

〈천자문〉으로 널리 알려진 명필 한호는 당대 공식 문서를 집필한 사자관 서체의 대표 인물로 꼽힌다. 한호의 '박소 신도비 탁본'과 그의 뒤를 이어 사자관으로 활동하며 뛰어난 필력을 인정받은 죽남 오준의 '삼전도비 탁본'도 함께 소개된다. 오준은 병자호란 이후 청 태종의 공덕을 기리는 삼전도비 비문을 집필하는 등 조선의 국가적 기록을 담당했으나, 오늘날에는 비교적 생소한 인물이다.

전시는 불교중앙박물관 홈페이지(museum.buddhism.or.kr)와 별도의 전시회 링크(buddhism-museum.web.app)를 통해 1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신중일 기자

**바로 잡습니다** 1554호 8면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에서 무유공포(無有恐怖)를 무유공포(無有功佈)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이를 바로 잡습니다.




# 여여정사, 선 수행 도량으로 30년 불사 회향

**11월 10일, 금오선원 개원식 봉행**
**정여 대종사 30년 숙원 도량**
**범어사 말사 선원 공백 해소**
**10여 명 스님 정진 체계 갖춰**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경남 밀양 여여정사는 11월 10일 금오선원 개원식을 봉행했다. 금오선원은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여산 정여 대종사의 창건 원력이 담긴 도량이다.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여산 정여 대종사의 창건 원력이 30여 년 만에 '선 수행 도량'으로 회향됐다.

경남 밀양 여여정사(주지 도명 스님)는 11월 10일 금오선원 개원식을 봉행하고, 올해 동안거부터 선 수행 도량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개원식에는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과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불산 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신도들이 참석했다.

주지 도명 스님은 인사말에서 "여여정사가 그동안 땅을 확보하고 도로를 넓히고 전각을 짓는 '형태의 불사'에 집중해 왔다면, 금오선원 개원은 이제 기존의 건물에 '내용을 채우는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을사년 동안거가 금오선원의 첫 수행으로, 이 도량에서 펼쳐지는 수행력이 밀양을 넘어 사회 전체를 복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불산 스님은 격려사에서 "금오선원 개원은 수행의 불씨가 살아 움직이는 현장이 새롭게 세워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금오선원이 눈 밝은 납자들이 정진하는 수행 도량으로 굳건히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축사에서 "방장 정여 대종사의 평생 불사가 드디어 선방 불사로 회향된 날"이라며 "그동안 선찰대본산의 말사에 정식 선원이 없는 현실을 늘 안타깝게 생각해 왔는데, 금오선원 개원은 그 오랜 염원이 마침내 이뤄진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곳이 납자들의 정진을 품고 시대의 수행 위상을 다시 세우는 도량으로 자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여정사의 시작은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여 스님은 수행 중 반복적으로 떠오르던 한 도량의 형상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 나섰고, 그곳에서 인연을 맺어 여여정사를 세웠다. 스님은 이를 불보살의 가피로 받아들였으며, 주민들과의 협력 속에 도량을 일굴 수 있었다. 이후 여여정사는 대웅전, 약사전 동굴법당, 종각, 관음전, 선혜원, 문화원, 시민선원 등을 조성하며 점차 확장해 왔다. 창건 원력의 최종 목표였던 '수좌 선방' 건립은 금오선원 개원으로 완성됐다.

금오선원은 198.35㎡(60평) 규모로 10여 명의 스님이 방부를 들여 정진할 수 있는 선방 체계를 갖추고 있다. 본동 양측에는 각 2실씩 총 4개의 방이 배치됐고, 별도의 요사채는 99.17㎡(30평) 규모로 방 5실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조실채와 입승 스님이 사용하는 건물도 별도로 세워졌고, 당초 시민선원으로 활용 예정이던 공간도 당분간 선방 부속동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14주년 맞은 미소원, 지역사회 보살행 원력 재다짐

**11월 8일, 미소원 법당서**
**기념법회…200여 명 동참**



미소원은 11월 8일 부산 동구 법당에서 개원 1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회기 입장 후 독거어르신 반찬 봉사자들이 나와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단법인 미소원(이사장 장유정)이 개원 14주년을 맞아 보살행의 원력을 재다짐했다.

미소원은 11월 8일 부산 동구 법당에서 개원 1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기도 공동체에서 출발한 원력이 지역사회 보살행으로 확장돼 온 지난 활동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법회에는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심산 스님, 부산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 부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안도 스님, 쿠무다문화재단 이사장 주석 스님, 플렉스몽크 선명상원 금후 스님 등 스님과 내빈 및 회원 200여 명이 동참했다.

올해 미소원은 한국JTS, 부산불교환경연대 등에 총 5000여 만원을 전달하며 자비실천에 앞장섰다. 미소원은 앞서 10월 26일 울산 정토회 두북수련원에서 JTS 이사장 법륜 스님에게 기금 2700만원을 전달했고, 제2회 환경참회기도 모연금 1170만원을 부산불교환경연대에 전액 기부하며 환경보살의 실천을 이어 갔다. 또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에는 저금통 모연액 500만원을, 전법기금 1080만원은 플렉스몽크 선명상원 금후 스님에게 회향했다.

이 자리에서는 미소원 자비나눔 활동에 기여한 내빈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주)금양기업 정재수 대표와 오원순 이사에게 공로장이 수여됐고, 황정순·김현순 운영이사에게는 부산 동구청장 감사패가 전달됐다.

축하 법문에서 심산 스님은 "AI가 세상을 이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세상을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힘은 자비"라며 "지혜는 나를 자유롭게 하지만 자비는 타인을 자유롭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처님의 덕을 바라는 마음에 머물지 않고, 불교가 나를 보고 '덕이 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갖는 것이 신행의 핵심"이라고 평했다.

장유정 이사장은 "작은 날개짓이지만 세상을 따뜻하게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지금의 미소원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전법과 자비의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신라차문화원, 위트컴 장군 인류애 기리며 헌다례

**11월 10일, 부산 유엔 평화공원**
**"참전용사 희생 · 헌신 기억할 것"**

리차드 위트컴 장군의 인류애와 희생정신을 기리는 헌다례가 봉행됐다.

신라차문화원(회장 정분남·부산여성불자회장)은 11월 10일 부산 남구 유엔 평화공원 내 위트컴 장군 기념조형물 앞에서 '헌다례 및 달빛차회'를 열고 리차드 위트컴이 전쟁 가운데 펼친 박애 정신과 부산 재건 활동을 시민과 함께 되새겼다.

헌다례에는 오은택 부산 남구청장, 서성부 남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정분남 신라차문화원 회장, 박유순 원장 및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분남 회장은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평화공원에서 열리는 헌다례가 시민들의 마음에 평화를 전할 수 있길 바란다"며 "위트컴 장군은 전쟁 중에도 인도주의적 신념을 잃지 않고 고아원 설립과 부산 재건에 헌신한 진정한 휴머니스트였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장군의 뜻을 잊지 않고,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박유순 신라차문화원장은 "장군께서는 인류애와 희생정신으로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 주신 분으로, 오늘 우리는 그 뜻을 기리며 감사의 마음을 따뜻한 한 잔의 차에 담아 올린다"고 말했다.

리차드 세이버 위트컴(1894~1982) 장군은 한국전쟁 당시 미 제2군수기지사령관으로, 1953년 부산역전 대화재 당시 미군의 물자와 인력을 투입해 3만명의 이재민을 구호했다. 전쟁 후에도 고아원과 복지시설, 학교 건립을 지원하며 한국 재건에 힘썼고 "내 유해의 일부를 한국에 묻어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리차드 장군의 인류애와 헌신은 '부산의 은인', '전쟁 속의 인도주의자'로 기억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11월 11일 11시, 부산불교 유엔 참전용사 추모 타종

**팔관회 회향 기념 행사**
**호국 · 평화 의미 되새겨**

11월 11일 오전 11시, 부산 전역 사찰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날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 범어사 주지)는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타종식을 일제히 봉행하며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한국전쟁 유엔 참전용사들의 넋을 추모했다.

팔관회 회향을 기념하며 진행된 이번 행사는 불교계가 호국과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감사의 마음을 종소리에 담은 뜻깊은 추모 의식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오 스님을 비롯한 범어사 스님 10여 명이 참석해 11차례 종소리를 울리며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렸다. 이어 스님과 불자들은 1분간 묵념하며 전몰용사와 순국선열들의 "국민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고 미래 세대에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훈"이라며 "유엔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은 2007년 캐나다 참전용사 빈센트 커트니 씨가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유엔참전국이 함께 1분간 묵념하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국가보훈처는 2020년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11월 11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턴 투워드 부산'은 11월 11일 오전 11시 부산을 향해 1분간 묵념하며 한국전쟁에 참전한 22개 유엔 참전국과 유엔 참전용사 198만명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는 행사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용인 보덕관음사, "지역 중심 도량" 서원

**개산 50주년 기념법회 봉행**
**사부대중 500여 명 참석**



용인 보덕관음사(주지 혜오 스님)가 개산 50주년을 맞아 11월 8일 기념법회와 산사음악회를 열고 지역 중심 도량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서원했다.

이날 법회에는 용인시불교사암연합회장 정호 스님(대각사 회주)을 비롯해 백련사 법공 스님, 일광사 광월 스님, 잠실 불광사 동민 스님, 해룡사 현수 스님, 정원사 녹관 스님 등 스님 20여 명과 현태주 용인불교신도회장, 배영찬 용인동부경찰서장, 김정식 용인시의원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보덕관음사 주지 혜오 스님은 인사말에서 "창건주 혜운 스님의 원력으로 일궈진 보덕관음사는 반세기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불자들의 귀의처로 자리해 왔다"며 "앞으로도 수행과 포교, 나눔으로 지역 불교의 중심도량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진 정호 스님의 법문에서는 "보덕관음사는 불교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수행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이어 가야 한다"며 "지난 50년의 불심이 새로운 백년불교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 선광사, 개원 24주년 기념법회·경로잔치

**11월 7일, 선광사 경내 특설무대**
**대덕여고 학생에 900만원 장학금**



부산 사상구 백양산 선광사(주지 성문 스님)는 11월 7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제24회 개원 기념 법회 및 효사랑 경로 큰잔치'를 봉행했다.

행사는 부처님 자비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어르신 공경과 나눔의 의미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광사는 이날 지역 협력학교인 대덕여고 학생 30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총 9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선광사는 개원 이후 24년째 대덕여고에 장학금을 후원하며 지역 미래세대의 인재불사에 앞장서고 있다.

선광사 주지 성문 스님은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게 "다이아몬드든 옥이든 다듬지 않으면 보석이 될 수 없다"며 "자신이 자신을 제일 잘 알기에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찾아 자신만의 재능을 갈고닦아 세계 최고가 되라"고 당부했다.

2부 경로 큰잔치에서는 김국환, 문희옥 등 초청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흥겨운 공연을 펼쳐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 대원각사, '부기랑 느긋하장' 웰니스 체험

**11월 8일, 웰니스 캠페인 일환**
**명상 · 다도 · 불무도 등 경험 제공**



부산광역시가 개최하는 부산형 웰니스관광 체험 캠페인 '부기랑 느긋하장' 행사가 11월 8일 해운대 대원각사(주지 안도 스님)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지역 전통문화와 웰빙 콘텐츠를 결합해 바쁜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잠시 멈춰 자신을 돌아보는 쉼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기랑 느긋하장'은 부산의 공식 캐릭터 '부기'와 '느긋하게 쉬어 가자'는 의미가 담겼다.

행사는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요가 명상 △차 명상 △불무도(佛舞道) 체험 △템플런치 시식 △힐링토크 △멍터(멍 때리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요가 명상으로 호흡을 가다듬고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차 명상으로 따뜻한 차의 온기를 느끼며 마음을 비우는 한편 불무도로 호흡과 동작이 하나 되는 평온함을 체험했다. 힐링토크 시간에는 안도 스님의 즉문즉답 시간이 진행됐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 한나래문화재단, 태국 대학생 초청 교류

**11월 2일~9일, 불교문화 체험**




태국 송클라나카린대 인문사회대학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부산을 찾아 한국불교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했다.

(사)한나래문화재단(이사장 심산 스님)은 11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태국 대학생 6명과 인솔 교수 1명을 초청해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방문은 올해 7월 태국 송클라나카린대에서 진행된 '한국어 도전! 골든벨' 수상자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한나래문화재단은 지난해보다 초청 인원을 늘려 수상자 외 차순위 참가자 3명에게도 방한 기회를 제공했다.

이사장 심산 스님은 "문화는 언어보다 깊은 마음의 교류에서 비롯된다"며 "이번 일정을 통해 한국과 태국의 청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연대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찾아가는 법회로 지역 대중과 만납니다”

지역 불교人 정읍 보림사 주지 종진 스님

**2023년부터 마을 순회하며**
**매월 음력 초하루 법회 봉행**
**독지가 후원으로 효 잔치도**
**선명상 강좌 통해 포교활동**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는 늘 곁에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공간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부드럽게 스며드는 수행이어야지요.”

정읍 보림사 주지 종진 스님〈사진〉은 매월 음력 초하루면 법당 밖으로 나선다. 신도들이 찾아오는 법회가 아닌, 스님이 먼저 지역 주민을 찾아가는 초하루 법회를 시작한지도 벌써 2년이 넘었다.

사찰이 산중 오지에 자리잡고 있어 교통이 불편하고 연로한 신도들은 산중턱의 절을 찾아오기 힘들자 스님이 직접 신도들을 찾아 나섰다. 지난 2023년 6월 시작된 이 법회는 지금까지 정읍시 26개 마을을 순회하며 이어지고 있다. 신도들이 정성껏 마련한 음식과 간단한 레크리에이션이 어우러져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법회라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이에요. 절에 올 수 없는 어르신들, 종교를 떠나 힘든 삶의 무게를 지고 사는 이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되고자 시작했지요.”

이 같은 진심은 지역사회에서도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최근에는 법회의 입소문을 들은 한 독지가의 후원으로 대규모 효 잔치까지 열게 됐다.

오는 12월 6일 정읍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리는 효잔치에는 식사는 물론 유명 가수 공연과 치매 진단 상담, 미용 봉사, 전통차 시음 부스, 영정사진 촬영 포토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불교 행사로 시작된 활동이 이제는 지역 복지와 문화의 장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종진 스님은 선명상 강좌에도 힘을 쏟고 있다. 출가자 중심의 수행으로 여겨졌던 참선 수행을 불자와 일반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중화하고 있다. 보림사에서 시작된 명상 강의는 이제 광주, 전주, 정읍 등 외부 지역에서도 수강생들이 찾아올 만큼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명상이란 결국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잖아요. 숨을 고르고 마음을 내려놓는 법을 안다는 건, 이 복잡한 세상에서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종진 스님은 군 장병을 위한 포교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정읍 105여단 장병들은 매월 1회 보림사를 방문해, 스님과 함께 법문을 듣고, 명상 수행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젊은 장병들에게 불교의 본질을 전할 수 있는 건 매우 소중한 인연입니다. 군 생활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보시라고 생각합니다.”

보림사를 찾는 이들은 절만 둘러보고 가지 않는다. 스님과 차 한 잔 나누고,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고 간다. 종진 스님은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마음을 놓을 곳이 없어졌어요. 저는 불교가 그런 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찾아가는 법회, 명상 강좌, 산사음악회, 군 장병과의 인연까지, 모두 다르지만, 그 중심엔 ‘불교는 곁에 있어야 한다’는 스님의 철학이 자리하고 있다.

“큰 불사도 좋지만, 저는 작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싶어요. 주민과 함께 숨 쉬는 절, 언제나 열려 있는 사찰이 되도록 보림사의 문을 낮게 열고 기다리겠습니다.”

# 어린이 청소년들 불자 되다

**선운사 선재동자 수계법회 봉행**
**11월 8일 대웅보전 특별계단서**



고창 선운사는 11월 8일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선재동자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경우 스님이 마정수기를 하는 모습.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가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선재동자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11월 8일 선운사 대웅보전 특별계단에서 봉행된 수계법회는 선운교육문화회관 어린이 법회 회원과 군산 동국사 청소년법회 회원 등 유아, 아동, 청소년부 어린이 청소년 28명이 삼귀의계와 어린이 오계를 수지하고 불자로 거듭났다.

혜수 스님의 인례와 성종 스님의 집전으로 봉행된 수계법회는 전계대화상에 경우 스님(선운사 주지), 갈마아사리 운천 스님, 교수아사리 지태 스님이 참석해 아이들에게  삼귀의계와 어린이 오계를 수계했다

이날 법회에는 수계 어린이들과 가족, 신도회 임원들도 동참해 나이와 세대를 아우르는 계층별 수계의 의미를 더했다.

경우 스님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으로 삼귀의계와 어린이 오계를 설한 뒤 장래에 부처가 될 것임을 증명하는 마정수기를 진행했다. 수계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는 수계첩과 오조가사, 합장주, 호신경, 미륵반가사유상, 그리고 포근한 겨울용 패딩이 수계 선물로 전달됐다.

경우 스님은 “오늘 수계를 받은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수계공덕으로 모두 건강하고 따뜻하고 지혜로운 어린이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수계를 통해 ‘동진’이라는 법명을 받은 정동섭 학생은 “불교를 접하게 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종교의식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며 “부처님 제자로 받아주신다는 점이 기쁘고 숭고한 마음”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법회 후에는 선운사 대중 스님들과 수계 어린이, 가족, 신도들이 함께 만세루에 모여 다과 자리를 가졌다. 따뜻한 차와 간식이 마련된 공간에서 아이들은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불심을 나눴고, 부모들은 자녀의 수계를 함께 축하하며 기쁨을 공유했다. 웃음과 대화가 오가는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참석자 모두가 사찰 공동체의 따뜻함을 체감했다.

이번 선재동자 수계법회는 항상 교구 포교를 우선해 온 경우 스님의 원력으로 마련됐다. 군장병, 불교대학 학인, 포교사, 신도회를 비롯한 신행단체 임원들뿐 아니라 영유아와 청소년까지 수계를 받을 수 있도록 정례화함으로써 조계종의 포교 지향점인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신도 양성’에 모범을 보였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천안불교계, 사찰음식으로 자비나눔

**11월 8일 천안 각원사서**
**불자·시민 3000명 한마음**



천안시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도언 스님)는 11월 8일 각원사 영산전과 개산기념관 앞 무대에서 ‘천안 시민과 함께하는 불우이웃돕기 일일 찻집’ 및 ‘제1회 한국식문화(사찰음식) 전시회’를 개최했다.〈사진〉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각 사찰이 준비한 다양한 사찰음식과 차를 판매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각원사는 해물파전과 전류, 극락정사와 태학사는 어묵과 떡볶이, 도광사는 유자차와 쌍화차 등 차류, 승천사는 된장과 메주 등 장류를 준비했다.

올해 처음 열린 한국식문화 전시회에서는 광현 스님(무애사)이 직접 만든 54가지의 사찰음식이 선보였다. 산나물, 두부 요리, 장아찌 등을 준비한 광현 스님은 “수행과 자비, 절제의 마음이 깃든 문화유산인 사찰음식으로 모두가 건강한 마음과 삶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사암연합회 원로의장 지산 스님은 “여러분들의 정성과 공덕이 힘든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로 전해지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사암연합회장 도언 스님은 “오늘 일일찻집은 연합회 소속 사찰들이 자원봉사로 뜻을 모아 마련한 자리”라며 “수익금은 모두 소년소녀 가장과 불우이웃을 돕는 데 쓰여 불교와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천안시불교사암연합회 원로의장 지산 대원 스님을 비롯한 지역 스님들과 정효숙 세종·충남 포교사단 부단장 등 3000여 명이 함께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 태고종, 50기 합동득도 수계산림

**11월 5일 순천 선암사서**
**58명 사미·사미니계 수지**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1월 5일 순천 선암사(주지 승범 스님)에서 ‘제50기 합동득도 수계산림’을 봉행하고 58명의 새로운 출가 수행자를 배출했다.

이번 수계산림에는 당초 60명이 입소했으나 2명이 자진 퇴소해 사미 41명, 사미니 17명 등 58명이 수계했다. 수계자들은 지난 10월 10일 입소 후 28일간 기초습의, 사미율의, 초발심자경문, 예불과 불교의식 습의, 종지·종풍과 종단사, 울력, 일보일배 등의 수행과정을 이수했다.

이날 산림법회에는 전계아사리 상진 스님(태고종 총무원장), 갈마아사리 시각 스님(중앙종회의장), 교수아사리 구산 스님(호법원장)을 비롯해 교육원장 재홍, 포교원장 능해, 고시위원장 휴완, 선거관리위원장 정운, 법규위원장 육화, 경남교구종무원장 황봉, 해외교구회주 종매 스님 등 칠증사가 참석했다.

전계아사리 상진 스님은 “득도는 세속의 삶을 떠나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첫걸음이며, 앞으로는 인천(人天)의 스승이 된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출가 수행자는 청정한 계율을 지키고 욕심과 분별을 내려놓아야 진정한 수행자의 길을 걸을 수 있다”며 “불법을 널리 전하고 중생 교화에 헌신하는 태고종의 수행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비의식 후 진행된 체발식에서는 현담 사미가 대표로 머리카락을 올렸으며, 상진 스님은 범산 사미에게 수계증을 대표로 전달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최우수상에 범수, 우수상에 범산, 모범상에 명해, 봉사상에 상적·혜은·법계, 인욕상에 금동 행자가 각각 선정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청운 스님, 일붕문도중앙회 총재 취임

**11월 10일 문도의 날 취임법회**



(사)세계법왕일붕문도중앙회(회장 정림 스님)가 11월 10일 안성 영평사 특설무대에서 ‘제54회 세계법왕일붕문도의 날 기념 및 제2대 총재 청운대종사, 제2대 문장 천강 교령 취임 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제2대 총재로 취임한 청운 스님은 취임사에서 사부대중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일붕 존자는 한국 불교 발전은 물론, 세계 불교의 화합과 평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존자의 가르침과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며 문도 모두가 자비와 평화의 사상을 널리 전하는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제2대 문장으로 취임한 천강 교령은 “일붕 존자께서 세운 위대한 법의 공동체를 이어받아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것이 소명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도회장 정림 스님(영평사 주지)은 대회사에서 “세월이 흘러도 존자의 공덕과 자취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문도들이 그 뜻을 이어받아 세계 곳곳에 평화의 사상을 전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동규 경기북부지사장

## 해인사, 성철 대종사 추모다례

**11월 9일 열반 32주기 맞아**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가 성철 스님의 열반 32주기를 맞아 스님의 청정수행정신을 기리는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11월 9일 대적광전에서 봉행된 ‘퇴옹당 성철 대종사 열반 32주기 추모다례재’에 앞서 대중들은 부도탑에 헌화로 추모의 뜻을 올렸다. 다례재에는 주지 혜일 스님과 범어사 수좌 수불 스님(안국선원 선원장), 문도대표 원타 스님을 비롯한 문도 스님들과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원타 스님은 인사말에서 “‘자기를 바라봅시다’라는 대종사님의 법문을 가슴 깊이 새기고 ‘남을 위해 남모르게 기도합시다’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겠다”며 “가야산의 청정도량에서 대종사께서 남기신 수행 가풍을 이어 불법홍포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능인종, 종수 대종사 9주기 다례재

**11월 9일 진영포교당서**



능인종(총무원장 수암 스님)이 11월 9일 화장사 진영포교당에서 ‘한파당 종수 대종사 추모 9주기 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석에는 해광사 원공 스님, 맏상좌 우암 스님, 불영사 일산 스님, 미륵사 현암 스님, 화장사 정우 스님을 비롯한 문도 스님들과 사부대중이 동참해 스님의 수행정신과 법맥을 되새겼다.

총무원장 수암 스님은 추모사에서 “한파당 종수 대종사께서는 수행자의 본분에 철저하고 무집착과 무아의 실천으로 일생을 사셨다”며 “그 뜻이 능인종의 포교와 수행의 길에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파 스님은 2005년 영남범음범패연구보존회를 창립해 전통 불교의식음악 전승과 연구, 후학 양성에 헌신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천안 각원사, 태국 왓싸켓 사원과 교류

**11월 9일 프라랏 스님 방문**



천안 각원사(주지 대원 스님)가 태국 방콕 왓싸켓(Wat Saket) 사원과 친선 교류하며 우호를 다졌다. 주지 대원 스님은 11월 9일 왓싸켓 사원 부주지 프라랏 킷차번 스님의 예방을 받고 양국 불교 교류와 발전 방향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사진〉

대원 스님은 환영 인사에서 “태국 왓싸켓의 스님들과 천안 붓다라마의 찌라삭 스님 일행을 맞이하게 되어 반갑다”며 “이 인연이 한국과 태국 불교의 교류를 더욱 깊게 하고 양국 불자들의 삶 속에 더욱 빛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 창원불교신도회, 불자 파크골프대회

**11월 5일 500여 명 참석**



창원특례시불교총연합신도회(회장 이상연)는 11월 5일 창원 대산드림파크골프장에서 ‘창원시민과 함께하는 불자 친선 파크골프 한마당’을 개최했다.〈사진〉

행사에는 창원불교연합회장 법안 스님과 이상연 창원특례시불교총연합신도회장, 조보현 수석부회장, 김정기 부회장을 비롯한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법안 스님은 격려사에서 “오늘 행사가 불자 여러분의 신심과 자비심을 더욱 고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태고 보우·석옥 청공 만남, 한중교류사 중요 분수령”

**태고종 총무원**
**제8차 한중불교문화교류 국제학술대회**

김교흥·임오경 의원 등 공동 주최
상진 스님 “종단 정체성 확립할 것”
韓태고·中석옥 선맥 및 다맥 조명

태고 보우, 임제 법맥 고려에 전승
문헌 전파·의례 확산에도 기여해

“禪, 차의 영혼” 강조한 석옥 청공
법맥과 함께 ‘선다일미’ 정신 전해




태고종 총무원은 11월 12일 국회박물관 2층 회의실에서 ‘제8차 한중불교문화교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한 내외빈들의 기념촬영 모습.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고려 말기 불교 중흥을 이끌었던 태고 보우(1301~1382) 국사와 그에게 법을 전한 중국 임제종 제18대 법손인 석옥 청공(1272~1352)의 전법 교류의 면면을 살펴보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태고종 총무원(원장 상진 스님)은 11월 12일 국회박물관 2층 회의실에서 ‘제8차 한중불교문화교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중불교문화교류의 역사적 계승 및 교류 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날 국제학술대회는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박정하 국민의힘 국회의원,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이날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태고 보우 국사와 석옥 청공의 법맥 및 다맥과 한중불교교류사를 조명하는 기조발제와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 임제 법통이 해동으로…

차차석 동방문화대학원대학 석좌교수는 ‘석옥과 태고의 상견과 환생, 그 미래적 전망’ 기조발제에서 석옥 청공으로부터 태고 보우로 이어진 전등의 의미를 분석하고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차 석좌교수는 태고 보우 스님이 활동하던 당시 고려 말기는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격변 속에 있었으며 불교 역시 구산선문의 분열과 더불어 세속화 문제를 겪고 있었음을 되짚고 “이 같은 상황에서 태고 보우 스님은 중국 임제종 정통 법맥을 도입함으로써 고려 선종의 위상을 재정립하려고 했다”고 봤다.

태고 보우 스님은 46세 때인 1346년 원나라로 떠나 2년여간 행도(行道)했으며, 임제종 제18대 법손인 석옥 청공 선사를 만나 전법 인가를 받았다. 석옥 청공 선사는 원나라 시기 남종선의 대표적 선지식으로 간화선을 강조하고 청빈한 삶을 실천했다.


차차석 동방문화대학원대학 석좌교수가 기조 발제를 하고 있다.


중국 후저우시불교협회 부회장 증도 스님이 기조 발제를 하고 있다.



태고종은 학술대회에 앞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재를 시연했다.

이 같은 임제의 법통이 해동에 전등됨은 △한국 임제종 정통성 확립 △동아시아 불교네트워크 형성 △사상과 제도의 변용이라는 의의를 갖는다는 게 차 석좌교수의 분석이다.

차 석좌교수는 “태고 보우가 석옥 청공에게 인가받음으로써 고려 선종은 중국 임제선의 정맥(正脈)에 연결됐고 이후 조선 초기까지 이어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법맥 전승을 통한 교류는 고려·원·명으로 이어지는 불교네트워크를 강화했고 이는 학승 교류, 문헌 전파, 의례 문화 확산으로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차 교수는 △동아시아 불교 공동체 재구성 △수행·교학의 상호 보완 △한중 불교 공동 사회적 실천 △불교문화 자원의 현대적 활용 등을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으로 제시했다.

차 석좌교수는 “중국의 간화선 전통과 한국 불교의 사회참여·제도개혁적 전통은 상호 보완적이다. 오늘날 한국과 중국불교는 공동 명상 프로그램, 국제 선원 운영 등을 통해 실질적 수행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석옥 청공과 태고 보우의 만남은 중국과 한국의 불교교류사에서 중요한 분수령”이라며 “오늘날 우리는 이 교류 전통을 계승해 수행과 교학의 상호보완, 사회적 실천의 중시, 불교문화의 현대적 활용을 통해 한중불교가 동력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석옥 청공 ‘다선일미’ 동북아 전파

중국 후저우시불교협회 부회장 증도 스님(장흥 현성사 방장)은 ‘청공 선사 다선 사상의 초국적 전파’를 주제로 진행한 기조 발제에서 석옥 청공 선사의 ‘다선일미(茶禪一味)’ 사상을 조명하고 선사의 다맥이 어떻게 동북아 전반으로 확장됐는지를 살폈다.

증도 스님은 석옥 청공 선사가 남긴 〈산거시(山居詩)〉, 〈석옥청공선사어록〉 등 저작과 다시(茶詩)를 분석하고 “청신하고 자연스러운 필치의 석옥 청공 선사의 다시들은 선승의 차생활과 선 수행 경지의 일치를 생생히 보여 준다”고 평했다.

이 같은 석옥 청공 선사의 법맥과 다맥은 태고 보우 국사를 통해 한반도로 전해졌다는 게 증도 스님의 주장이다. 증도 스님은 “석옥 청공 선사의 다선일미 사상은 중국 본토에도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태고 보우 선사에게 전해진 법맥과 각종 전적을 통해 한반도에 뿌리내렸다”고 강조했다.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태고보우, 중국 임제종의 정맥과 종지를 수용하다’를, 구고흥 중국계양대학 인문화외국어학원 교수는 ‘석옥청공의 선법사상연구’를 발표하며 두 선지식의 선사상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최석환 한국국제선차문화연구회장은 ‘태고보우 국사의 차맥 계승과 하무산 하무차를 통해 본 선차문화 교류에 관한 연구: 석옥 청공과 태고 보우의 차맥 계승을 중심으로’를, 장흥 길상사 문지 스님과 천호암 자성 스님은 ‘원대 하막산 천호암 석옥 청공 선사 선차사상연구’를 통해 석옥 청공의 선차사상과 차맥을 조명했다. 또한, 김진무 충남대 교수는 ‘근현대 한중불교문화의 교류 및 방향’을, 사지빈 서북대학 교수가 ‘가사·법의·어사법의: 승복 제도의 형성과 변천’을 주제로 발제했다.

### 한중불교 의례로 대회 막을 열다

앞서 열린 입재식에서는 태고종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자 국가무형유산 ‘영산재’를, 후저우시불교협회 대표단이 중국불교 전통 예불의식을 시연해 눈길을 끌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치사를 통해 “태고 보우 국사의 원융 사상을 바탕으로 열린 학술대회는 태고종의 정체성과 사상, 그리고 전통을 심도 있게 고찰하고 미래를 탐구하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평가받았다”며 “특히 지난해 중국 절강성 수성사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는 태고 보우 국사의 법맥과 법통을 학문적으로 조명하고 한국과 중국의 불교문화교류에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고종은 앞으로도 태고 보우 국사의 원융 화합의 정신을 이어받아 종단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불교 발전과 중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태고종 교육원장 재홍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는 오랜 세월 이어져 온 한중불교의 인연을 다시 확인하고, 태고 보우 국사께서 이으신 법맥의 정신을 오늘의 시대 속에 되새기기 위한 자리”라며 “학술대회가 단순한 학문 교류를 넘어 불교의 자비와 평화의 가르침을 통해 양국이 더 큰 신뢰와 우호를 쌓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 후저우시불교협회장 계륭 스님은 축사를 통해 “불교는 중국과 한국 국민들의 마음을 이어 주는 중요한 다리였다. 그렇기에 석옥 청공-태고 보우 법맥은 더욱 시대적인 빛을 발해야 한다”면서 “오직 교류와 상호 이해, 화합과 공생만이 오래도록 발전할 수 있다.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황금유대’가 더욱 굳건해지고 한중불교문화 교류의 새로운 장을 함께 써내려 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대회를 공동 주최한 김교흥 의원과 임오경·박정하 의원은 개회사와 환영사를 통해 불교문화 교류를 통해 한중 양국의 우호와 신뢰를 심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또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축사를,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이헌승 국회 정각회장이 영상 축사를 전했다.

지장보살 영옥함




지장보살 좌대에 영옥으로 봉안

사찰 납골의 혁신

• 유골이 보석화 되어 깨끗하고 변질이 없습니다.
• 납골의 곰팡이, 변질, 벌레 발생 근본적 해결함.
• 친숙한 사리 형상으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모시는 환경과 장소에 구속 받지 않고 경제적
• 관리가 어려워진 산소 정리 후 개장 유골도 가능
• 변질되어 악취 발생 및 물이 찬 유골도 가능함
• 고인별로 영옥의 색상이 다르게 발현됨
• 22년간 기술을 발전시켜 고인 고유의 아름다운
• 색상을 발현시키는 기술이 검증된 원조 회사
• 생성 소요 시간 60분 소요
• 납골을 모셔오고 생성 후 모셔 드리는 서비스 있음
• 영옥의 색상과 량은 고인 별로 다르게 발현됩니다.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직통상담 010-5235-2677
홈페이지 www.holytec.com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영옥(靈玉) 사리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사리 검색

# “온 세상에 평화를”…1만여 태고종도 발원 ‘한마음’




11월 8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원에서 봉행된 ‘2025 태고종 영산재 · 국제수계대법회’에서 종정 운경 대종사의 법어를 참석 대중이 경청하고 있다.

## 태고종 영산재·국제수계법회

**11월 8일 광화문 광장 일원서**
**1만여 대중 십선계 수지 ‘발심’**
**운경 스님 “계율은 해방의 길”**
**영산재 시연…평화 · 행복 기원**
**불교문화 체험부스도 ‘인기몰이’**



국제수계법회에 증참한 전계 · 갈마 · 교수아사리와 증사 스님들이 국내외 불자들에게 연비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자 국가무형유산인 영산재 의식 중 천수바라가 설행되고 있다.

글=신중일 기자 · 사진=정현선 작가

“함께 발원합시다. 이 세상에 전쟁과 분쟁이 없어지길. 함께 기도합시다. 온 인류의 행복을 위해 바라밀과 보살도를 함께 실천합시다.”

1만여 태고종도들과 불자, 시민들의 간절한 서원이 서울 광화문 광장을 거룩하게 장엄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1월 8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원에서 ‘2025 태고종 영산재·국제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종조 태고 보우 국사의 원융회통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불교 전통종단인 태고종의 정통성을 대내외에 알리고자 열린 이번 법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태고종의 위상과 발전 방향을 보여 주겠다”는 총무원장 상진 스님의 원력에서 비롯됐다.

이 같은 원력에 부응하듯 이날 법석에는 전국 태고종도와 국내외 불자, 시민 등 1만여 명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웠다.

### 운경 스님 “중생구제 원력 갖자”

법회는 태고종 종정 운경 대종사를 비롯한 참석 스님들을 법회장으로 모시는 종사이운 의식으로 시작됐다. 광화문 광장에서 이뤄진 장엄한 전통 종사이운 의식에 대중들은 합장하며 선지식들을 맞이했다.

이날 법회의 증명 법사로 법상에 오른 운경 스님은 영산재와 수계의 중요성과 실천의 원력에 대해 설했다.

운경 스님은 “30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취산에서 설하신 설법을 의식으로 재현하는 것이 영산재”라며 “오늘의 범음범패와 작법무, 바라춤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부처님의 원력과 가피가 현전하는 기도이며 원력이자 발원이다. 이는 부처님의 가피와 공덕으로 지구촌 모든 생명의 고통을 소멸하고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자비 원력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정 운경 스님이 법어를 설하고 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봉행사를 하고 있다.



신상도 중앙신도회장이 대표로 수계증을 받았다.



해탈컴퍼니 체험부스에서 민속놀이를 즐기는 시민들.

이어 “계율을 속박으로 생각하지만 속박이 아니다. 계율은 해방의 길이요, 괴로움과 고통의 근원을 없애고 자유와 평등을 위한 길”이라며 “오늘 법회의 원력으로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고 스스로 자만하지 아니하는지를 살펴보라.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을 실현하며 자비로써 회향하는 불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 상진 스님 “K불교 위상 세계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서 원로의장 호명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불교는 본래 분별이 없는 자비의 종교이며 경계 없는 화합의 길을 걷는 가르침”이라면서 “오늘 이 자리가 종단의 수행승가뿐 아니라 시민과 예술인 그리고 모든 중생이 함께 어울려 평화와 상생을 발원하는 대동화합의 도량이 되기를 서원한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오늘 시민 화합과 소통을 기원하는 2025 태고종 영산재를 통해 글로벌 서울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날로 새로워지고 문화민족의 자긍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국제수계대법회 역시 한국불교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드높이고 한국불교가 세계불교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염원하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영수 문체부 1차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소중한 무형유산을 온전히 보존·계승하고 불교문화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 헌신하는 태고종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오늘의 법석이 한국불교의 높은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시민들과 세계인 모두가 한국불교문화를 함께 향유하는 열린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병덕 국회의원이 대독한 축사에서 “이 법석에서 울려 퍼지는 법음이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며 나아가 세계인류의 평화와 화합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축사를 통해 영산재와 국제수계대법회가 한국불교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세계 인류의 화합과 평화를 다지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헌승 국회 정각회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영상을 통해 축하의 뜻을 전해 왔다.

더불어 평택 미군부대에서는 상진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고, 상진 스님은 한국불교 포교에 기여해 온 담마끼띠 스님 등 외국 스님들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 수계법회 · 영산재로 대중과 소통

이어진 국제수계법회는 전계아사리에 수진 스님, 갈마아사리에 중앙종회의장 시각 스님, 교수아사리에 호법원장 구산 스님, 칠증사에는 국내에서 포교원장 재홍 스님, 포교원장 능해 스님, 태고총림 선암사 주지 승범 스님, 동방불교대학장 법담 스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정운 스님, 고시위원장 휴완 스님, 해외교구 종매 스님이 참여했다. 국외칠증에는 계륭 스님(중국), 냐나난다 스님(스리랑카), 랏끼차폰 스님(태국), 난다카 스님(미얀마), 탁하이안 스님(베트남), 쿤상 도제 라마 스님(네팔), 법미 스님(미국)이 자리했다.

수계법회는 전계아사리 수진 스님이 십선계를 내리고 참회와 연비의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대중은 보살도를 실천하는 불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연비의식 후에는 수계자 대표인 신상도 태고종 중앙신도회장에게 수계증을 전달했다.

수계식 이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유산인 영산재가 설행됐다. 영산재는 신중작법, 복청게, 천수바라, 도량게, 법고, 거불, 축원, 향수나열, 사다라니, 가지게, 축원화청의 순서로 이어지며 한국불교 전통문화의 아름다운 승무와 범패를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법회에 참석한 태고종도들은 높아진 종단 위상을 확인한 환희스런 법석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정혜숙(73·청송 대천사 신도) 씨는 “광화문 광장에서 태고종도가 한데 모여 수계법회를 봉행한 것에 감개가 무량하고 기쁘다”면서 “모든 중생의 소원 성취와 평화로운 세상을 기원했다”고 말했다.

노경택(57·양주 청련사 신도) 씨는 “청련사 회주이신 상진 스님께서 총무원장으로 취임하신 후 높아진 종단 위상을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태고종도의 한 사람으로서 환희심이 든다”고 밝혔다.

### ‘힙불교’부터 ‘팬심’까지

이날 태고종은 문화로 대중과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체험부스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특히 ‘힙불교’로 대표되는 ‘해탈컴퍼니’의 체험부스에는 ‘옴마니반메훔 타투 스티커’, ‘진언 손수건 만들기’, ‘민속놀이’를 체험하기 위한 불자와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또한 단청 그리기, 화과자 만들기 부스에도 불자와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자녀와 함께 부스를 찾은 천태종 신도 김미선(42·인천) 씨는 “천태종 법회만 다니다가 이웃 종단 의례를 경험해 보니 감회가 새롭다”면서 “아이들과 함께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 즐거웠다”고 말했다.

‘옴마니반메훔 타투 스티커’를 체험한 박효주(42·대전) 씨는 “불자는 아니지만 너무 즐거운 체험이었다”면서 “‘옴마니반메훔’이 소원을 이뤄 주는 주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잘되고 저도 행복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불자가수 송우주 씨의 팬들도 법회장을 찾았다. 김규리(66·서울) 씨는 “오늘 문화공연 행사에 독실한 불자인 송우주 씨의 무대가 있다. 팬으로서 많은 기대를 갖고 참여했다”면서 “영산재는 몇 차례 참여했는데 이처럼 대형 법석은 처음이다. 장엄함에 다시 한번 놀랐다”고 말했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12~11/18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 | 상욱,현안 | 위앙북스 | 6 | 어울리면 열리는 길 | 도영 | 효림 |
| 2 | 산사는 깊다 | 지안스님 | 불광출판사 | 7 | 지장경 연명지장경 | 청운 | 꿈의날개 |
| 3 | 불교성전 | 불교성전편찬위원회 | 조계종출판사 | 8 | 반야심경 강의 | 광덕 | 불광출판사 |
| 4 | AWAKENING(깨달음 내는 뜨기) | VEN.POMNYUN SUNIM | 정토 | 9 | 반야심경과 선공부 | 법상 | 무한 |
| 5 | 법화경(경전조사어록5) | 우학 | 좋은인연 | 10 |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 과경 | 불광출판사 |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요가디피카 | 선요가 | 아헹가/현천 역 | 6 | 앙굿따라니까야(5) | 초기불전연구원 | 대림 스님 옮김 |
| 2 | 진짜나를찾아라 | 샘터사 | 법정 | 7 | 불멸(1) | 지혜의눈 | 이각 지음 |
| 3 | 스스로행복하라 | 샘터사 | 법정 | 8 | 부처님의당부 | 사유수 | 비구 보디/등현 감수 |
| 4 | 다시여행을시작하는그대에게 | 김영사 | 덕조 글,사진 | 9 | 불교이후 | 운주사 | 스티븐 배철러 |
| 5 | 법구경 | 담마디빠 | 식카와띠 위뿔라냐니 | 10 | 붓다의가르침 | 맑은소리맑은나라 | 월폴라 라훌라(Walpola Rahula) |

# "붓다는 믿으라 하지 않았다"



고광 스님의 불교 도장깨기
고광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2만4000원

**'절집 숨은 고수'의 40년 탐구**
**귀의·윤회 등 새롭게 풀이**
**"불교는 인생 사용 설명서"**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당연하게도,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려는 깨달음의 길, 즉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키는 수행의 종교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은 어떨까?

"삼매에 빠져야 깨달을 수 있다." "괴로움은 운명이다." "해탈은 죽은 뒤에야 가능하다."

〈불교 도장 깨기〉는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경전에 근거해 하나씩 깨부수는 책이다.

먼저 저자의 이력에 눈길이 간다. 고광 스님은 고등학교 재학 중 법주사로 출가해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다. 대학원에 진학했으나 인생의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미국과 미얀마 등에서 수행했다. 하지만 17년간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며 그간의 수행이 '분노와 탐욕에 너무나 무기력하다'는 것을 절감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원전에서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다.

스님은 빨리어 니까야와 한역 〈아함경〉을 대조하며 번역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을 거쳐 붓다의 깨달음을 '믿음이 아닌 이해의 길'로 복원했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불광미디어 유튜브 채널에서 '어원으로 본 불교'를 주제로 강의했고, 이를 다듬어 엮어 낸 책이 〈불교 도장 깨기〉다.

"붓다는 믿으라 한 적이 없다. 확인하라, 검증하라, 스스로 알아차리라 했다."

고광 스님은 '불교'에서 추상적 믿음과 신비한 체험을 걷어 내고, 삶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설명서'로 읽어 낸다. 8정도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생활 방식이고, 12연기는 괴로움 소멸의 설계도이며, 4념처는 몸·느낌·마음·법을 관찰하는 현실적 도구로 풀이하는 식이다.



고광 스님. 사진 제공=불광출판사

책은 불자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귀의(歸依)'의 정확한 뜻을 새기는 것으로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돌아가 귀의한다'고 번역하는 이 단어를 스님은 '붓다에게 투항하고 의지한다, 순종하며 의지한다'로 해석했다.

'붓다'라는 단어에 대해선 "중생이 깨달아 알았을 때 그를 붓다라고 부르지, 붓다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 '일체가 법'이라는 분명한 깨달음이 생기면 그를 우리는 붓다라고 부르고, 그런 깨달음이 없으면 중생이라고 부를 뿐"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면서 '계를 지키고, 선정을 닦으며, 지혜를 얻는다'는 식의 막연한 설명 대신 "계율도 배워야 하고, 선정도 배워야 하고, 지혜도 배워야만 비로소 해탈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 8정도의 정견(正見)은 '보는 법이 달라져야 길이 열린다'는 말로, 정사유(正思惟)는 '생각이 바뀌면 삶도 바뀐다'는 표현으로, 정어(正語)는 '말이 곧 현실을 만든다'는 문장으로 정리함으로써 '붓다의 말'을 곧장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익숙한 불교 용어를 하나하나 다시 짚으며 "불교는 지금 나를 깨우는 새로운 언어"임을 역설하는 스님은 "붓다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배워서 귀의한다면 오래지 않아 붓다와 같은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 자비, 개인의 덕목에서 공동체의 윤리로



자비의 길을 찾아서
방영준 지음
인북스 / 1만8000원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자비'는 언제나 깨달음과 더불어 언급된다. 그러나 오늘날 자비는 종종 개인적 미덕의 차원에 그친다. 〈자비의 길을 찾아서〉는 이러한 인식의 한계를 넘어, 자비를 현대 사회의 '실천 윤리'로 새롭게 조명한 책이다.

저자는 자비를 연민이나 시혜적 사랑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초기불교의 사무량심(四無量心)과 무재칠시(無財七施)에서 출발하되, 연기(緣起)의 원리에 기초한 '상호윤리'의 개념으로 재정립한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나의 행복은 타인의 행복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자비를 '타자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관계의 방식'으로 전환한다.

저자는 이러한 상호윤리의 개념을 통해 자비가 지향하는 보편 윤리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자비는 국경과 종교를 넘어서는 인류 공동의 윤리이며, 나아가 현 시대가 직면한 생태 위기와 사회적 분열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근본 해법이라는 것이다.

이 책이 던지는 또 하나의 핵심 화두는 '깨달음과 자비의 관계'다. 전통적으로 깨달음은 수행의 궁극적 목표로, 자비는 그 결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저자는 이 도식을 뒤집는다. 자비의 실천이 곧 깨달음의 과정이며, 자비를 행하는 마음 그 자체가 깨달음의 씨앗이라는 것이다.

이는 불교 수행이 머리로 '깨닫는' 단계에서 멈춰서는 안 되며, 가슴으로 느끼고 손과 발로 옮겨야 비로소 완성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깨달음 없는 자비는 방향을 잃고, 자비 없는 깨달음은 생명을 잃는다"는 저자는 자비를 '깨달음을 현실 속에서 구현하는 실천의 길'로 제시한다.

'깨달음의 종교'에서 '자비의 종교'로. 그 전환의 중심에는 바로 '상호윤리'의 실천이 있고, 한국불교의 미래는 그 자비의 실천에 달려 있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저자는 성신여대 교수를 정년 퇴임한 후 '행복하고 바른 사회'를 화두로 연구·저술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여수령 기자

## 새로 나온 책

### '일체의 만남' 그린 자전적 서사



시절 인연
이갑숙 지음
퍼플
1만6000원

2017년 제2회 법계문학상 수상자인 이갑숙 작가의 산문집이다. 장편 소설 〈꺼지기 쉬운 빛〉과 〈눈부처〉를 통해 구도적 여행을 펼친 작가는 이번 산문집에서 가족 여행,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등 일상의 이야기를 펼쳐 놓는다. 전작들의 모티브가 된 일화도 확인할 수 있다. 저자는 "시절 인연이란 내 안의 우는 아이를 달래 주기 위해 어느 날 문득 다가온 부처님의 법이요, 살아가며 다가온 소소한 알아차림"이라고 말한다.

이갑숙 작가는 30여 년간 공직에 몸담았다. 퇴직 후 청계사 순례단원으로 8여 년 동안 국내외 선원과 사찰을 참배했고 뒤늦게 글쓰기를 시작했다.

### 빠알리어 원문으로 읽는 〈법구경〉



법구경
식카와띠 위뿔라냐니 옮김
담마디빠
7000원

사단법인 담마디빠선원이 펴낸 〈법구경〉 번역서다. 역자는 "〈법구경〉은 붓다께서 피할 수 없는 무상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나 확실한 행복을 향해 가라고 설법하신 게송 모음"이라며 "게송의 핵심이 잘 드러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번역했다"고 밝혔다. 빠알리어 원전을 싣고, 문장마다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빠알리어 단어의 특성을 반영해 미주로 여러 뜻을 보충 설명했다. 역자는 2004년 미얀마 빠디따라마에서 식카와띠로 출가해 17년간 공부했고 현재 대구 담마디빠선원을 운영하고 있다. 역서로 〈난다말라비왐사 큰스님 가르침〉, 〈행복을 찾아서〉, 〈참사람의 길〉이 있다.

### '필사 덕후'가 엮은 고요한 문장들



고요해지기 위해 씁니다
조미정 지음
해냄
2만원

온라인 필사 모임 '재밌어서 씁니다'와 유튜브, 팟캐스트에서 '미료의 독서노트'를 운영하는 조미정 작가가 엮은 필사책이다. 10년 전 호주로 이민 가면서 불안했던 마음을 필사로 달래기 시작했다는 그는, 지혜로운 문장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기쁨을 전하고자 7년 동안 쓴 독서노트에서 고요하고 다정한 문장을 골라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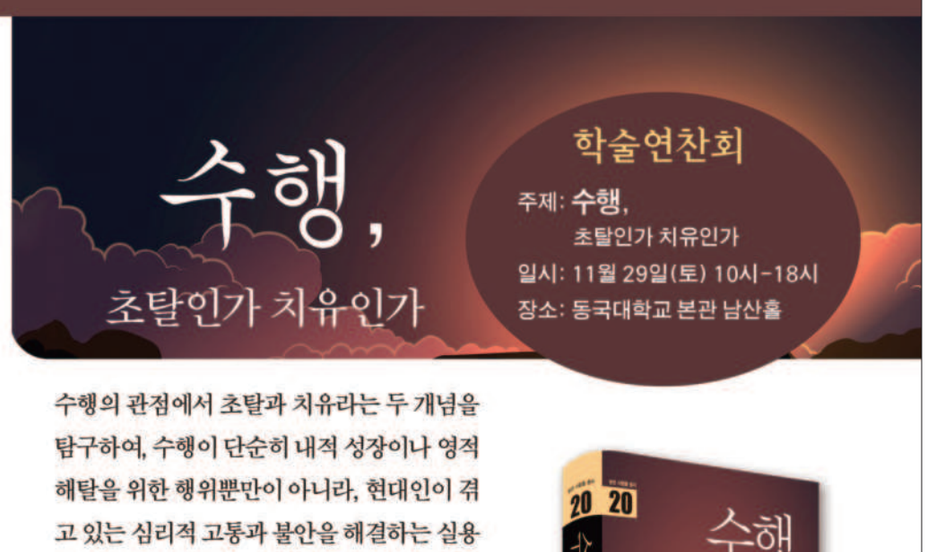
〈부처님의 생애〉의 한 대목과 법상 스님의 에세이 같이 마음챙김에 도움이 되는 글귀부터 박완서, 알베르 카뮈 등 동서양 문학 대가들의 문장을 필사할 수 있다. 여기에 직접 쓴 에세이 77편을 덧붙여 독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상을 함께 적어 볼 수 있도록 했다.


도서출판 운주사 • 밝은사람들 총서

불교와 사회의 상생적 소통을 위한 길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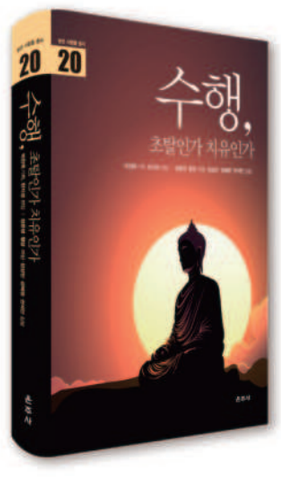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정준영 외/20,000원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권석만 외/25,000원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미산 외/23,000원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우희종 외/20,000원
행복, 채움으로 얻는가 비움으로 얻는가 미산 외/20,000원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정준영 외/22,000원
믿음,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오강남 외/20,000원
괴로움, 어디서 오는가 정준영 외/18,000원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정준영 외/23,000원
자비, 깨달음의 씨앗인가 열매인가 미산 외/20,000원
분노,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구병수 외/20,000원
소유, 행복의 터전인가 굴레인가 권석만 외/22,000원
생각, 키워야 하나 없애야 하나 김성구 외/22,000원
느낌, 축복인가 수렁인가 권석만 외/20,000원
번뇌, 끊어야 하나 보듬어야 하나 이필원 외/22,000원
의지, 자유로운가 속박되어 있는가 이필원 외/24,000원
본성, 개념인가 실재인가 이필원 외/25,000원
언어, 진실을 전달하는가 왜곡하는가 한상희 외/23,000원
지혜, 타고나는가 배워지는가 이필원 외/25,000원




수행의 관점에서 초탈과 치유라는 두 개념을 탐구하여, 수행이 단순히 내적 성장이나 영적 해탈을 위한 행위뿐만이 아니라, 현대인이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과 불안을 해결하는 실용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정준영·월암·미산·엄성민·성해영·권석만 집필
신국판양장/값 26,000원




Ch

YouTube 유튜브에서 "밝은사람들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지난 학술연찬회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 삶의 주도권을 찾기 위한 '알아차림'



어웨어니스
곽정은 지음
김영사 / 1만8000원

**방송인서 명상가로 10년 공부 바탕**
**행동·존재모드 오갈 방법 '명상'**
**알아차림에 이르는 수행법 제시**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곽정은 씨는 글 잘 쓰고 말 잘하는 사람이다. 방송과 강연을 통해 다른 이들의 연애·인생 고민에 시원시원하게 답을 주고, 성장하는 삶을 제안하는 '멘토'였기에 그의 상담심리대학원 진학은 자연스러워 보였다. 그런데 다음 행보인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박사과정 입학은 의외였다. 올해 초 나온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는 '초기불교 수행의 의도 역할 연구'. 최근에는 한양대 상담심리대학원 겸임교수이자 '메디테이션 랩' 대표로 심리학과 명상을 결합한 내면 성장 프로그램을 대중에 전하고 있다.

화려한 방송인에서 명상가로 변신한 그가 내놓은 〈어웨어니스〉는 지난 10여 년간의 공부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잃어버린 주도권'을 되찾을 방법을 제시한다. 바로 '어웨어니스(awareness)', 곧 알아차림이다.

저자가 던지는 첫 질문은 이렇다. 시끄러운 알람 소리에 마지못해 일어나는 사람과 매일 비슷한 시간에 눈을 떠 정해진 루틴대로 생활하는 사람. 둘 중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답은 '둘 다 대안이 될 수 없다'이다. 무언가 열심히 해내려 애쓰는 것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방황하는 것은 정반대의 행동처럼 보이지만, 둘 다 행위를 기준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가치를 매기는 '행동모드'라는 점에서는 같기 때문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대안은 '존재모드'다.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담히 지켜보는 삶, 순간순간 내면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안으로부터 고요함을 기르는 데 집중하는 삶이다. 그리고 존재모드와 행동모드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방법이 '명상'이라고 말한다. 다양한 명상법 중에서도 저자가 주목한 것은 호흡에 집중하는 사마타 수행이다.

초기불교 경전인 〈청정도론〉이 전하는 사마타 수행법은 간단하다. "편안하지만 바른 자세로 앉아 호흡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보라." 단순해 보이지만 직접 들숨과 날숨에 집중해 보면 오히려 호흡이 부자연스러워져 두통을 겪기도 하고, 잡념에 사로잡힌 채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저자 역시 숱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우연한 계기로 명상을 접하고 불교명상 전공으로 박사 과정에 입학한 후 사마타 수행을 시작했다. 하지만 편안한 음악과 부드러운 목소리의 가이드 없이, 그 어디에도 기댈 데 없이 온전히 나 자신만 믿고 가야 하는 사마타 수행은 좌절감을 안겼다. 조바심과 오기 사이에서 끊임없이 방황한 저자는 "몸의 괴로움을 버티고 끌어안으며, 마음의 혼란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내려놓으며, 그 길에서 처음부터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던 내면의 고요함을 만났다"고 말한다. 그렇게 사마타 수행은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이 됐다.



방송인에서 명상가로 변신한 곽정은 한양대 상담심리대학원 겸임교수는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방법으로 알아차림을 제시한다. 사진 제공=김영사

저자는 자신의 경험과 초기경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독자들을 수행의 길로 안내한다. 이를 통해 외부 자극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고요함의 태도를 품을 때, 우리는 '갓생'의 신화를 떨쳐 내고 몸과 마음의 연결을 회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책의 각 장마다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어웨어니스 저널'을 실었다. 오늘 하루 경험한 다섯 가지 마음의 장애를 기록하거나, 크고 작은 후회를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해 주고 싶은지를 적는 식이다. 하루 5분, 나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통해 스스로 삶을 변화시키는 주체임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다.

저자가 안내하는 사타마 수행은 알아차림에 이르는 여러 길 중 하나일 뿐이다. 사마타 수행이든 위빠사나 수행이든 자애 수행이든, 지금 이 순간 나 자신과 연결되고 마음의 소리에 알아차림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지혜의 문에 들어서는 열쇠가 될 것이다.

# 모자가 함께 걸은 시코쿠 순례길



엄마는시코쿠
원대한 지음
황금시간
1만9000원

**진언종 창시 코보 대사 발자취**
**88개 사찰 따라 1200km 순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800km를 함께 걸었던 엄마와 아들이 그 여운을 잊지 못해 이번엔 불교 순례길을 찾아 일본 시코쿠로 향했다.

일본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인 시코쿠의 '시코쿠 헨로미치'는 1200년 전 진언종 창시자인 코보 대사(弘法大師, 774~835)의 발자취를 따라 만들어진 88개의 사찰을 찾는 불교 순례길이다. 88개 절을 따라 제주도의 열 배 정도의 섬을 한 바퀴 도는 1200km에 이르는 여정이다.

엄마와 아들은 겨울부터 가을까지 네 계절에 걸쳐 '시코쿠 헨로미치'를 걸으며 마주한 풍경과 사람, 생각들을 기록했다.

이들이 순례의 첫발을 내디딘 곳은 겨울의 도쿠시마. 1번 절 료젠지(霊山寺)에서 순례를 위한 흰색 조끼와 삿갓, 88개 절에서 도장과 묵서를 받을 납경장과 명함 역할을 할 납찰을 사는 것으로 순례가 시작됐다. 이후 엄마와 아들은 겨울날 도쿠시마를, 봄날 고치를, 여름날 에히메를, 가을날 카가와를 걸으며 다시 첫 순례지로 돌아왔다.

이들은 "시코쿠 순례길이 선물해 준 건 소중한 추억과 둥근 마음"이라며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지 못하고 계속 자기만의 트랙 위를 돌고 돌지라도 둥근 마음으로 한번 살아 보라는 가르침"이라고 회고한다.

책 앞머리에는 순례길의 기원, 순례법과 옷차림 등을 담고 마지막 장에는 지도와 각 사찰의 특징을 기록한 '엄마의 순례 노트'를 실었다.

여수령 기자

# "전통의례를 일상 수행으로"



불학의범
세화불학원의궤 편찬위원회 지음
정우북스
2만원



바웃다 일과
세화불학원의궤 편찬위원회 지음
정우북스
1만원



세화불학원의궤편찬위원회 의장 법안 스님(조계종 어산종장)이 11월 10일 열린 출판간담회에서 〈불학의범〉과 〈바웃다 일과〉 출간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세화불학원의궤편찬위원회(의장 법안 스님, 조계종 어산종장)가 의례를 일상 신행으로 이끌기 위한 안내서 〈불학의범〉과 〈바웃다 일과〉를 출간했다.

11월 10일 서울 세화불학원 사무실에서 열린 출판간담회에서 법안 스님은 "오늘날 행해지는 의례는 그 내용과 형식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길어 실제 불자들이 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불학의범〉은 전통의례의 정신을 계승하되 명료하고 실천적으로 의례의 규범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학의범〉 의문·행위 일치…의례 간략화**
**〈바웃다 일과〉 아침저녁 염송·명상법 제안**

일례로 야외에서 설행되는 의례의 경우 괘불 설치나 공양 위패 안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법당에 이미 불보살이 상주하는데도 봉청·헌좌 같은 불필요한 의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불학의범〉은 '의문(儀文)과 행위의 일치'를 기치로, 〈석문의범〉의 구성체계를 바탕으로 하되 전문의례를 제외하고 일상의례를 중심으로 편집했다.

법안 스님은 "의례는 전문가들만의 것이 아니라, 불자 누구라도 그 취지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불학의범〉의 마지막에 '참선 수행'으로 둔 것도 예경 교화나 염불과 간경으로 시작한 불교 수행의 마지막 관문은 참선 수행이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바웃다 일과〉는 경전 염송의 일과를 제시한 책이다. 법안 스님은 "붓다께서 설하신 경전 염송은 붓다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중요한 삶의 지표임에도, 오늘날 일상에서 경전 염송의 전통이 약해지고 있다"며 "이 책에서는 아침저녁 2차례, 누구나 쉽게 염송할 수 있도록 편제했다"고 밝혔다. 책 제목인 '바웃다'는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을 뜻한다.

〈바웃다 일과〉는 아침 일과로 염송의, 선택 경전 염송, 예불발원문, 회향의, 축원 명상을 제시한다. 저녁 일과는 염송의, 선택 경전 염송, 예불참회문, 회향의, 축원 명상으로 구성됐다. 아침저녁으로 염송과 명상을 함으로써 수행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세화불학원은 불교 의례 연구와 전승을 위해 '의례 해설사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지도자 배출에 나설 계획이다. 여수령 기자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자신을 다스려라!'

경쟁이 이념이 되고
욕망이 미덕이 된 시대,
붓다와 공자가 남긴 지혜의 말씀은
나를 지키는 단단한 무기가 된다!

1부 삶이 흔들릴 때 나를 붙잡는 지혜
2부 누구에게나 한결같은 인생의 법칙
3부 혼자일 수 없는 우리를 위한 철학

한국인의 DNA에 흐르는 사유와 지혜의 뿌리



붓다와 공자가 마주한 인생독법 人生讀法
임종욱 지음
312쪽 | 19,000원

참회(懺悔) — 자성(自省)
항상 잘못을 경계하며 스스로 반성하고 참회하라.
이것이 허물과 불화 없이 즐거운 인생을 사는 비결이다.

업(業) — 실천[行]
한 번 착한 일을 했다고 복이 오고, 한 번 나쁜 짓을 했다고 벌이 오지는 않는다. 쌓이고 쌓여서 결과로 나타난다.

중도(中道) — 중용(中庸)
지나친 것이나 모자란 것이나 모두 치우친 것이다.
균형 잡힌 태도야말로 행복의 지름길이다.

방편(方便) — 권도(權道)
언제 어디서나 적용될 삶의 모범답안은 없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원만한 지혜이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 교구자치시대, 24교구본사를 가다

④ 조계종 제14교구본사 범어사

조계종은 24곳의 교구본사를 통해 교구 자치를 실현 중이다. 한국불교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전법과 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교구본사 주지 스님을 만나 각 교구의 활약상과 미래를 조명한다. 〈편집자 주〉



정오 스님은… 1989년 8월 벽파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0년 1월 사미계를, 1993년 10월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제방선원에서 13안거를 성만하며 수행 정진했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범어사 원주 소임을 맡았다. 제15·16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고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기장 장안사 주지로서 도량을 이끌었다. 현재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이자 부산불교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사단법인 부산박물관협의회 초대 회장(이사장), 사회복지법인 범어 대표이사, 학교법인 원효학원 이사장(해동중학교)과 금정학원 이사장(금정중학교)으로 재직 중이다.

# '국립공원 시대' 범어사, 감인대 정신으로 소통

〈堪忍待〉

대담=한명우 대표 · 정리=하성미 기자

조계종 제14교구본사 범어사가 우리나라 첫 '도심형 국립공원' 지정으로 새로운 전환을 맞았다. 선찰대본산으로서 수행과 전법의 도량인 범어사는 이제 국민이 함께하는 열린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금정산의 생태 보전과 더불어 시민이 찾는 힐링 공간으로의 역할 강화에 나선 것. 특히 올해는 사찰음식체험관 개관을 비롯해 템플레킹, 가족문화행사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시민들과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 시대적 요구에 적극 호응한 결과다.

범어사가 추진하고 있는 변화의 기조와 방향을 듣기 위해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이사가 주지 정오 스님을 만났다. 대담은 11월 4일 범어사 성보박물관에서 진행됐다.

**Q 취임 2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감과 그간의 주요 성과를 들려 주십시오.**

범어사 주지를 맡은 지도 벌써 2년이 되어 갑니다. 이 기간은 사찰의 전통을 이어 가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직면하고 실현한 시간이었습니다. 방장 스님을 비롯한 소임자 스님들이 함께 정진하고, 신도와 신행단체, 봉사자, 종무원들이 외호해 준 덕분에 오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취임 후 어린이·청년·시민이 사찰에서 불교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배우는 참여형 프로그램의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 왔습니다. 말사와의 협력 체계와 성보 및 문화유산 관리 체계를 정비한 부분도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범어사가 국민 모두가 행복을 느끼고 마음을 내려놓고 쉬어 갈 수 있는 '선찰대본산'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Q 범어사는 도심과 가까워 부산 시민들이 자주 찾는 사찰이고, 최근에는 가족 단위 프로그램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일상이 바쁘고 힘들기 마련인데, 범어사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마음의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찰대본산이라는 말은 본래 '내 마음을 찾는다'는 뜻이고, 범어사는 잃었던 자기를 찾는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지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심신 치유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천혜의 환경을 활용해 시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가꾸고자 합니다. 현재 일주문에서 전각과 숲길, 계곡이 어우러지는 산책로를 정비하고 있으며, 부처님오신날 즈음에는 상사화와 맥문동을 심어 사계절 아름다운 길로 만들 계획입니다.

**Q 사찰음식교육관 개관의 의미와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사찰음식교육관 개관으로 사찰음식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새로운 수행 도량을 열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찰음식은 몸을 지탱하는 음식이자 동시에 마음을 닦는 수행입니다. 방문객들이 이 공간을 통해 생명존중과 상생의 가르침을 직접 체험하길 바랍니다.

또한 범어사는 자체 사찰음식 프로그램 브랜드 '비오마인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초심자부터 전문 인력까지 단계별 교육과정을 운영해 사찰음식의 철학과 조리법을 올바르게 전승하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Q 범어사는 역사적으로 호국과 교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날 '호국사찰'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계승하고자 하십니까?**

임진왜란 당시 범어사도 국청사에서 승병이 훈련받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 나섰습니다. 이후 일제강점기에 범어사 만세운동이 1919년 명정학교에서 시작하는 등 독립운동을 물밑에서 지원했습니다.

한국전쟁 때도 범어사에 야전병원과 유해안치소가 설치되는 등 사실상 '현충원' 역할을 했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2년 전 국가 현충시설로 지정됐습니다.

이제는 후학들이 이 정신을 이어야 합니다.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인성교육과 애국심 함양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있으며, 현충시설로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고 교육하는 공간 조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종교도 있다'는 말처럼, 호국정신을 현재형으로 실천하는 일은 중요한 숙제입니다.

**Q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이라는 큰 경사를 맞았습니다.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자연과 공존하는 사찰'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임기 절반 시점에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300만 부산 시민의 20년 숙원이 이뤄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과 시대요구 응답하는 범어사 도량**
**도심형 국립공원과 수행환경 개선 추진**
**사찰음식 수행가치 생활 체험형 도량화**
**호국정신 청소년 인성 교육과 연계해야**
**금정산 자연보전은 생명 존중 수행연장**
**소통과 공감기반 교구본사 본질적 역할**

우리나라 산림은 전 국토의 약 63%이며, 그 중 약 1%인 5782ha가 사찰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부터 사찰에는 '산감'이라는 소임이 있어 산림을 관리해 왔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찰 주변 산림은 그러한 지속적 관리의 결과입니다.

범어사가 없는 금정산은 상상할 수 없듯 금정산과 범어사는 한 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멸종 위기종을 포함한 1700여 종 야생생물 하나하나도 우리와 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금정산의 자연유산과 범어사의 문화유산이 어우러지고, 그 속에서 시민들이 행복을 느끼는 금정산국립공원이 될 수 있도록 범어사 사부대중도 노력하겠습니다.

**Q 영남불교의 중심으로서 교구본사의 본질적인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구본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통과 공감입니다. 소통이 안 되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쌓이면 공동체는 분리됩니다. 본말사가 소통할 수 있는 힘은 곧 인내심입니다.

범어사에는 '감인대(堪忍待)'라는 표현이 전해 옵니다. '견디고 참고 기다린다'는 뜻으로, 동산 스님께서 강조하신 인욕(忍辱) 수행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참고 견디며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 교구본사의 역할은 이 가르침이 실제 수행과 신행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실천 방안을 찾고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Q 말사와의 소통 · 협력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구본사는 말사가 안정적으로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문화·교육 전반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범어사는 종무행정에 관한 도움을 요청하는 말사들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문화유산과 성보관리에 전문성을 더해, 각 말사가 지닌 유산이 올바르게 보존 계승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범어사는 말사와 함께 지역 불교의 전통과 자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존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Q 수행 · 문화 · 교육을 아우르는 도량이 되기 위해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범어사는 불교의 전통을 지키면서 시대와 호흡하는 변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천년 고찰이 자리한 자연환경을 지켜 내고 '생명과 수행이 함께하는 도량'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찰음식체험관 운영과 템플레킹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불교문화를 나누고, 어린이합창단 창단, 외국인 템플스테이, 성보박물관 운영 등으로 세대와 국경을 넘어선 열린 불교문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수행의 뿌리 위에 미래불교의 씨앗을 키우는 도량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청년세대 포교는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어린이, 청소년이 불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제가 소임을 맡고 나서 2024년 12월에 어린이합창단을 새롭게 모집해 현재 50명 규모인데 108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성보박물관도 다채로운 어린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족이 함께 참여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청년포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범어사 행사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하고 봉사활동 참여 기회도 열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부산과학기술대학교 등과 협업해 청년세대와 불교문화, 디자인, 인문적 가치를 융합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이 곧 불교의 내일'이라는 생각으로 젊은 세대가 주체적으로 불교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이 범어사의 포교 방향입니다.

**Q 스님께서 그리는 '범어사의 미래상'은 무엇입니까?**

불교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전하는 방식은 시대에 맞게 새로워져야 합니다. 범어사가 수행·자비·생명존중의 정신을 기반으로, 교육·환경·문화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불교문화 허브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불자와 시민이 함께 수행하고 배우며, 모든 존재가 행복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열고자 합니다.

**Q 마지막으로 불자와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인대' 정신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실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낙엽이 썩어 거름이 되면 새싹을 틔우는 자양분이 되듯, 실패도 그 자체가 인연이 되어 때가 되면 반드시 작용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천천히, 멀리 보아야 합니다. 저는 불자와 시민들이 이 마음을 꼭 새기셨으면 합니다.



정오 스님과 한명우 현대불교 대표이사가 대담 후 '동산 스님 열반 60주년 특별전' 전시관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범어사는 지난해 부산시, 금정산국립공원시민추진본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이끌었다.




사찰음식에 담긴 치유와 생명존중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 올해 6월 개관한 범어사 사찰음식체험관과 연구소.



범어사는 시민들이 언제든 찾아와 몸과 마음을 쉬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은 올해 9월 열린 가족문화축제.



광복 80주년을 맞는 올해, 호국사찰 범어사는 '독립문화제 사진전'을 열고 범어사의 근현대사와 호국정신을 되새겼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Weekly 선명상 43 마음이 편안해야



▶한줄 요약
탐·진·치 삼독심에 끄달리지 않는 삶이 진정 기도요 참선일 지니, 이러한 마음이 오래 지속되어 습으로 자리 잡게 되면 아라한의 업이 되고, 보살의 업이 되며, 궁극적으로는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 현재 불행 열매는 다음 생의 행복 씨앗

**[오늘의 명상]**
**씨앗의 전생은 열매,**
**열매의 전생은 씨앗,**
**나의 열매는 지금,**
**나의 씨앗도 지금.**



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한글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사람은 마음 편한 것이 최고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원하는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원하는 대로 돈이 벌려야 하고, 원하는 대로 자식이 잘 되어야 하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마음이 편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것이 잘 되지 않는데 마음이 편할 리는 만무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또 원하는 것은 고사하고, 원치 않는 것이 일어나서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한편으로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편치 않고, 또 한편으로는 원치 않는 일이 생겨 속상한 경우가 오히려 더 많기도 합니다.

설사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얼마 가지 않아 더 원하는 것이 생기고 말기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편안하기란 불가능에 가깝고, 더군다나 원하지 않은 일이 생길 때는 편치 않은 마음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이뤄지고 이뤄지지 않고의 실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항상 강조하는 말이지만 마음은 두 가지 상반되는 감정이 서로 교차하며 나타나기 때문에 행복한 마음이 생길 때가 되면 행복한 일이 나타나게 되고, 불행한 감정이 생길 때가 되면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나타나는 일에 일희일비하게 되고 반복되는 감정에 의한 윤회의 고리를 끊지 못합니다.

사업이 잘 되어 돈을 많이 벌거나 자식이 잘 되어 좋은 학교, 좋은 직업을 가져서 행복한 마음이 유지된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겠으나, 행복한 마음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에 버금가는 불행한 마음이 들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또 그에 상응한 불행한 일이 생기고야 마는 것이 감정의 업(業)인 것이니, 이를 간과해서는 절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불행의 씨앗은 전생의 행복의 열매이고, 지금 행복의 열매는 전생의 불행의 씨앗인 것이며 지금 행복의 씨앗은 다음 불행의 씨앗이 되고, 지금 불행의 열매는 다음 생의 행복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일어나는 모든 일에 행복과 불행의 감정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장자가 부처님께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감정을 내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화를 내지 않으시냐고 물으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욕은 장자가 다시 가지고 갈 것이 아니겠느냐고 하시며 편안한 마음으로 태연자약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습은 스스로 가장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가 있어야 서로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햇볕이 있으니 만물을 이롭게 하나, 또 한편으로는 햇볕을 가리는 구름이 있어야 만물에게 비를 뿌려 생동하게 만들듯이 햇볕과 구름은 다 같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선의 모습도 악의 모습도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다만, 이런저런 모습은 모두가 인연의 질서에 의해 한치 오차 없이 오고 가는데 내가 굳이 어떤 하나만을 선택하려 하니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과의 질서를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놓고 보는 마음을 길러야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게 되는데 오랜 습에 절은 몸과 마음이 잘 따라 주지 않으니,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렵더라도 항상 일어나는 모습에 대하여 감정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늘 인과의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하고 깨어 있는 마음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탐을 내는구나, 내가 지금 화를 내는구나, 내가 지금 인과의 모습을 잊고 있구나' 하고 탐·진·치 삼독심에 끄달리지 않는 삶이 진정 기도요 참선일 지니, 이러한 마음이 오래 지속되어 습으로 자리 잡게 되면 아라한의 업이 되고, 보살의 업이 되며, 궁극적으로는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 우리 마음은 상반되는 감정이
> 항시 교차하며 나타나고 있어
> 편안해지면 행복 불행 떠나야
> 삼독심 끊은 삶이 기도 · 참선

**[오늘의 명상]**
**세상이 움직인다고?**
**마음이 움직인다네.**
**마음이 움직인다고?**
**숙업(宿業,습관이 쌓임)이 움직인다네.**

몸을 '업덩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조상들이 가지고 행했던 오욕(五慾-식욕·수면욕·재산욕·성욕·명예욕)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그 습관 그대로 행하는 것이 몸입니다.

눈으로 보고 분별하고, 귀로 듣고 분별하고, 코로 냄새 맡고 분별하고, 혀로 맛보며 분별하고, 몸으로 느끼며 분별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분별합니다.

육근(六根-눈·귀·코·혀·몸·생각)의 몸으로 육경(六境-보이고·들리고·냄새나고·맛보고·부딪치고·기억하고)을 마주치고 육식(六識-보는 분별·듣는 분별·냄새 분별·맛 분별·느낌 분별·생각 분별)으로 분별합니다.

분별은 이것과 저것을 구분하여 좋고 나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습관을 그대로 물려받았으니 딱히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있고 없고, 아름답고 추하고, 즐겁고 괴롭고, 좋고 나쁘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루고 실패하고, 웃고 울고, 건강하고 병들고 등등….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것이 그저 왔다 갔다 반복될 뿐, 그러다 태어났으니 죽어야 하고, 생겨났으니 사라져야 하는 것 입니다.

귀한 것은 귀한 것 가운데 더 귀한 것을 분별하게 되고 추한 것은 추한 것 가운데 덜 추한 것을 분별하게 되고 정의는 정의로운 가운데 더 정의로운 것을 찾게 되고 불의는 불의한 가운데 더 불의한 것을 분별하게 되니 영원히 고정불변한 것은 없습니다.

높은 것은 더 높은 것에 의해 낮은 것이 되고, 큰 것은 더 큰 것에 의해 작은 것이 되니,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이 더 나쁘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여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는 것입니다.

100을 가졌다가 90개를 잃었다면 10개 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아직 10개나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은 천지차이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속상함이 달라지듯이, 죽어라고 욕심을 내어 가졌다 한들 언젠가는 가진 것을 잃어야 하는 인과(因果)가 생길 때 그 속상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처음부터 가진 것은 반드시 잃게 된다는 것을 알아 마음을 뺏기지 않은 사람은 그 속상함의 마음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 밖에는 없습니다. 조금 더 잘났네, 영웅이네, 좋은 사람이네, 훌륭한 사람이네 등등의 분류는 도토리 키 재기에 불과할 뿐, 근본적으로 해탈한 사람 이외에는 고락(苦樂)의 업을 면치 못하니, 윤회고(輪廻苦)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매사에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성공하는 것, 더 아는 것, 더 가지는 것, 더 건강한 것, 더 사는 것을 탐하여 생멸(生滅)과 생사(生死) 고락(苦樂)을 거듭하여 스스로 고통과 괴로움을 자초하는 사람과 세상의 모든 것은 인과가 반복되는 생사고락이라는 것을 여실히 잘 알아서 매사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여여한 마음으로 해탈하여 편안하게 지내는 사람의 부류입니다.

대다수가 전자의 삶을 택하여 오탁악세(五濁惡世)를 스스로 만들어 사는가 하면, 후자의 경우는 극히 드물기는 하나 아라한과 보살, 부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과의 도리를 잘 알아 후자와 같은 삶을 살려고 해도 수억 겁의 전생으로부터 이어져 온 몸이라는 업덩이 때문에 육근과 육경, 육식의 분별하는 업(業)을 없애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일분일초라도 깨어 있는 마음으로 오욕의 습을 관하고 참회하는 시간도 부족한데 이러한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몸과 마음의 업습(業習)에 끄달려서 우리는 무지몽매하게 살아갑니다. 이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것이니, 하루빨리 오욕의 습을 볼 줄 아는 지혜를 갖추어야 합니다.

〈금강경〉에 '일체유의법(一切有爲法), 여몽환포영(如夢幻泡影), 여로역여전(如露亦如電), 응작여시관(應作如是觀)'이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모습은 꿈이나 환영, 물거품이나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또한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니라'라는 뜻입니다.

현실에 맞네 안 맞네 하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고업(苦業)이 다하지 않은 어리석은 중생의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얕은 생각으로 스스로를 늪에 빠뜨려 허우적거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
성지순례 6박8일
▶일 정 : 인천-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리-담불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누와라엘리야-아훙갈라-콜롬보-인천
▶동참금 : 문의

부처님의 고행과 깨달음, 열반에 이르기까지
인도/네팔 불교
성지순례 8박10일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쿠쉬나가르-룸비니-쉬라바스티-아그라-델리-인천
▶동참금 : 문의

미리 준비하는 26년 성지순례+관광

화엄의 세계가 담긴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대탑+지상낙원
발리 4박6일

황금빛 불탑의 나라, 미얀마
양곤 3박4일
*상시 출발 가능
양곤 4박5일
*상시 출발 가능
양곤/바간/
만달레이/헤호
6박7일 *문의

꽃피는 봄 일본
오사카/나라/
교토 4박5일
다카마츠/
시코쿠 4박5일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

이일야의 詩, 불교를 만나다 21 잃는다는 것 : 오세영의 '10월'



▶한줄 요약
시인은 무언가 잃음은 성숙해 가는 것이고 이별은 또 한 번의 만남일 뿐이라고 노래하며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 잃어 가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낙과의 계절
〈落果〉

모든 것이 떨어지고 흩어지는 낙과(落果)의 계절이다. 밤과 감도 떨어지고 까치밥만 홀로 남아 이별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기후 변화 때문인지 요즘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 말해야 한다고 한다. 그만큼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 겨울이 길어지고 있다. 유난히 덥고 길었던 여름이 끝나고 가을을 기다렸는데, 어느새 찬바람이 살을 파고든다. 그래도 아직은 가을이라 우기고 싶다. 온 산하를 붉게 물들인 단풍도 아직 보내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 유행할 때만 해도, 10월 31일이 돌아오면 레코드 가게와 라디오에서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었다. 예전만은 못하지만 그날이 오면 아직도 이 노래를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가수 또한 이날만큼은 공연을 다니느라 바쁘게 하루를 보낸다고 한다. 아직도 기억하고 찾는 이들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10월은 '잊혀진 계절'로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다.

낙과의 계절에 가을 시 한 편을 만났다. 바로 오세영 시인의 '10월'이다. 잃는다는 것, 이별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성찰할 수 있는 작품이다. 시인은 '낙과(落果)의 투신'을 슬퍼하지 말라고 노래한다. 마지막 이별은 이별이 아니라 또 한 번의 만남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서 잃어 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과연 시인에게 잃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오세영 시인은 1968년 박목월 시인에 의해 〈현대문학〉의 추천을 받아 등단하게 된다. 시인이자 대학교수로 활동해서인지 오세영은 시집뿐만 아니라 학술서도 많은 편이다. 대표적인 시집으로 〈사랑의 저쪽〉을 비롯해 〈바람의 그림자〉, 〈마른하늘에서 치는 박수 소리〉 등이 있다. 특히 2016년에는 영어로 번역된 시집 〈밤하늘의 바둑판〉이 미국의 문학 비평지인 〈시카고 리뷰 오브 북스(Chicago Review of Books)〉에 의해 최고의 시집(Best Poetry Books) 12권에 선정되기도 했다.

수상 경력도 화려하다. 만해문학상을 비롯해 목월문학상, 정지용문학상, 소월시문학상, 고산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2008년에는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돼 국가로부터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오세영은 한국시인협회장을 역임했으며 예술원 회원이기도 하다.

올봄에는 지난 60여 년 동안 쓴 작품 가운데 400여 편을 모아 〈시사백 사무사(詩四百 思無邪)〉라는 시집을 출간했다. 공자가 〈시경(詩經)〉 300여 편을 압축해 '생각에 사악함이 없다[思無邪]'라고 했던 말에서 따온 제목이라 한다. 그만큼 사적인 욕심이나 거짓 없이 시를 쓰고 바르게 살아왔다는 자부심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시인의 말처럼 "그 같은 마음의 자세를 견지하려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한 시인의 애잔한 시작 생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오늘의 시 '10월'은 '한국대표 명시선 100' 가운데 오세영의 〈천년의 잠〉에 실린 작품이다. 책에는 제목이 '1월'부터 '12월'까지 돼 있는 시들도 함께 담겨 있다. 오세영의 '10월'을 검색해 보니, AI 브리핑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은 화자가 자연의 변화를 바라보며, 이별을 성숙과 만남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깨달음을 담은 작품입니다."

AI의 해석에 공감이 가면서도 왠지 모를 씁쓸함이 느껴진다. 앞으로 인간의 역할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 싶어서 그렇다. 또한 "가을의 쓸쓸함 속에서 인생의 이별과 성숙,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라는 부연 설명까지 해 주고 있다. 인공지능의 해석이 얼마나 마음에 다가오는지 시를 감상해 보기로 하자.

**"무언가 잃어 간다는 것은 / 하나씩 성숙해 간다는 것이다. / 지금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때, / 돌아보면 문득 / 나 홀로 남아 있다. / 그리움에 목마르던 봄날 저녁 / 분분히 지던 꽃잎은 얼마나 슬펐던가. / 욕정으로 타오르던 여름 한낮 / 화상 입은 잎새들은 또 얼마나 아팠던가. /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때, / 이 지상에는 / 외로운 목숨 하나 걸려 있을 뿐이다. / 낙과落果여, / 네 마지막의 투신을 슬퍼하지 마라. / 마지막의 이별이란 이미 이별이 아닌 것 / 빛과 향이 어울린 또 한 번의 만남인 것을, / 우리는 / 하나의 아름다운 이별을 갖기 위해서 / 오늘도 / 잃어 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별 새롭게 성찰할 수 있는 시**
**무언가 잃음은 얻음, 자연 이치**
**멀어짐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 잃음은 또 다른 얻음이다

인공지능보다 얼마나 해석을 잘할지 모르겠다. 어찌 보면 이 글도 AI 브리핑과 비교 대상이 될 것 같다. 바야흐로 인간이 AI와 경쟁하는 시대다. 어차피 인정할 거라면 빨리 인정하는 것이 좋다. 결국 판단은 독자의 몫이다.

이 시를 읽으면서 문득 영화 '화엄경'에서 주인공 선재의 대사가 생각났다. 선재는 진리를 찾기 위해 배낭 하나 짊어지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다. 때로는 현자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치고 교도소에 들어가기도 한다. 진리를 찾지 못하고 실의에 빠진 주인공에게 어느 날 새로운 깨달음이 다가온다.

"세상은 자신을 잃어 가면서 세상이 된데요. 하늘은 비를 잃어 허공이 되고요, 강은 강을 잃어 바다가 되죠. 나무는 꽃을 잃어 열매가 되고요, 나는 마음을 잃어 허공이 되었어요. 마음을 잃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탐내고 원망하고 다투는 어리석은 고통의 바다를 헤어나지 못해요."

선재의 말처럼 하늘이 비를 잃지 않으면 허공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강이 강을 잃지 않으면 바다가 되지 않는다.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자신을 잃지 않으면 열매가 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보면 무언가를 잃는다는 것은 다른 무언가를 얻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강을 잃는 것은 곧 바다를 얻는 것이며, 꽃을 잃는 것은 열매를 얻는 것이다. 계절의 변화 또한 마찬가지다. 봄을 잃었다는 것은 곧 여름을 얻었다는 의미다. 여름을 잃어 가을을 얻으며 단풍을 잃어 하얀 눈을 얻는 것이다. 자연의 이치가 그렇다.

우리 삶도 이와 다르지 않다. 오랜만에 친구의 아들을 만나 "너 언제 이렇게 많이 컸니? 이제 성인이 다 됐구나"라고 말하는 경우를 흔히 본다. 이때 성인은 어린이를 잃어서 된 것이다. 나이 드신 분들이 가끔 청춘을 잃었다고 한탄하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는 곧 백발을 얻은 것이 된다. 근육을 잃음은 주름을 얻은 것과 같다. 어둠과 밝음,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 등이 모두 그렇다.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를 잃으면 슬퍼한다. 잃었다는 사실에 방점을 찍고 세상을 보는 것이다. 시인의 지적처럼 '그리움에 목마르던 봄날 저녁 분분히 지던 꽃잎'은 무척 슬펐다. '욕정으로 타오르던 여름 한낮 화상 입은 잎새들' 또한 많이 아팠다. 아프고도 슬픈 삶의 과정이다. 이때 시인은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보라고 말한다. 무언가를 잃었다는 것은 성숙해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 어린아이를 잃은 것은 어린이가 성숙해져서 성인이 된 것과 같다. 잃음이 아니라 얻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잃었다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새로움을 얻었다고 기뻐할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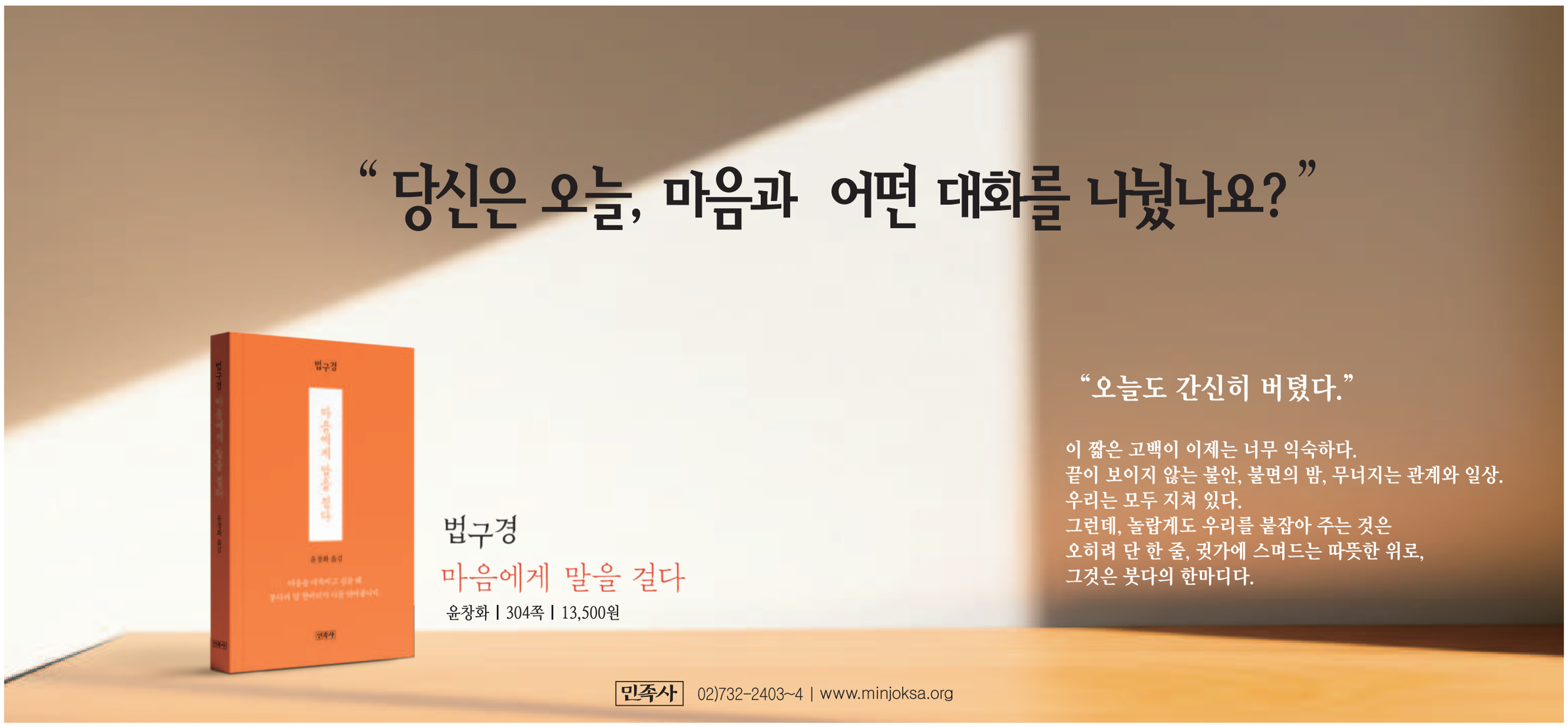
이별 또한 마찬가지다. 시인은 마지막의 이별이란 빛과 향이 어울린 또 다른 만남이라고 노래한다. 그러니 이별했다고 슬퍼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원시(遠視)'라는 시에서 오세영은 이렇게 말한다. "사랑하는 사람아, / 이별을 서러워하지 마라. / 내 나이의 이별이란 / 헤어지는 일이 아니라 단지 / 멀어지는 일일 뿐이다."

이별이란 헤어짐이 아니라 멀어지는 일이라는 시인의 통찰이 새롭게 다가온다. 이별을 멀어지는 일로 받아들이려면 연습이 필요하다고 시인은 말한다.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서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찾아온 이별에 어쩔 줄 모르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한다. 특히 이별이 죽음일 경우는 더욱 그렇다.

장자는 죽음을 가리켜 '자연으로부터 받은 옷을 벗는 일'이라고 하였다. 삶이라는 옷을 입고 열심히 살았으니 죽음이라는 잠자리에 들 때는 옷을 벗는 것이 자연스럽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현실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평소 '이별 연습'이 필요한지 모를 일이다.

얼마 전 암 투병으로 힘들어하던 벗이 10월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세상과 작별했다. 한 친구는 "사느라 고생했다"란 이별의 말을 남겼다. 이별은 곧 새로운 만남이라 스스로 위로해 보지만, 중생으로서 슬픔을 가눌 수는 없었다. 벗의 명복을 빌면서 법당에 인등을 밝혔다. 친구가 아플 때는 이름만 있었는데, 그 옆에 쓰인 '영가'란 글씨를 보자 애써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이별은 역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도 믿어 본다. 이곳에서의 이별은 '또 다른 빛과 향이 어울린' 저곳에서의 만남이라고. 이 또한 연습이 필요한 일이다.

〈전북불교대학 학장〉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불자정보

1555호 | 15 | 전면광고

한 부처님이 출현하시면 만 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 법당이 이룩되면 곧
극락세계가 사바세계 안에 이루어진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무량수경》에서

## 광 진 불 사

- 위치 : 경기도
- 대지 : 1000평
- 법당 : 30평 목조포집
- 요사 : 30평, 산 밑
- 매가 : 8억, 차량진입
- 위치 : 서울
- 면적 : 200평, 사찰
- 법당 : 50평
- 요사 : 60평, 산 밑 차량진입
- 매가 : 25억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 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 사찰(급)안내

- 위치 : 김해시 안동6거리
- 건평 : 대지 270평
- 창건 30년
- 가액 : 가액 5억 3000만원 (융자 3억 가능)

010-6898-9114

## 사 찰 안 내

"소중한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 면적 : 3600평(건축물 : 전통양식)
- 극락전/산신각/종각/미륵불
- 용왕당(연못) 요사채 2층 80평(외) 등
- 경남 사천시 곤명면 막골길267-28

010-8961-5489

## 사찰(급)안내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 사찰(급)안내

- 신축 빌라식 3층 건물
- 각층 임대 및 매매 가능
- 위치 : 부산시 구포시장 농협 옆
- 1층 근린법당 약 50여 평 5000만 월 70만
- 2층 주택 법당 5000 월60만
- 3층 주택 방3칸 5000 월50만

※3층 복층 사용 가능

010-5511-7000

## 포교당 안내

전월세입자 구함

- 위치 :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160 4층
- 면적 : 4층 45평, 총 90평 전체 사용 가능
- 대웅전 약 30평, 공양간, 종무소
- 요사채 별도 존재, 몸만 오시면 됩니다
- 전세금 천만원/월세 60만원(절충가능)
- 집기 일체 3천만원(절충가능)
- 4층 전세 사용 함

010-4179-6212

##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 큰 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우체국/농협/면사무소 약 도보15분거리 입니다.
- 1층 요사채, 2층 법당, 삼성각, 원주시청, 충주시청, 문막읍 약 20km
- 가액 : 6억5천만원
- 답사하실 분만 전화 요망

010-5371-5567

##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시 치악산 산하
- 부지 1330평
- 대웅전(60평), 요사채(40평), 황토방(10평)
- 상수도, 지하수, 전기(태양광 포함 15k)
- 심야전기 보일러
- 가액 : 8억 8천만원

010-6372-8968

##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로 149번지(석교동) 광명선원
- 3층 건물 중 2층 33평
- 보증금 500만원/월세 35만원
- ☆ 렌탈제품, 정수기, 공기청정기, 인터넷.cctv, 비데, 전화, 체크기 등 이전 ☆

광명선원 043-224~2474
010-3222-2474

## 사 찰 안 내

- 위치 : 청통와촌IC에서 7분거리
- 아주 고요하고 조용한 사찰
- 총 평수 453평, 현대식 건물 3동
- 1층 요사30평, 14평, 산신각 2평
- 2층 법당28평
- 건물 대지 종교건물
- 가액 : 3억 8000만원

010-5804-5100

##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 9억5천만원

010-6325-5112

## 부동산 모든문제(사찰)를 해결해 드립니다

못파는 부동산(사찰)을 팔아드립니다. (무료상담)
못사는 부동산(사찰)을 사드립니다. (무료상담)
(사찰 : 5천만, 9천만, 2억, 5억, 9억, 12억, 15억, 30억, 75억 매물보유)
정성 부동산문제해결연구원 원장 행정학박사 정 용

정용 원장 약력

부동산평론가 (전국최초), 부동산 중개경력 40년 /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부동산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 대구과학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겸임교수(역임), 방송인 /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겸임교수 (역임), 영남일보객원기자(역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9대 지부장, 대구광역시 7대 시의원

대구 동구 제27140-2021-00097호

정용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010-2512-7777

### 도심 최고 중심사찰부지 안내

지금의 사찰은 도심의 최고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 대구시민 240만 인구의 최고 중심
- 지하철 1호선, 3호선 더블역세권
- 불교5대종단 內 소유 종교용지(나대지)
- 다시는 찾을 수 없는 도심속의 명당
- 종교용지 490㎡, 추가 130㎡ 매입가능
- 매매가격 : ㎡당 350만원(협의가능)

053-745-9999, 010-2512-7777

##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화상대리 산 130-7번지
- 총토지면적 : 546평
  *대지199평, 건평25평1동(1억 2천)
  *임야 247평(산지전용 토목공사 완료, 5천), 도로 약 100평
- 총가액 : 1억 7천만원(일부 조정 가능)

010-8833-6949

## 포교당 안내

- 위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 3층 건물 중 3층 위치, 약 60평
- 대법당, 소법당, 모임실, 공양간 등
- 창고, 남녀 화장실, 10평 테라스
- 프로젝터, 방송장치 등 구비 (강의 진행 바로 가능)
- 월세 : 100만원 • 보증금 : 2000만원
- 시설 권리금 : 협의

010-3269-9847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사찰
- 대지 : 120평
- 건물 : 건물외 부속건물 약 30평
- 난방 : 태양열 시설이 되어있음
- 가격 : 1억원 (절충가능)

010-5436-5801

## 토 지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구성면 용호리 835번지 836번지
- 835번지 임야 130평
- 836번지 밭전 300평
- 총 430평, 샘물 나옴
- 사정상 급양도 2750만원

010-7628-9997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
- 대지 : 1000평, 건물 : 60평(건축6년)
- 대웅전 공양간 요사채 베란다 40평
- 도량에 진신사리 10층석탑
- 약사불, 포대화상, 12지신
- 조경, CCTV 완비
- 주차장 500평(하천부지), 저온창고 6평
- 건강 악화 부득이 정리, 집기류 인계
- 가액 : 12억원(절충가능)

010-2857-2811

##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완도
- 평수 : 1860평
- 법당 : 25평 산신각 : 8평
- 요사채 : 45평, 28평

※태양광, 저온창고, 화장실 3개

- 가격 문의 바람

010-5635-9499

## 지상권 주택(토굴) 안내

- 위치 : 경북 안동시
- 건물 : 한옥+양옥 방3개
- 아미타3존불, 탱화 장구 일체, 텃밭
- 가액 : 4500만원 (년 도지 40만원)

010-5726-1366

## 광고 접수 번호 안내

국내 최대 사찰 생활 정보 안내지로 2000만 불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02-2004-8204
010-4648-8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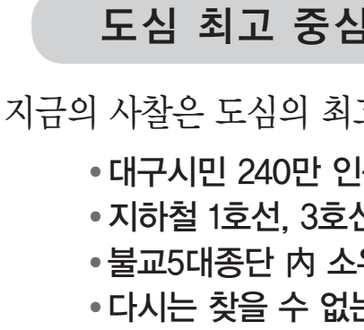
##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들기름을 이용한 단청 보호 및 색채 보존제

## 들기름 전통 도료

특허출원번호 10-2023-0181680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신고번호: 제 FB25-07-0032호

國寶 明油·蘇子油

# 명유·소자유

## 단청보호, 색채 보존제

### 발수코팅·오염방지 기능

천연의 식물성 들기름 원료를 이용하여 우리의 전통과 과학으로 특화된 기술의 결합체인 들기름 전통 도료입니다.

사용처 : 문화재(단청마감재), 색채 보존제, 사찰, 한옥, 공예품, 민속품, 목재 보호 및 코팅이 필요한 모든곳, 경첩, 놋쇠 등

항균시험 99.999%, 중금속 불검출 -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제주목 관아(문화재) 시공사례

동화특수산업(주)
국보도료연구소

문의 | 010-3747-2111
TEL | 031-451-6232 FAX | 031-451-6238
주소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66, SK벤티움 102동 1201호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생활안내

1555호 | 16 | 전면광고

속이지 마라. 성내지 마라.
많음을 구해 탐심을 내지 마라.
이 세 가지를 법답게 행하면
죽어서 곧 천상에 나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법구경》에서


##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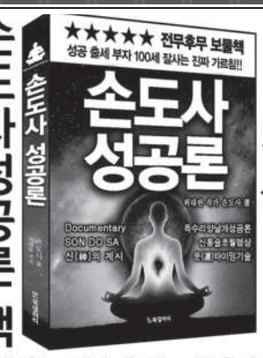
## 미륵암 '지평대사' (12불 수기)
## 99% 완치, 말기암 환자 1개월 내 치유

320년간 수기받음 / 교도소, 오지 등 전국방문 가능
즉시 영가 천도 / 불교-무교인 상담환영
집이나 땅 매매 안되는 분 성불 시켜드립니다
공항장애, 간질 등 몸이 안좋으신분 치유해드립니다
지평대사는 법문 대신 설법을 합니다
친견상담비 30분 330만원 / 완치 3000만원부터 시작
010-4804-2309

##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 꼭 읽어봐주세요 손도사성공론 책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해썹(HACCP) 인증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국내산 진짜 흑염소 진액 100%
(흑염소 높은 함량38%, 정제수 49%, 전통약재 13%)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 희귀병 상담

•수행이 잘 안되시는 분
•무엇인가 알면서도 해결 못하시는 분
•매일같이 몸이 아프신 분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으신 분
합천군 가야면 죽전길 132-1 법정사 해산스님
010-7321-0404

## 국제결혼 무료로 인연맺어 드립니다

010-9260-1672

## 공양주 구합니다

65세이상
한달 시주금 문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대산로 26번지4
010-6333-1488

• 한국전통무용(춤)
• 전 통 민 화(그림)
## 자 격 증
1급~2급 지도강사
-간단한 절차로 취득 기회-
대한민국장인포럼
서울시 중구 수표로 22 아세아빌딩602호
상담 010-3007-1183

##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향로용 유리알
##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1kg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1kg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전화 02-732-1520 , 팩스 02-737-0696
▣ 계 좌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바이넥스 / 원산지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 종류 | | 크기 | | | 수량 |
|---|---|---|---|---|---|
| 향로(스텐) | 特大 | 지름 20cm | 높이 18.5cm | 내부 13cm | 5kg |
| 향로(스텐) | 大 | 지름 17.5cm | 높이 18.5cm | 내부 11.5cm | 3kg |
| 향로(스텐) | 中 | 지름 13.5cm | 높이 16cm | 내부 10cm | 1.5kg |
| 향로(스텐) | 小 | 지름 12cm | 높이 12.5cm | 내부 8.5cm | 1kg |

## 육임의 '지피지기(知彼知己)'그 놀라운 효과 – 익명성해체 – 만난(전화포함) 시간만으로 – 동일시간 여러人도(화면 '다음사람' 버튼만 누르면) – 정확도·속도성·착목도·효과성 – 보장 !
## 초보자용 'B버전' Aver 과 전문가용 'A버전' Bver 을 버튼 하나로 즉각즉각 동시 사용됨

## 육임AI 휴대폰(안드로이드·아이폰)·노트북·테블릿·PC 연동 사용·저장 기능 장착·영구 필수적

■ 상대본인 당면사 순조 · 역조 · 불성 여부 판단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가, 역조할 것인가, 안될 것인가 명시
■ 상대 본인 당면 핵심사 명시 1 · 2 · 3
■ 상대이해 판단
이익 될 人 인가, 손해 날 人 인가, 피해 줄 人 인가, 무력한 人 인가 명시
■ 상대 신분 판단
대통령(될 자) 인가, 장관(급) 인가, 차관(급) 인가 명시
당면우고사가 해소 될 人 인가, 유여한 人 인가 명시
복잡다단한 궁핍 人 인가 명시
■ 상대 사생활 판단
남녀 삼각관계(1녀2남 · 1남2녀), 부부동시 연정관계 여부 명시
관재 송쟁 여부, 가옥권리양도(讓倒) 여부, 근친상간관계 여부 명시
■ 상대 생업 가정 흥쇠 여부
재기力 위한 이전 · 이사 · 길방 · 택일 명시
■ 상대 본인 질병 판단 명시
지나갈 병인가, 고질병이 되는가 명시
■ 상대 본인 목적사 판단
승진 · 選擧 · 매매 · 合格 · 주식 · 求財 등 24항 答 명시
■ 상대 송사 · 계획 · 사업 · 고민 규모의 大 · 小 여부 명시
■ 귀신 침범 · 부정 山所탈(좌향 · 육친 · 묘지 앞 전경 · 뱀굴 · 물구덩이) 여부 명시
-정확도 검증됨 해당 사안 해소 방법 적시함
■ 전화 상담 해답 명시
■ 즉시 판단 항목 수록 명시
■ 시험 · 선거 합격 당선 등 24항목 성부 판단 명시
■ 출산(出産) 길일 길시 선택, 연월일시 명시
■ 상대 본인 운세(明暗 정도) 명시
■ 상대 본인 사정(전체적 · 구체적 · 적확도) 명시




한 화면 한 눈으로 판단, 화면 각 항목별 효능판단보기 ▼ 버튼 붙음

■ 친화자녀 구해(仇害) 자녀 출산 구별(띠) 명시
■ 상대 본인 주요 면담 · 상담 · 담판 시 이기는 좌석 명시
■ 상대 본인 다툼 · 갈등 시 유리해질 처신 방침 명시
■ 남녀 성력(性力) 성태(性態) 명시
■ 남녀 성격 일생 대개 궤적 명시
■ 남녀 출생 일별 부부관계 판단 명시
■ 재판관재 승패
국가 · 개인 간, 남자 · 여자 간, 집안 수상 · 수하 간 승패 명시
■ 상대 본인 운세 비교
현재 장차 – 봄 夏 가을 冬 별 진퇴 조절 명시
■ 진행사 성사 월일시 선택
진행 · 회피 – 어떤 월일시로 변경해야만 좋은가 명시
■ 상대 충성 배신 판단
충성할 것인가, 좌고우면 할 것인가, 배신할 것인가 명시
■ 상대 심중 판단
나를 신뢰하는가, 자기 고집을 부리겠는가, 설득해야 하는가, 관계가 없게(不成)되는가 명시
■ 상대 말의 진위 판단
진실한가, 위선인가, 거짓이 많이 섞였는가 명시
■ 난사(難事) 교섭 판단
선이후난 선난후이 교섭 불가 여부 명시
■ 가옥 · 장소 길좌방위 명시 및 길사 · 발로 연월 명시
■ 상대 본인 복장 上下로 상황 판단 명시
■ 뇌물증여 효과 여부
뇌물효과 있겠는가 안 받겠는가
■ 이전이사 · 호악
留 – 去, 좋을까 나쁠까명시 등등등

■ 정가 : 95만원 ■ 주문 : 010-7596-5146 한국육임학회
■ 입금계좌 : 농협 301 0252 7245 11 도서출판 보화천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 24길4 세림페리체 1301호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원섭의
##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㉒ '신사장 프로젝트'(2025)

# 서로 이해하는 세상이 된다면

경찰대를 수석 졸업하고 법관 임용시험도 수석으로 합격해 이제 막 판사 발령을 받은 조필립(배우 배현성).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결의로 법원에 첫 출근을 하지만, 평소 존경하던 부장판사 김상근(배우 김상호)은 동네 닭집으로 필립을 데리고 가 당분간 닭집에서 일하라는 황당한 지시를 한다. 그리고 그 닭집에는 정체가 모호한 신 사장(배우 한석규)이 있다.

신 사장은 상근이 데리고 온 필립을 낙하산이라고 부르며 필립과 함께 상근이 부탁한 일을 하러 나서는데, 그 일은 소송 당사자들 사이를 중재하고 합의하는 것이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 신 사장. 이런 신 사장을 필립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처럼 드라마 '신사장 프로젝트'는 법과 원칙이 최고의 가치인 판사 조필립과 바로 그 법과 원칙이 문제라는 닭집 사장 신 사장이 의기투합해 주변 사람들의 억울한 일을 해결하는 이야기다.

사실 신 사장은 하버드 네고시에이션 마스터클래스 최연소 교수 출신으로 FBI와 인터폴 위기 협상 자문을 의뢰하던 세계적인 협상 전문가였다. 그런데 15년 전 인질범과 협상을 하느라 정작 자신의 아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세상을 피해 숨어 버린 것. 그런 신 사장에게 억지로 민사소송 중재를 떠넘겨서 세상으로 다시 나오게 한 사람이 판사 김상근이다.

판사인 상근이 소송 사건을 재판 전 합의하게 하려는 이유는 재판은 시간도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재판을 시작하면 서민들이 자신들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 사장 곁에 필립을 둔 것은 필립이 시민 눈높이에서 사건을 볼 줄 아는 진정한 판사가 되기를 바라서였다.

상근이 이렇게까지 신 사장을 신뢰하는 데에는 신 사장의 협상 방식이 한몫한다. 신 사장은 적당히 이해 당사자 양쪽의 의견을 절충해서 타협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건 너머에 있는 진실까지 밝혀낸다. 그 결과 약자에게는 힘이 돼 주고 악인에게는 응당한 처분을 받게 한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신 사장이 편법과 준법을 넘나들며 사건을 해결하고 정의를 구현해 내는 분쟁 해결 히어로 드라마"라고 정의된다.

드라마에서는 반복적으로 "협상은 원하는 것 하나씩 주고받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협상 방법에 대해 신 사장의 후배 장영수(배우 최덕문)의 입을 통해 "협상을 할 땐 상대를 적으로 돌리는 것보다 이용하는 게 더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생각일 뿐, 현재의 신 사장은 "상대방을 적으로 이용하는 것보다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고 보람 있다"고 말한다.




사진 출처=tvN 공식 홈페이지

**약자 편에서 현실 어려움 해결**
**히어로 존재 꿈꾸는 희망 담아**
**서로를 부처로 보는 세상 불국토**

말로써 상대를 설득하는 협상 전문가 신 사장을 보고 있으면 평생을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며 교화를 펼친 부처님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부처님은 만나는 사람의 나이·지위·계급·빈천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법을 전하는 일로 평생을 보냈다. 상대를 가리지 않고 설법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표현을 사용했다. 그리고 설법을 들은 상대와의 교감 속에서 다양한 대화 방식을 사용했다.

상대의 질문이 설법 의도와 상응하면 그렇다고 긍정도 하고, 질문을 자세하게 따져 물어 그렇다 아니다를 밝히기도 하며, 질문자에게 반문해 스스로 답을 생각하게 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또한 질문이 잘못된 경우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기도 했다. 심지어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행동으로만 교화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부처님의 교화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부처님은 상대가 처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고 공감하여 상대에게 필요한 처방을 정확하게 내려 준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당신의 설법을 듣고 갖가지 청정행을 실천함으로써 누구나 고통에서 벗어나 안락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부처님의 자비심이 깃들어 있다.

드라마 '신사장 프로젝트'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주요 등장인물의 이름이다. 불자들에게는 다소 불편한 부분인데, 신 사장의 닭집에서 일하는 판사 '필립'이라는 이름은 '빌립'으로 표기되는 기독교 사도의 이름이고 배달을 맡은 이시온(배우 이레)의 이름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중요한 단어다. 시온의 동생 이름인 '예온'도 예수님을 떠오르게 한다.

이런 눈으로 보면 신 사장의 이름 '신재이'가 예사롭지 않다. '신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로 읽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신은 거창하고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동네에서 흔히 만나는 닭집 아저씨의 모습을 하고 우리 삶에 녹아 있는 존재이다. 이쯤 되면 '신 사장이 사건을 해결하고 정의를 구현해 내는 분쟁 해결 히어로 드라마'란 소개도 허투루 보이지 않는다. 나에게 닥친 힘든 일을 해결해 주고 정의 구현을 실현하는 히어로가 바로 '신'이란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1500년대에 지어진 중국의 고전 소설 〈서유기〉는 현장 스님의 인도 구법을 소재로 오공(悟空), 팔계(八戒), 오능(悟能, 저팔계의 원래 이름), 오정(悟淨)이라는 등장인물의 이름을 통해 불교의 가치를 전한다. 그뿐만 아니라 구법의 길을 방해하는 무수한 요괴들을 만나지만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을 일깨우고 천도하여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함으로써 불교의 지향점을 훌륭하게 구현하고 있다. 이렇게 고전의 실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에서 '신사장 프로젝트'와 어깨를 견줄 만한 불교식 작명을 보기 힘들다는 아쉬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드라마 '신사장 프로젝트'에서 협상의 달인인 신 사장이 신을 의미하든 안 하든, 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이 드라마가 약자의 편에서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히어로의 존재를 꿈꾸는 서민들의 희망을 담고 있다는 점인데, 여기에서 생각의 폭을 조금만 더 넓혀 보자. 히어로 대신 신 사장의 협상 방식처럼 모든 사람이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세상이 된다면 어떨까? 그런 세상에는 갈등과 반목이 없을 테니 문제를 해결할 히어로 또한 필요 없을 것이다. 히어로가 필요 없는 세상, 그저 서로를 부처로 보는 세상, 그것이 바로 불국토가 아닌가.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 오도사문도 외도보다 훌륭하다



법공 스님의
## 〈지장십륜경〉 강의

㊸ 승려의 종류

**사종의 승(四種僧)**

"또 선남자야, 네 종류의 승려가 있으니 ① 승의승(勝義僧) ②세속승(世俗僧) ③아양승(啞羊僧) ④무참괴승(無慚愧僧)이니라.

①승의승이란 불보살 중에서 그 덕이 존귀하며 모든 법에서 자재함을 얻은 사람과 독각승, 아라한, 불환과, 일래과, 예류과 등이니, 이런 7종의 사람은 승의승에 속하느니라. 혹 유정으로서 재가 형상, 즉 머리를 깎지 않고 가사도 입지 않으며 비록 출가한 이가 별해탈계를 받을 수 없어 일체 갈마와 포살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불법이 있고 성인의 과보가 있으면 승의승에 포섭되니, 그러므로 그도 승의승이라 한다.

②세속승이란 머리 깎고 가사를 입으며 출가한 이의 별해탈계를 성취하는 자를 이른다.

③아양승은 근본 죄를 범했는지 범하지 않았는지 그 경중을 알지 못하고, 근본 죄에 수반하는 작은 죄를 범하고도 그 범한 것을 드러내어 참회할 줄 모르며, 어리석고 둔하여 조그만 죄라고(가벼이 여겨) 돌아보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스승을 의지하여 살지 않고 총명한 사람에게 자주 찾아가 받들어 섬기지 않으며, 자주 그에게 '어떤 것이 선(善)이며 어떤 것이 선이 아닌가? 어떤 것이 죄며 어떤 것이 죄가 아닌가? 무엇을 닦으면 훌륭하다 하고 무엇을 지으면 악이 되는가?'라고 공경히 묻지 않는다. 그런 일체의 사람을 아양승이라 한다.

④무참괴승은 어떤 유정이 살기 위하여 내법에 귀의해 출가한 뒤에 받아 지녀야 할 별해탈계를 모두 범하고도 부끄러움이 없으며, 후세의 고과(苦果)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마음속은 다 썩어 달팽이나 소라와 같고, 세속 음악을 좋아하고 구행(狗行)을 짓고 항상 거짓말을 좋아하여 조금도 진실이 없으며, 간탐·질투·교만하여 신구의(身口意)로 짓는 세 가지 선업을 떠났으며, 이익에 탐착하고 명예를 공경하며 육진(눈, 귀, 코, 혀, 몸, 뜻의 6기관)에 빠져 음탕하기를 좋아하고 빛, 소리, 냄새, 맛, 촉감 등의 경계를 사랑하는 일체의 사람을 모두 무참괴승이라 하며, 이들은 바른 법을 훼방하느니라."

**사종사문(四種沙門: 승도사문, 시도사문, 명도사문, 오도사문)**

"선남자야, 승의승 가운데에는 스스로 도를 이루는 승도사문(勝道沙門)에 속하는 이가 있다. 그들은 팔성도에 의지하여 스스로 모든 번뇌의 격류를 건너고 또 남도 건너게 한다. 이들은 부처님과 독각승과 모든 아라한이다. 이런 이들은 일체 유지(有支, 삼계윤회를 벗어남)의 권속을 떠났기 때문에 승도(勝道)라 하느니라. 또 보살마하살의 무리가 있다. 그들은 다른 인연을 빌지 않고 모든 법의 지견(知見)에 있어서 장애가 없으며, 일체의 유정을 거두어 이롭고 즐겁게 하는데 그도 승도사문에 속한다 하느니라.

또 승의승과 세속승 가운데에도 도를 가리키는 시도사문(示道沙門)에 속하는 이가 있다. 만일 그가 별해탈계를 성취한 착한 이생(異生)으로서 세간의 바른 소견을 원만히 갖추었으면, 그는 기설변현(記說變現)의 힘으로 남을 위해 설명하며 모든 성도의 법을 열어 보이나니 그런 사람을 가장 하열한 도를 가리키는 사문이라 하느니라. 그리고 예류과를 증득한 이를 제2, 일래과를 증득한 이를 제3, 불환과를 증득한 이를 제4, 보살마하살을 제5라 하나니, 이른바 초지(初地)에서 십지(十地) 사이에 머물거나, 최후신(最後身)에 편히 머무르는 이들은 모두 도를 가리키는 사문(시도사문)에 속하느니라.

또 어떤 이가 별해탈계를 성취하고 계율을 지키며 행이 청정한 이가 있다면, 이들은 명도사문(命道沙門)에 속하느니라. 도(道)로써 살기 때문에 명도라 한다. 보살마하살로서 일체 유정의 안락을 바라며, 육바라밀을 구족하게 수행하면 그 또한 명도(命道)라 하느니라.

이러한 승도, 시도, 명도의 삼종사문을 세간의 진실한 복밭이라 하고, 그 외의 사문을 도를 더럽히는 오도사문(汚道沙門)이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문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비록 진실하지 않아도 아직은 복밭의 수(數) 가운데 들 수 있기 때문이니라. 만일 참괴함이 없는 사문을 의지하는 이가 있다면 그를 나의 바른 법인 율장(律藏) 중의 송장이라 한다. 그러므로 나는 대사라 부르지 않고, 그 또한 나의 제자가 아니니라. … 그러나 스스로 사악한 소견에 집착하지 않고 남도 또한 나쁜 소견에 집착하게 하지 않으며, 남을 위해 나의 법을 널리 찬탄하고 훼방하지 않으며 항상 바른 서원을 세워 범한 죄를 끊임없이 싫어하고 참회하여 모든 업장을 다 없애면, 그런 사람은 삼보와 거룩한 계율의 힘을 믿고 공경하기 때문에 저 95종의 외도들보다 백천 곱이나 더 훌륭함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이런 의미에서 여래는 일체 유정들이 그 업으로 받는 차별된 모양을 관찰하고는 이렇게 말하느니라. … 나의 법 안에서 머리 깎고 가사를 입은 이에게, 악한 왕 등의 권속들이 헐뜯고 욕하고 책벌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만일 누가 출가한 사람을 헐뜯고 욕하고 책벌하면 그가 받는 죄는 앞에 말한 것과 같이 무수한 고통을 받다가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송림사 주지〉




이승혜의 그녀, 붓다를 만나다 22 순헌 황귀비가 피워 낸 연꽃



▶한줄 요약
순헌 황귀비 엄씨는 격변의 시대에 불사를 이끌고 불화를 발원하며 나라와 왕실의 안녕을 기원한 신심 깊은 대시주였다.

# 격동의 시대, 나라 안녕 기원한 대시주

흑백 사진 속에는 화려한 두 폭 가리개를 배경으로 궁중 예복을 입은 여성이 양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고 서 있다. 어여머리를 하고 홍원삼에 대란 치마를 착용해 예를 갖춘 모습이다. 사진 속 인물은 만 다섯 살의 어린 나이에 궁녀로 입궁해 황귀비라는 조선 시대 내명부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위에 올랐던 순헌 황귀비 엄씨(純獻皇貴妃 嚴氏, 1854~1911)이다.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바뀌고, 대한제국이 일본에 강제 병합되는 역사의 틈바구니에서 이 여인의 지위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구한말 역사의 파고를 정치적 감각과 영민함으로 헤쳐 나가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 여성 교육에 앞장섰던 순헌 황귀비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했던 '대련화(大蓮花)'라는 법명을 지닌 불자이기도 했다.



불암사 괘불, 조선 1895년, 삼베에 채색, 남양주 불암사.
사진=〈한국의 불화〉



흥국사 괘불, 대한제국 1902년, 면 바탕에 채색, 고양 흥국사.
사진=〈한국의 불화〉

### 애기 나인에서 황귀비까지

순헌 황귀비 엄씨는 1854년(철종 5) 음력 11월 5일에 엄진삼(嚴鎭三)과 밀양 박씨(密陽朴氏)의 장녀로 태어났다. 그녀의 무덤인 영휘원(永徽園)에 세워진 비석에 의하면, 1859년(철종 10)에 입궁해 궁녀가 됐으며 이후 명성 황후의 시위상궁(侍衛尙宮)이 됐다고 한다. 구한말의 재야 문인 황현(黃玹, 1855~1910)이 쓴 〈매천야록(梅泉野錄)〉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한다. 1885년(고종 22)에 상궁 엄씨가 고종의 승은을 입게 되자 명성 황후가 크게 화를 내 죽이려 했으나 고종이 만류해 궁궐 밖으로 내쫓았다는 것이다.

순헌 황귀비의 이름이 역사에 재등장하는 것은 1895년(고종 32)의 일이다. 1895년 10월 8일 명성 황후 시해 사건이 발생하고 닷새 후, 고종은 궁 밖에 있던 엄씨를 다시 입궁하게 했다. 재입궁한 엄씨는 1896년(고종 33) 2월 고종과 세자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대피했던 때부터 그다음 해 경운궁(지금의 덕수궁)으로 돌아올 때까지 고종을 측근에서 보필했다. 엄씨는 1897년(광무 원년) 10월에는 경운궁에서 영친왕 이은(李垠)을 낳았고, 황자를 낳은 공으로 궁인에서 종1품 귀인(貴人)으로 책봉됐다.

이후 10여 년 사이에 연이어 높아진 품계는 그녀의 정치적인 감각을 잘 보여 준다. 엄귀인은 1900년(광무 4) 8월 정1품 순빈(淳嬪)에 진봉된 것을 시작으로 1901년(광무 5) 10월에는 순비(淳妃)로 승격됐고 경선(慶善)이란 궁호(宮號)를 받았다. 1903년(광무 7) 12월에는 이윽고 황귀비로 책봉됐다. 엄비의 지지 세력이 일 년 넘게 한결같은 덕으로 경효전(景孝殿)의 제사를 받들고, 황자를 낳아 자손을 번성한 공을 인정해 달라고 상소를 올린 결과였다. 비록 그녀는 정식으로 황후에 책봉되지는 못했지만, 고종의 정비가 없는 상황에서 내명부의 실질적인 수장으로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1907년에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인해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고 영친왕이 유학이란 명목 아래 일본에 끌려가면서 순헌 황귀비 역시 큰 시련을 겪었다. 순헌 황귀비는 한일합방 다음 해인 1911년 7월 20일에 망국(亡國)의 귀비 신분으로 덕수궁에서 세상을 떠났다.



순헌 황귀비 엄씨, 대한제국, 사진, 국립고궁박물관.
사진=emuseum

### 순헌 황귀비의 불화 발원

고종 대에는 왕실의 활발한 후원 아래 사찰이 중창되고 많은 불화가 조성됐다. 어린 나이에 즉위한 아들을 대신해 섭정했던 흥선 대원군 이하응(興宣大院君 李昰應, 1820~1898)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여러 사찰 재건에 나섰다. 당시 섭정으로서 실권을 행사했던 흥선 대원군이 거리낌 없이 불교를 후원함에 따라 대비, 왕비, 후궁, 상궁 등 내명부 여성들도 보다 자유롭게 불사를 후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됐다. 신정 왕후 조씨와 효정 왕후 홍씨와 같은 왕실 여성 어른들은 앞다퉈 불화를 발원했다. 왕실 여성들은 새롭게 조성된 불전 안에 봉안되는 후불탱화나 대규모 야외 법회에서 사용되는 의식용 불화인 괘불(掛佛)을 후원한 경우가 많았다. 이 시기에는 왕손이 극도로 귀해짐에 따라 사찰을 왕자 탄생을 비는 기도처로 지정하는 일도 빈번했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왕실 식구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상궁들도 때로는 이들의 명을 받들어 불사를 수행하고 때로는 스스로 의지로 불사를 주도하고 동참했다.

순헌 황귀비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녀는 상궁 시절부터 황귀비 시절에 이르기까지 생애 각 단계에서 꾸준히 불화를 발원하고 불사를 후원했다. 고종의 승은을 입기 전인 상궁 시절에 여러 궁인과 함께 불사에 동참하거나 왕실 어른의 명을 받들어 불사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1878년(고종 15)에 거행된 화계사(華溪寺) 명부전 불화 불사다. 여러 점의 불화가 동시에 조성된 이 불사에는 효정 왕후 홍씨와 많은 상궁이 시주자로 동참했다. 순헌 황귀비의 이름은 '시왕도'(5·7·9 대왕)의 화기에 '상궁 갑인생 엄씨(尙宮甲寅生嚴氏)'라고 적혀 있다.

한편 명성 황후 시해 사건 직후인 1895년(고종 32) 11월에 조성된 불암사(佛庵寺) 괘불의 화기에는 '명을 받든 신하 상궁 갑인생 엄씨'라고 기록돼 있어 황실을 대신해 불사를 봉행했음을 알 수 있다. 화기에는 고종, 왕세자 내외, 그리고 흥선 대원군의 건강과 안녕을 빌고 먼저 가신 명성 황후가 연화세계에 상품 상생하기를 바라는 기원이 적혀 있다. 세로로 긴 화면에는 석가모니, 약사, 아미타의 세 여래가 정면을 향한 자세로 그려져 있다. 중앙의 본존 석가모니여래는 왼손바닥 위에 연꽃을 든 특이한 모습이다. 석가모니가 든 연꽃은 보통 염화미소의 가르침을 상징하지만, 이 그림에서만큼은 연화세계에 명성 황후의 선가를 태워 갈 금련대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엄씨는 순비로 책봉된 후에는 괘불을 대시주로서 발원하거나, 사찰을 창건하고 중창하는 불사를 도모하는 등 불사에 한층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대표적인 예로 1902년(고종 39)에 발원해 한미산(漢美山) 흥국사(興國寺)에 봉안한 괘불이 있다. 이 불화 화기에는 시주자들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지만, 황실 가족을 위한 봉축문이 있어서 순비 엄씨가 주도했던 불사로 생각된다. 괘불 화면 상단에는 무량수불과 관음·세지보살의 삼존을 배치하고, 하단에는 가섭·아난존자와 문수·보현보살을 배치했다. 정면으로 화면 너머를 응시하는 무량수불은 오른손을 길게 뻗어 우리에게 내밀고 계시는 듯하다. 좌우의 두 분 협시보살은 각각 바깥을 향한 손에 탐스러운 꽃송이를 들고 있다. 화면 상단을 매운 오색의 서기와 구름은 화면에 상서로운 기운을 더한다.

괘불이 조성된 지 2년 후인 1904년(고종 41) 가을부터 흥국사에서는 황실의 후원으로 만일염불회(萬一念佛會)가 개최됐다. 만일염불회는 극락정토 왕생을 기원하면서 1만일을 기약하고 염불 수행하는 모임을 뜻한다. 흥국사에는 1929년에 세워진 한미산흥국사만일회비가 남아 있어 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비석의 음기(陰記)에는 고종을 필두로 순비, 고종의 또 다른 후궁인 복녕당 귀인 양씨(福寧堂 貴人 梁氏, 1882~1929), 다수의 상궁과 신녀(信女), 스님과 신사(信士)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를 통해 흥국사 만일염불회가 왕실의 안녕을 비는 불교 의례였음을 알 수 있다.

### 대연화처럼 피어난 신심

순헌 황귀비 엄씨는 격변의 시대 속에서도 신심으로 불사를 이끌고 불화의 아름다움을 꽃피웠던 대시주였다. 어린 시절 궁녀로 입궁해 황귀비에 오르기까지, 그녀의 신심은 불사를 후원하고 대규모 불화를 발원하는 실천으로 이어졌다. 순헌 황귀비의 발원은 곧 시련을 겪던 왕실과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간절한 기도였다.

〈동아대 역사문화학부 교수〉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죽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



대행 스님



# 딴 데 불들지 말고 진짜 해결사를 불들고 늘어져라

항상 여러분과 같이하면서도 여러분 모습이 다르고 내 모습이 다르고 처소가 다르고 그런 까닭에 항상 말씀드리는 거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떠한 작업을 처음에 해야만 되는가. 이 공부 하는 사람들은 각오가 단단히 선, 견고한 마음으로써 모든 거를 용광로에 넣는 작업이 첫째 아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불이 벌겋게 타오르는 용광로와 같은,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진 마음입니다. 그래서 항시 여러분한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첫째,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하듯이, 우리는 일체 모든 생활에서 그 일체를, 자기 몸까지도, 생과 사도 거기에 놓는 작업을 한다. 안 되는 것도 거기고 되는 것도 거기고, 외로운 것도 괴로운 것도,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생겨도 거기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잘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그렇게 찰나찰나 돌아갑니다, 빨리. 그렇게 빨리 돌아가는 것을 육안으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안 되는 것도 길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거기서 나온 거니까 되는 것도 거기서 빨리 나오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엎드러진 놈이 있으면 "아이구!" 하고 빨리 일어나는 놈도 바로 그 놈이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잘된다 못된다를 다 놓는 그 작업에 세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거기다 놓고 들어가실 때는 모든 일체 오간지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인연에 따라서 온 습이 모두 끊어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릇이 꽉 찼던 것이 비고, 빈 것도 없고 담긴 것도 없는 그러한 위치가 될 때에, 바로 '나'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내가 발견이 되면 그때서부터 기초가 튼튼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기초가 튼튼하게 됐으면 그때 가서는 기둥을 세우게 돼 있죠, 집을 짓는 데. 기둥을 세우는 데는, 물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론적으로 요거는 기둥이고 요거는 서까래고, 요거는 기왓장이고 요거는 벽돌이고, 흙이고 흙손이고 재료의 이름은 다 아신다 하더라도 집을 지을 줄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집을 짓는 데는 견고하게 어떠한 재료든지 이름을 찾지 말고 그냥 갖다가 벽돌이 있으면 '이거 벽돌이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벽돌을 집어오너라." 하든지 집어다간 그냥 쌓는 겁니다. 안 그럽니까?

여러분이 이름이 있으면 이름을 불러 가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남들을 불러서 가르치려면 "저 서까래를 가져오너라." 이러지마는 자기가 쓸 때는 그냥 서까래를 집어다가 그냥 쓰는 겁니다. 일꾼들이 아무 소리 없이 "서까래를 올린다." 하면 벌써 일꾼들이 다 갖다 놓습니다. 그럼 그냥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겁니다. 대들보가 올라가죠. 대들보에 간접적으로 붙어 돌아가는 재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인간의 몸뚱이 하나로 인해서 그렇게 간접적으로 재료가 많이 붙어 돌아간단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오신통이 오신통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각자의 재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료! 집을 지으려면 대들보가 올라가듯이, 탑을 세우면 위 봉우리가 올라가듯이, 우린 그 재료로 인해서, 망상이나 모든 악행, 거기에 쓸모가 있다 하는 것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선자(善者)가 되고, 선자가 있기 때문에 바로 봉우리가 올라가고 대들보가 올라가는 격이다 이 소립니다. 그 모두가 없다면 해탈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짓는 거와 같고, 우리가 벌써 집을 지으려면, 내가 그런 말을 하죠. "항상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집을 짓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세 가지가 벌써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무너지면 세 가지째는 벌써 나를 발견한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애가 학교에 가야 하니까, 가난하니까, 일이 안되니까, 모두 정신이 다 거기 가 있습니다. 진짜 해결사한테 마음을 둬야만이 그것이 해결될 텐데, 해결사는 벌써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해결사를 붙들고 늘어져야 할 텐데, 그 일하는 걸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해결사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항상 "나는 주인공을 진실히 믿는데도 그렇습니다." 이러거든. 진실히 믿기는커녕 해결사를 붙들어야 할 텐데 딴 데를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슬픈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저를 슬프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울면 저도 울어지고 여러분이 웃어지면 저도 웃어집니다.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여러분은 둘이 아닌 까닭을 모르시죠. 왜 둘이 아니라고 하나?

그러니까 육근, 육진, 육식 이것을 이름 따라서 꼭 외우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외우다 보면 재료의 이름을 외우는 셈이나 똑같습니다. 집을 짓는 거를 배우지 않고, 그 재료 이름만 배우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근을 말하자면 내 몸뚱이에 있는 여섯 가지의 기능이 동시에 나가는 겁니다. 눈이 가는 데에 귀가 가고 귀가 가는 데에 눈이 갑니다. 그럼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다섯 손가락인데 한 손가락 가지고 일하는 사람 봤습니까? 무슨 일을, 뭘 집으려 해도 다섯 손가락이 다 이렇게 가서 집지, 한 손가락만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으로써 이거는 육근을 여섯 가지로 보지 말고, 그건 일심에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심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경계가 여섯 가지라면, 여섯 가지가 아니라 일체입니다. 전부입니다. 바깥으로 봐서 들이는 게 또 여섯 가지라면 일체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여 놓는 거,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의식 자체가 육식입니다. 그래 이것이 한데 합치면 십팔이 되죠. '십' 이러면 그냥 만(卍)으로 돌아가는 그게, '팔' 하면 사유 사무 이것을 한데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십팔 심(心), 그 인연에 의해 연(緣)에 따라서 뭉쳐진 거죠. 식(識)입니다. 의식으로 한데 뭉쳐서 들이고 낸다 이겁니다.

그러니 분잡하게 고달프게 이름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한 일심에서 내 본래자성불에서, 자성불이 있기 때문에 행동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해서 모든 것을 일거일동, 물질로다가 이름을 세우려 하지 말고, 학술로다가 이름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지식으로다가 알 양으로 하지 말고, 아는 거를 쓰려고 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거기에서…. 그것이 둘이 아니요, 셋이 아니요, 넷이 아니요, 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과 행,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게 고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옛날의 선지식들은 '멈추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말과 매이지 않는다는 말과 끄달리지 않는다는 말과 또는 여여하다는 말 그것이 모두가 한

☞ 2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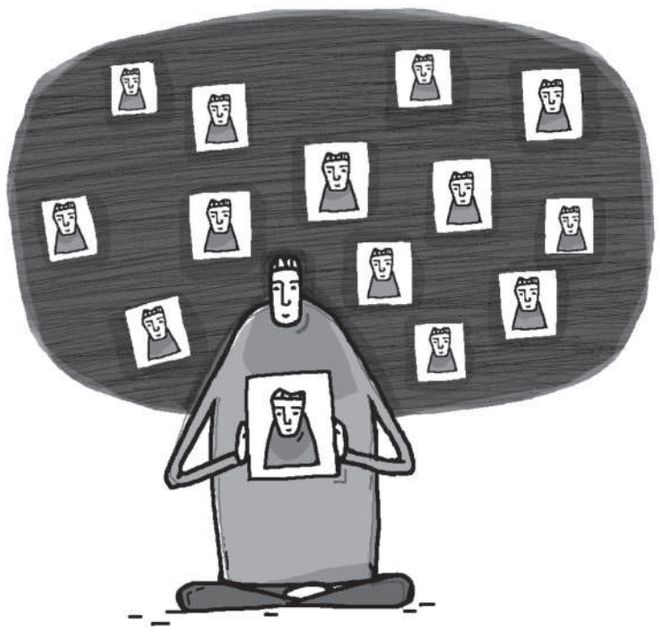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넉넉한 생각이라면 지혜에도 걸리지 말아야 한다

☞ 19면에서 계속

뜻입니다, 다. "걸리지 마라" 하는 것도 "걸리지 않는다" 하는 것도 거기에 모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걸리지 않는다 하는 거, 멈추지 않는다 하는 것은 둘로 보지 않는다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둘로 보지 않기 때문에 걸림이 없지, 둘로 본다면 걸림이 벌써 있죠.

그래서 풀 한 포기도 둘로 보지 말라는 거고 버러지 하나도 둘로 보지 말라는 거죠. 둘로 보지 않고 한데 뭉쳐서 씀씀이를 하는 도리가 바로 한마음에서 나가고 한 마음으로 들고,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현재 의식 쪽, 잠재의식 쪽이 동시에 써집니다.

여러분이 물질적인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몸뚱이 속에 들어 있는 나 자신의 그 모두를 100% 쓸 수가 없습니다.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그 도리를 모른다면 몸뚱이로는 부지런하나 머리로는 게으르다 이겁니다. 머리로는 따라갈 수가 없어서, 저 서천국이나 딴 나라는 몸뚱이는 게을러도 머리는 빨라서 선진국이 되고 역사를 좋게 가져올 수 있는데, 몸뚱이는 부지런하면서도 한국 사람은 머리가 둔해요. 게을러!

그러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린 역사도 그렇게 가져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왜냐?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발전이 돼도 감당할 수가 없고 경제가 넓어져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계에 딱 닿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로 본다 하면 우리가 뒤지고 있는 겁니다. 왜 뒤지고 있느냐? 전자에서부터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뒤졌나. 남의 것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남의 것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또 내 것 주려고 하지도 않으니, 지금 이북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니까 선진국도 되기 이전에 그 난리를 만나고 집도 뺏기고 온통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얘길 하다 보니깐 딴 데로 샜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데 뭉쳐서 그렇게 하는데, 또 팔정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덟 가지 마음이 있어서 마음을 냅니까? 한마음 속에서 그것이, '옳게 생각하고 옳게 행하고 옳게 정진하고',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둘이 아닙니다. 한마음 속에서 여덟 가지가 나오는 것은, 바로 마음을 들어서 무심 유심이 같이 합해서 이게 팔정도라면은 사무 사유도 바로 없는 겁니다. 그냥 수레바퀴가 굴러갈 뿐입니다. 우리가 팔정도를 팔정도대로 본다면 "이거는 여덟 가지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요, 여덟 가지가 바로 한 가지도 없습니다. 왜? 시공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똑바로만 안다면 나의 자성불, 불바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의 세계, 유의 세계를 같이해서 굴린다는 뜻입니다. 이걸 바깥으로만 찾고 이론적으로만 배우지 마시고, 그 뜻을 알면 안으로 잡고 해서 바로 바깥으로 나간다면 이거는 심성 과학입니다. 이 도리는 생활이자 참선이고, 참선이자 생활입니다. 그래서 심성을 빼놓고는 과학을 이룰 수가 없고, 그때는 학(學)도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전부 버릴 게 없으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비울 때에, 없을 때에 한 가지도 버릴 게 없다는 문제가 나오는 거지 '이건 소승이니까 버리고 이건 대승이니까 갖고' 이런다면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릇이 빌래야 빌 수가 없죠. 그릇 자체도 공했는데 말입니다. 공 자체도 공했는데, 응?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벽돌을 쌓으려면 벽돌을 그냥 집어다가 쌓지, '벽돌 벽돌' 하고 쌓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쌓고 싶으면 그냥 갖다가, 집어다 쌓는 겁니다. 물 먹고 싶으면 그냥 물 마시는 겁니다. 그게 즉석에서 요리하는 방법이고 즉석에서 먹는 방법입니다. 우물쭈물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육바라밀" 이러는 거는 우리 인간이 깨달은, 즉 말하자면 그 본각심(本覺心)에서, "본각심" 이러면은 모든 것이 다 한데 합쳐진, 아까 얘기했던 불바퀴다 이겁니다. 그 불바퀴같이 굴리는 마음으로써 음으로나 양으로나 마음 한생각을 내주는 것이, 또 물질을 하나 줘도 이게 모두 같이 주기 때문에 보시가 되지만, 물질 하나 주는 것보다 마음으로 한생각 해 주는 보시가 그렇게 크단 얘기죠. 그래서 여섯 가지가 여섯 가지가 아니라 바로 본각심에서 모든 그 여섯 가지가 다 나오는 거죠. 여섯 가지가 아닙니다, 그게. 일체 하늘 땅 인간 전체를 한데 합친 그런 본각심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거기서는 무궁무진하게 모든 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슬슬, 멈추지 않는다는 소리가 얽매이지 않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냥 슬슬 여여하게 돌아가니까 취할 것도 없고 안 취할 것도 없고, 닥치면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닥치면 닥치는 대로 응해 주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바로 보살의 육바라밀의 행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거를 낱낱이 하나하나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 여섯 가지를 다 뜯어서 요걸 하나하나 배우려면 어느 천 년에 여러분이 자신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그 육바라밀의 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세우기 위해서 당당할 수 있는, 떳떳할 수 있는 참다운 자유인이 되라 이 소립니다.

어느 승려들이 쭈욱 앉아서 공부를 하고, 모두 돌아앉아서 참선을, 좌선을 하는데 말입니다, 어느 스님이 쓰윽 돌아보더니 "그 얼굴은 참 잘 생겼구먼. 모두 돌아앉아서 벽을 보고 앉았는데 벽에 얼굴이, 사진이 딱딱 박혀 있구먼." 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진은 거기 있는데 어디서 사진을 또 찾노?" 아, 이러더라는 겁니다. 글쎄, 자기 사진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벽에 무슨 사진이 붙어 있다고 벽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 소리겠죠. 그러니까 서슴없이 자기네들은 자기네들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선(禪)에는 어느 거든지 거기 붙어 돌아가지 않는 게 없으니까.

그랬는데 한 철 나자고 하더랍니다, 그 스님께서. 그래서 거기에서 한 철을 같이 나고 있는데, 그 스님이 참, 말이 무겁고 그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게 얼마나 따갑게 찔러 주시는지, 모두 숭배를 하고 거기 주지 스님으로 올려 앉혔답니다. 그랬는데 아예 "주지도 없고 나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주지도 없고 나도 없다. 그런데 무슨 주지가 있느냐?' 이 소립니다.

그래도 그냥 그렇게 모두 좋아하고 모시고 있는데, 하루는 "메밀씨를 갖다가 심어라." 하니까 모두 메밀씨를 갖다가 심었답니다. 그러고는 그 스님한테 여쭤 보기를 "이제는 메밀국수나 메밀떡이나 메밀장국은 틀림없이 먹었죠?" 하니까 "두고 봐야 알지." 하더랍니다. 그래서는 또 메밀 싹이 나서 커다랗게 꽃이 피니까 이제는 "메밀떡을 꼭 먹었죠?" 하니까 "그것도 먹어 봐야 알지." 아, 또 이제 메밀꽃이 시들고 거기에 열매가 맺으니까 틀림없이 다 익었으니까, "먹었죠?" 하고 또 물으니까 "그것도 또 먹어 봐야 알지." 다 앗아서 가루를 만들어 놓곤 "스님! 스님! 이 가루를 이렇게 앗아서 다 해 놨습니다. 이제도 못 먹습니까?" 하니까 "그래도 먹어 봐야지." 그러더랍니다.

> **이 공부 하는 사람은 각오가 단단히 선, 견고한 마음으로써 모든 걸 용광로에 넣는 작업이 첫째 아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불이 벌겋게 타오르는 용광로와 같은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진 마음입니다.**

나중에는 메밀을 개서 장떡국을 했단 말입니다. 동글동글하게 해서는 그냥 다 장떡국을 해서 처음 그릇에다 갖다 놓고는 "이제도 못 먹습니까?" 하니까, 하하하, "먹어 봐야 안다." 그래서 이제 발우공양을 하는데 전부 한 그릇씩 떠서 전부 놨단 말입니다. 떠억 입에다 넣자마자 "삼키지도 말고 뱉지도 말라." 하곤 그냥 호령이 났거든.

그래 어떻게 해야 옳겠습니까, 글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그 메밀 장떡국을 잘 먹겠습니까? 예? 삼키지도 말고 뱉지도 말라 했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도1(남)** 그냥 먹죠. (대중 웃음)

**큰스님** 허허허. 그럼 그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 스님이 말씀한 거는 무효가 되잖아요?

**신도1(남)** 생각 없이 먹는다는 말씀입니다. 일 초 전도 일 초 후도 생각 없이 순간에, 일 초 전도 일 초 후도 없이. 그러니까 생각 없이 행한다 이겁니다.

**큰스님** 우리 처사님, 말만 많이 하면 안 돼요. 그걸 안으로 자꾸 공부하셔야 돼요. 그 말도 맞습니다. 맞는데, 맞는 말을 자꾸 바깥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함이 없이 지금 했다고 봅니다, 함이 없이. 그 정도라면 그래도 처사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또 그랬는데, 아 이걸 입에다 넣고선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고는, 그 뜨끈뜨끈한 거를 말입니다, 허허허. 그러니 그것을 막돼먹은 분이 그렇게 한다면 별거 아니지마는, 참 그 엄중한 분이 그러시니 도무지 이거는 뱉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속에서 슬금슬금 그냥 그냥 녹아서 넘어갔거든. 허허허. 나중에 "그 떡이 그대로 있느냐?" 하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유, 어떡하다 보니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거든. "그것을 어찌 생각하느냐?" "그냥 삼킨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거다. 그 도리를 알겠느냐?" 그때서야 그냥 고만 앉았던 제자들이 딱 깨친 거예요. 그때에 모든 것을, '아하! 이것이 생떡국이 생떡국이 아니고, 넘어가는 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뱉는 게 뱉는 게 아니로구나.' 이거는 그대로 아까 저 처사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그대로, 그대로구나.' 하고선 깨쳐 가지고 참, 열 명이 다 성불을 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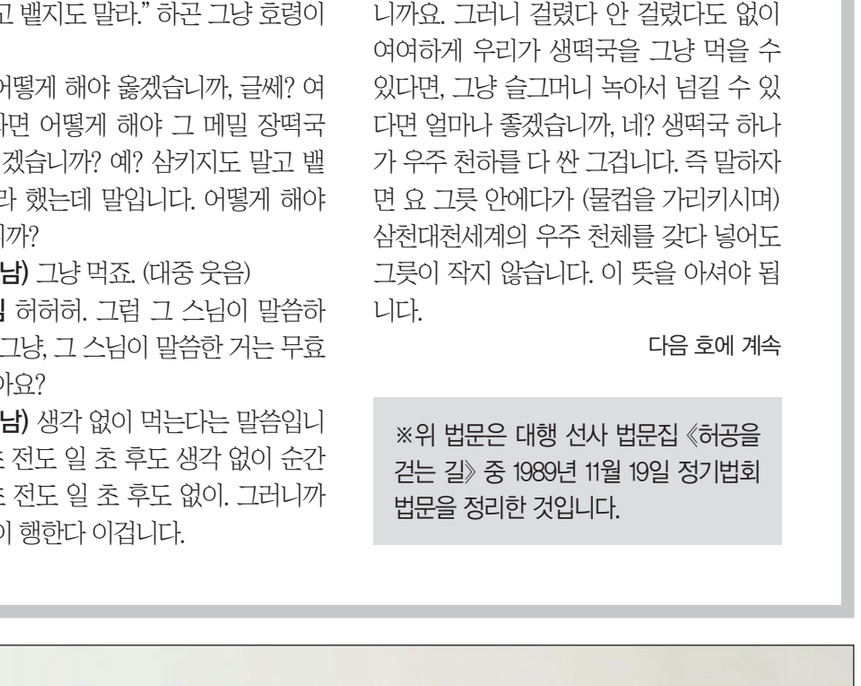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넘길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는 것이 이 공부입니다. 그건 왜냐? 넉넉한 생각이라면 지혜에도 걸리지 말아야 한다. '지혜를 얻어야 한다' 이런 것에도 걸리지 말아야 된다. 지혜도 공한 것도, 그 공한 것도 또 공했으니, 거기에 제하거나 또는 거기에 또 걸리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것도 공했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부처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도 바로 걸린 거니까. 그것도 없으니까요. 그러니 걸렸다 안 걸렸다도 없이 여여하게 우리가 생떡국을 그냥 먹을 수 있다면, 그냥 슬그머니 녹아서 넘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생떡국 하나가 우주 천하를 다 싼 그겁니다. 즉 말하자면 요 그릇 안에다가 (물컵을 가리키시며) 삼천대천세계의 우주 천체를 갖다 넣어도 그릇이 작지 않습니다. 이 뜻을 아셔야 됩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9년 11월 19일 정기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



하성미 기자의
心 心 talk talk

⑤⓪ 마음의 힘, 일체유심조(1)

# 마음은 뇌를 바꾼다

"야! 가만히 있어!" 소희(가명) 씨는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다. 아이의 팔을 잡아당기며 눈을 크게 뜨고 노려보았고, 아이는 주춤하다 엄마의 얼굴을 흘긋 올려다봤다.

태균(10살·가명)이는 엄마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며 주먹을 쥐고서 엄마를 때리기 시작했다. 아이와 엄마를 간신히 분리하고 다른 방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다. "잠시 쉬고 있어"란 말에 아이는 씩씩거리며 의자와 책상을 발로 차기 시작했다.

아이의 진단명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DHD)'. ADHD는 한마디로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다. 전전두엽과 주의 실행기능 네트워크가 일반적인 처리 흐름과 다른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집중을 오래 하거나 순서를 계획하고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기복이 생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성격의 결함이 아니라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의 차이라는 점이다.

지쳐 있는 소희 씨에게 "ADHD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스위치가 불안정한 상태"라며 "'집중을 시작하는 힘'과 '멈추는 힘'을 가지도록 적절한 훈련과 환경 조절, 필요 시 약물로 안정화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아이가 크면 좀 나아질까요?"라고 묻는 소희 씨에게 확답했다.

"물론이지요!"

어릴 때 ADHD 진단을 받았지만 성인이 되어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뇌가 성장하면서 연결망이 더 정교해지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배워 온 작은 기술들, 과제 쪼개기, 짧은 지시, 시각적 힌트, 멈추는 연습 등이 실제 삶에서 기능으로 자리 잡았다는 뜻이다. 변화는 가능하다. 아이의 뇌는 자라는 동안 성숙을 향해 계속 이동한다.

뇌는 정교한 공장과 같다. 수많은 부품이 부딪히고 조율되며 끊임없이 작동하는 거대한 시스템이다. 신경학계는 오랫동안 뇌가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나이가 들수록 기능은 마모되는 방향으로만 간다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현대 뇌과학은 이 전제를 뒤집었다. 뇌는 고정된 기관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시 연결하고 다시 조합하는 능력을 가진 살아 있는 네트워크다. 즉 뇌는 '망가지는 것'보다 '바뀌는 것'에 더 가까운 기관이다.

뇌 가소성(신경가소성, Neuroplasticity)은 그 변화의 이름이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는 차원이 아니라, 뉴런 간의 소통 방식이 바뀌고 기존 회로가 줄어들거나, 경우에 따라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며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리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현재 뇌과학 연구에서 축적된 핵심 토대다. 그리고 이

**반복과 경험, 뇌 회로 강화하는 동력**

**뇌는 다시 연결되고 새 회로 만든다**

변화는 생각만 한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자극과 반복된 행동을 통해 실질적으로 발생한다.

이 과정을 이해하는 데 가장 쉬운 비유는 도로망이다. 자주 이용되는 길은 점점 단단해지고 넓어진다. 반대로 통행이 드문 길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 길의 형태를 잃는다.

뇌의 회로도 똑같다. 많이 사용된 기능일수록 강화되고 사용량이 적은 기능은 약해진다. 만약 뇌졸중처럼 특정 영역이 갑자기 손상되는 사건이 생기면 그 길은 즉시 막히지만 뇌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새로운 우회로를 만든다. 처음엔 미약하지만 반복되면 그 길은 다시 하나의 튼튼한 고속도로가 된다. 뇌가 '우회로를 만들 줄 아는 기관'이란 점에서 이미 희망이 시작된다.

그래서 반복은 핵심적이다. 악기 연습에 능숙함을 만드는 것은 '타고난 음악 감각'보다 '실제 손을 얹고 소리를 내 본 시간'이다. 글쓰기를 처음 배울 때 삐뚤빼뚤했던 글씨가 감탄할 만큼 매끄러워지는 과정도 뇌가 회로를 다져 온 시간의 결과다. 이는 단순히 기술 습득이 아니라 뇌의 물리적 변화다. "연습은 기술을 만든다"란 말은 사실 "연습은 뇌 회로를 만든다"란 말과 같다.

약물치료에서도 가소성은 중요한 토대다. 항우울제를 복용하면 약물은 몇 시간 안에 뇌에 도달하지만, 기분이나 행동이 변하는 데는 몇 주가 걸린다. 약이 효과를 '켜는' 것이 아니라 뇌가 변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는 도구이고, 변화 자체는 시간이 걸린다. 약물로 문을 열고 반복된 행동과 경험으로 길을 깐다. 그래서 치료는 '약을 먹느냐'와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뇌에 새 길을 낼 수 있는 조건을 얼마나 꾸준하게 쌓느냐'의 문제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덧붙일 수 있다.

"마음이 뇌를 바꾼다."

달라이라마는 오래전부터 "수행으로 마음 자체가 달라진다"는 불교적 통찰을 말해 왔다. 과학은 오랫동안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었다. 마음은 뇌에서 비롯된 결과일 뿐 '생각이나 수행'이 뇌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의 뇌 영상 연구들은 명상과 마음훈련이 실제로 신경회로의 연결 강도와 기능적 활성 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 주기 시작했다. 마음 수행이 뇌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확인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마음을 통한 뇌의 변화, '마음 혁명'으로 불리는 이유다.

*현대불교신문 부산주재기자이자 가족상담전문가로 지역 가족센터에서 상담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건강 365

⑤① 무지외반증

# '불타는' 통증 꾸준한 관리로 줄인다

엄지발가락 쪽 뼈가 유난히 튀어나와 신발에 눌리고, 오래 걸을 때 발 앞쪽이 먼저 지치는 느낌이 든다면 '무지외반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이 둘째 발가락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엄지발가락과 발등뼈가 만나는 관절 옆이 볼록해지고 아픈 상태를 말합니다. 외관상의 변화만 문제가 아니라 걷는 방식이 달라지고 발의 균형이 깨지면서 일상의 불편이 커질 수 있습니다.

왜 생길까요? 가장 흔한 배경은 타고난 발 모양과 생활습관입니다. 가족 중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고 앞코가 좁거나 굽이 높은 신발을 자주 신을수록 변형이 빨라집니다. 평발처럼 발 아치가 낮거나 관절이 유연한 분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꼭 여성에게만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중년 이후 여성에게 더 자주 보입니다.

초기에는 신발에 쓸려서 쑤시는 정도로 시작합니다. 튀어나온 부위가 붉어지고 열감이 있으며 굳은살이 생기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둘째 발가락과 겹치거나 발바닥에 굳은살이 늘어 걸을 때 콕콕 찌르는 통증이 생깁니다. "가만히 서 있을 땐 괜찮은데 오래 걷거나 서 있으면 앞발이 불탄다"는 표현을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중요한 점은 통증이 들쭉날쭉하다고 해서 좋아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형 자체는 서서히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는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우선 통증을 가라앉히고 생활을 편하게 만드는 비수술적 방법이 있습니다. 앞볼이 넓고 쿠션이 좋은 신발로 바꾸고 튀어나온 뼈를 누르지 않는 패드나 발가락 사이 보조 기구를 끼워 마찰이 줄어들게 합니다.

발바닥 근막과 종아리 뒤쪽을 부드럽게 늘려 주고 엄지발가락을 벌리고 오므리는 간단한 운동을 매일 5~10분 꾸준히 하면 도움이 됩니다.

필요할 때에는 소염진통제를 잠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은 이미 생긴 뼈 모양을 되돌리는 치료가 아니라 통증을 덜고 진행을 늦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통증이 계속되거나 신발을 제대로 신기 어려울 만큼 변형이 진행하면 수술을 고려합니다. 수술의 핵심은 비뚤어진 뼈의 각도를 바로잡고 주변 힘줄과 인대를 균형 있게 정리해서 발의 축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요즘 많이 문의하는 것이 '최소 침습 교정술(MICA)'입니다. 말 그대로 피부 절개를 아주 작게 내고 간이 엑스레이로 위치를 보면서 뼈를 자르고 옮겨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절개 부위가 작다 보니 연부조직 손상이 적고 흉터가 작으며, 통증

**타고난 발 모양·생활습관이 원인**

**통증 지속·뼈 모양 변형 시 수술**

**신발·깔창 상담 진행 늦출 수 있어**

이 비교적 덜하고 일상 복귀가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환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변형이 매우 심하거나 둘째 발가락까지 큰 변형이 동반된 경우엔 오히려 눈으로 직접 보며 교정하는 개방 수술이 더 안전하고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발 모양, 뼈의 상태, 생활 패턴을 종합해 '나에게 맞는' 방법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을 받았다면 회복 과정도 치료의 일부입니다. 보호용 신발을 신고 부분적으로 체중을 싣는 시기를 거쳐 보행을 조금씩 늘립니다. 초기 몇 주는 발이 잘 붓기 때문에 가능한 한 발을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냉찜질을 병행하면 도움이 됩니다. 상처는 건조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고, 발가락 사이도 꼭 잘 말려 주어야 합니다.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상처에서 악취가 나는 분비물이 보이면 지체하지 말고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일반 운동화로 바꾸는 시점은 대략 6~8주 무렵이지만 개인차가 있고 좁은 구두나 하이힐은 뼈가 충분히 굳고 부기가 빠진 뒤에 조심스럽게 시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활은 엄지발가락 관절이 굳지 않게 움직임을 되찾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어 발바닥과 종아리, 엉덩이 근육까지 차근차근 강화해 주면 재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방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발 앞볼이 넓고 뒤꿈치가 안정적인 신발을 고르고, 너무 딱딱한 밑창보다는 충격을 적당히 흡수해 주는 신발이 좋습니다. 하이힐이나 앞이 뾰족한 구두는 장시간 신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을 건강하게 관리하면 앞발에 실리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매일 잠깐이라도 종아리와 발바닥을 스트레칭해 주고 엄지발가락을 벌리고 오므리는 운동을 해 주세요. 가족 중 무지외반증이 있거나 본인 발볼이 빨리 넓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초기에 신발과 깔창 상담만으로도 진행을 늦출 수 있으니 미리 진료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무지외반증은 '모양'과 '통증'이 함께 얽힌 문제입니다. 다른 신발과 생활습관,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많은 분이 한결 편해질 수 있고, 필요할 때에는 수술로 발의 축을 바로 세워 다시 편안한 걸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치료의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 내 발에 맞춘 선택과 꾸준한 관리입니다. 거울 앞에서 발을 한 번 살펴보고, 신발장에서 가장 자주 신는 신발의 앞코를 만져 보세요. 오늘의 작은 점검이 내일의 가벼운 걸음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민영경
거인병원 병원장

거인병원
Geo-in Hospital
051)996.7000
사직야구장 앞
어깨·관절·척추·정형외과 중점진료
세분화된 진료로 진단부터 치료까지!
광고심의필: 230622-중-155173




로봇수술기를 이용한 인공관절수술

전법 일기

## 씨앗은 작아도 꽃은 크게 핀다

전법의 길을 걸어오며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은 도량도, 법회장도 아닌 아이들의 마음이었다. 필자는 부산 흥법사에서 2002년부터 어린이와 청소년 포교 활동을 시작했다. 합창을 지도하고 플루트를 연주하며 함께 노래했던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 한쪽이 따뜻해진다.

아이들 옆에는 언제나 부모님들이 있었다. 매주 빠지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법회에 오지만, 정작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기다리기만 하는 모습이 마음에 남았다. 그래서 21일 동안 〈반야심경〉 21독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그중 몇 분이 시작했고 그 작은 실천은 놀라운 변화로 이어졌다. 〈반야심경〉은 〈천수경〉으로, 〈천수경〉은 다라니 독송으로, 독송은 사경과 절 수행으로 이어졌다. 매일 SNS로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고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도반이 됐고, 그 모습은 그 자체로 보살행이었다.

후원회장님과 상의해 '내 안의 감사 향기'란 100일 감사 일기 수행도 이어 나갔다. 아이들이 함께 하는 수행으로, 부모님, 친구, 스승, 동생은 물론 길고양이한테까지 매일 감사한 일을 적었다.

감사 수행 후 100일 108배 수행을 이어 갔다. 아이들은 각자 집에서 가족과 함께 108배를 했다. 거실이 법당이 되고 방이 도량이 됐다. 절을 마친 날에는 서로에게 감사 인사를 올렸고 가정 속에서 수행이 자라났다. 그 100일이 끝날 때마다 스님과 가족이 함께 모여 격려와 축하를 나눴다. 그 시간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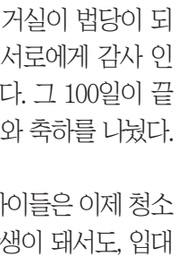
시간이 흘러 그때 손잡고 뛰어다니던 아이들은 이제 청소년이 됐고 어느새 청년불자가 됐다. 대학생이 돼서도, 입대 전이나 휴가 때도 도량을 찾았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씨앗은 작아도 꽃은 크게 피는구나"라고 혼잣말하곤 했다. 그 아이들이 곧 불교의 미래이고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요즘 세상은 더 빠르고 복잡해졌고 청소년들의 마음은 예전보다 더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지난여름, 싱잉볼 명상과 함께하는 청소년 인성프로그램을 1박 2일로 진행했다. 그 경험을 통해 '지금, 청소년을 위한 전법이 필요하다'는 큰 확신을 가졌고,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며 분노 대신 자비를, 비난 대신 연민을 배워 마음을 여는 길은 무엇일지를 연구해 오고 있다. 또 부족하지만 조계종 포교원의 '청소년 인성교육계발 프로그램' 공모전에도 지원했다.

나는 믿는다. 부처님의 말씀은 어린 영혼에게 가장 큰 길잡이가 된다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 자비로운 시선, 마음을 바라보는 수행은 삶의 방향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다.

전법은 거창한 일이 아니다. 아이들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돕는 일, 스스로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하는 일, 마음의 씨앗을 지켜 주는 일, 그것이 곧 포교이자 수행이고 보살행이다.

오늘도 나는 청소년을 떠올리며 조용히 붓다볼을 준비한다. 울림은 멀리까지 퍼지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 닿는다. 그 울림으로 아이들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곳이 곧 도량일 것이다. 전법일기 마지막 장, 나는 이렇게 적고 싶다. "씨앗은 작아도, 꽃은 크게 핀다." 그 작은 씨앗을 오늘도 청소년들의 마음에 심고자 한다. 그리고 잔잔하게 기도한다.



김경숙 (사)싱잉볼치유의소리 대표



송마나의 **시절인연**

# 11월의 바람

11월의 들판을 걸으면 바람이 따라온다. 습기 빠진 바람은 가볍게 바스락거리며 세상을 스쳐 간다. 태풍을 몰고 오는 여름 바람은 들판을 휩쓸고 지나가 세상의 깊이를 드러내지 못한다. 맵고 혹독한 겨울바람은 생명의 숨결을 냉혹한 어둠으로 얼려 버린다. 그러나 11월의 바람은 존재를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

옥수수를 떠나보낸 기다란 잎은 바람에 흔들리며 초록을 벗어 내고 허연 잎맥만 남긴다. 추수가 끝난 휑한 논둑에 서 있는 억새는 눈부신 은빛 머리카락을 바람에 날려 버리고 제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 모습은 채색된 삶의 껍질을 벗고 무여(無餘)의 마음으로 대중을 일깨우는 선승을 닮았다.

11월의 바람이 몸을 스치면 눈이 맑아져 멀리 있는 산이 가까워진다. 빽빽했던 나무와 나무 사이에는 헐거움과 여유의 숨결이 깃들어 있다. 나무들은 잎과 가지가 뒤엉켜 숨 가빴던 여름의 삶을 밀어내고 청량한 빛의 입자를 마음껏 받아들인다. 한때 죽음을 거부하듯 혈기를 쏟아 붉게 물들었던 단풍잎들도 바람에 몸을 맡겼다. 오욕(五欲)의 잎을 떨군 나무들이 뚝뚝 떨어져 본래의 결을 드러낸다.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여름 장마의 눅진한 물기가 빠져나간 벌판은 말라 있다. 촘촘히 몸을 비볐던 벼 이삭들이 베어진 논의 흙은 부슬부슬 속살을 내보인다.

하늘을 날아가는 기러기 떼가 일제히 내려앉는다. 바람이 그들 위를 스치며 깃털을 부드럽게 쓰다듬는다. 기러기들은 몸뚱이와 날개를 둥글게 웅크린 채 미동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대지와 하나 되어 갈색으로 물들어 있다. 그 색은 신생의 비릿함도 여름의 화려함도 아닌 죽음의 침묵에 닿아 있다. 어쩌면 애초부터 생과 사의 분별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이름마저 앞뒤가 없는 '기러기'처럼, 그들은 묵묵히 대지의 빛을 호흡하고 있다.

11월에는 강물마저 몸을 가볍게 한다. 들판을 가로지르며 거칠게 흘러가던 모습은 사라지고 몸을 낮춰 뼈만 남긴 채 고요히 흐른다. 탁류를 쏟아 내던 사나움을 흘려보내고 눈부신 투명함으로 자신을 비웠나 보다. 그동안 얼마나 분주했는지, 어쩌면 오만했을지도 모른다.

대지의 모든 식물이 싹트고 자라나는 것은 물이 있기 때문이다. 물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모든 생명의 얼굴을 비춘다. 익어 가는 열매는 마르고 비틀리며 붉거나 누렇거나 검게 변한다. 완숙의 순간, 바람이 강물의 물기를 말려 주지 않았다면 억새와 구절초는 축축함 속에서 생명을 지켜 내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기쁨과 슬픔, 번뇌와 욕망의 절정에서는 늘 물기가 고이고 눈물이 흐른다. 인간이 어머니의 양수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일까. 번뇌는 벽 사이로 스며드는 물기처럼 피어나고 욕망은 곰팡이처럼 번식해 온 집안을 악취로 뒤덮듯 내 마음의 방은 탐진치(貪瞋癡)의 습기로 젖어 있다.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스며드는 습기와 같다. 오욕과 집착이 마음속에 맺혀 이내 물기로 변하고, 그 물기는 마음을 갈애(渴愛)의 물웅덩이로 만든다. 우리는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자신을 잃어 간다.

이제 나는 11월의 바람에 몸을 맡긴다. 바람은 마음의 물기를 말리고 본래의 가벼움으로 나를 풍화시킨다.

〈작가〉

기자칼럼

## 세대전승, 불교 전법의 뿌리

올해 6월 미국 여론기관 퓨리서치센터에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종교 지형의 변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불교 인구는 3억4300만명에서 3억2400만명으로 줄며 약 5% 감소했다. 불교 신도의 세계 인구 비율 역시 2010년 5%에서 2020년 4%로 줄었다. 반면 이슬람은 17억명에서 20억명으로, 기독교 인구는 21억명에서 23억명으로 늘었다. 이는 불교도가 밀집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특히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동북아의 '저출산 고령화', '탈종교화' 현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처럼 종교인의 수가 줄어드는 한국사회는 개종이 어려워지는 '가족 신앙 형태'가 굳어지는 추세다. 한국갤럽의 〈한국인의 종교〉 제5차 비교조사 보고서(2015)에 따르면 한국사회 개종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1984년에는 개종을 경험한 사람은 17%, 1994년에는 16%에 달했지만, 2014년에는 10%로 줄어들었다. 이는 향후 가족 중심으로 한 신앙의 전승이 중요한 전법포교의 기반이 됨을 의미한다.

불교 세대전승의 모범사례는 한마음선원이다. 이는 한마음선원이 매년 11월 봉행하는 신도수계법회를 보면 알 수 있다. 5000여 명의 신도들이 불자로 거듭나는데, 특히 주목할 것은 부모의 손을 잡고 참석한 아이들이다. 부모와 함께 오계를 받고 "거짓말 하지 않겠다고 부처님과 약속했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은 세대전승이라는 불연(佛緣)의 싹이 잘 피어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아이들은 미래 불교의 '핵심 신도'들이 된다. 이들이 불교를 외호하고 불·법·승 삼보에 공양을 올릴 거사와 보살이 되거나 불문에 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대전승'은 불교 전법의 뿌리지만, 현재 불교계는 이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 부모세대가 신실한 신심을 지녔어도 자녀세대에서 신앙이 단절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청년세대 포교와 더불어 '세대전승' 역시 불교계는 전법의 화두로 가져야 가야 한다. 그래야 탄탄한 전법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신중일 편집국 부국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 전세계 20여개국으로 수출되는 한국불교미술의 자존심! 聖鐘社 명품 범종 -성종사의 아름다운 표면처리기술-


브론즈착색(에밀레종)


유광 처리(해인사종)


부분 개금(운수사종)


부분 칠보(4보살종)/신제품


칠보 개금(칠보종)

범종명가 성종사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읍 습지길 35 / Tel : 043-536-2581 / Fax : 043-536-2582 / 홈피 : www.sungjongsa.co.kr / e-mail : won6141@hanmail.net / 대표 : 범산 원광식

# 성불도 과학과 공학으로

현불논단



지승도 명예교수
한국항공대 소프트웨어학과

"과학과 공학의 차이가 뭔지 아나?"

이공계 취업 준비생이라면 알아야 할 단골 면접 메뉴다. 과학은 진리 탐구가, 공학은 진리 활용이 목표인 바, 이치를 터득해서 이로운 물건을 만드는 지적 과정이 과학과 공학이다.

15세기 전후 신에 의한 일방적 진리가 마감하면서 합리적 이성에 의한 과학과 공학의 시대가 열렸다. 만유인력의 법칙, 맥스웰 법칙, 상대성이론, 전파 발견, DNA 발견, 열역학 법칙, 양자 이론 등등 수많은 과학적 발견과 원칙과 법칙에 힘입어 자동차, 컴퓨터, 스마트폰, AI, 양자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눈부신 문명 발전을 이어 올 수 있었다. 과학이 공들여 밝힌 것을 공학이 멋지게 응용한 결과다. 인류에 이익되기를 기대하며….

그래서 살림살이가 나아졌을까? 겉은 풍요롭고 화려해졌으나 속은 빈곤하고 삭막해졌다. 왜일까? 첫 단추부터 어긋난 과학 때문이다. 실체를 전제로 했기에 부분적으로만 통용되는 반쪽짜리 과학일 뿐이었다. 궁극적 과학이 아니었다. 모든 동물의 발자국은 코끼리 발자국에 포섭되듯이 궁극의 과학은 붓다가 통찰한 바, 공성의 연기법을 벗어날 수 없다.

다행히 양자 역학, 뇌 과학, 인지 과학 등 현대 과학이 기존의 이원적 틀을 탈피해 비이원성을 수용함으로써 붓다의 과학을 조금씩 증명해 가고 있다. 하지만 논리적 증명에는 부득이 한계가 따른다. 언어가 갖는 이원성 때문이다. 따라서 붓다의 과학은 개별적 깨달음을 통해서만 증명된다. 물질과 마음, 관찰자와 관찰 대상 사이의 상호의존성에 기반한 공성의 과학이기 때문이다.

**과학, 관찰 바탕한 지혜 통찰**
**공학, 지혜 토대 개조·개발 행위**
**완전한 과학·공학 완성물이 성불**

깨닫기만 하면 살림살이가 나아질까? 아니다. 과학이 밝힌 지혜를 개별적 공학으로 구현해 내야만 바른 삶은 완성된다. 과학이 관찰을 원인으로 하는 지혜 통찰이라면, 공학은 지혜를 원인으로 하는 개조·개발 행위다.

실체는 없지만 상호의존성이란 근원적 작용력을 활용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해체시킨 뒤 붓다의 몸과 마음으로 환골탈태한다면 그보다 더 훌륭한 공학이 어디 있을까? 물질적 완성은 물론 정신적 충만까지 보장할 완전한 과학과 공학의 완성물이 나와야 한다. 바로 성불이다. 인간 완성의 길이다. 과학 없는 공학은 모래 탑과 같고 공학이 뒤따르지 않는 과학 또한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깨달음 없는 방편이 그렇고, 방편으로 이어지지 않는 깨달음이 그렇다. 지혜와 방편의 양 날개를 펼쳐야만 궁극의 길은 열릴 것이다.

칼바람 불어 대는 히말라야 끝자락 랍치설산의 높은 동굴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혹독한 눈보라를 견디며 마침내 깨달음을 성취한 밀라레빠는 랍치설산 바위에 발자국만 남긴 채 중생제도의 일념으로 속세를 향해 솟아오른다. 오른손을 쫑긋 귀에 갖다 대고 뭇 생명의 아우성에 귀 기울이며 온갖 기행과 신통을 선보인 밀교 수행자 밀라레빠는 어떤 과학과 공학을 성취했을까? 랍치설산에서 그가 읊은 깨달음의 노래 한 구절로 마무리한다. "윤회의 현상 세계에 실체는 없나니, 실체라는 믿음은 환상에 지나지 않네. 밤낮으로 마음을 관찰한다면 아무런 실체 없음을 보게 되리니 지혜와 방편의 양 날개 펼치면, 전지전능의 광대한 하늘로 솟아오르리."

# 한쪽 바퀴로는 수레를 굴릴 수 없다

세간과 출세간



박수호 교수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산중에 고립된 승가와 세속에서 파편화된 신도, 일방적 가르침과 수동적 외호라는 비대칭적 관계가 고착되면서 불교는 변화의 수레를 한 발짝도 밀고 나가지 못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불교가 잠들어 있던 내재적 혁신 동력을 깨워야 할 때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혁신의 강물을 흐르게 할 것인가? 그 해답은 불교 공동체를 떠받치는 두 기둥, 출가와 재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불교의 미래는 이 두 주체가 서로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대등한 파트너로서 협력할 때 비로소 열릴 것이다.

먼저 출가 승가는 '지혜의 깊이'를 책임져야 한다. 단순히 경전을 암송하고 연찬하는 수준을 넘어서 기후 불안, 디지털 소외, 관계의 파편화 등 현대인들이 겪는 새로운 형태의 고통을 진단하고 시대의 고통을 꿰뚫어 보는 '창조적 해석자'가 돼야 한다. 자비와 연기의 가르침을 개인의 마음 문제를 넘어 사회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지혜로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일방적으로 답을 주는 권위적 스승이 아니라 대중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 '안내자'로서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사찰을 기복적 의례 공간을 넘어 명상과 심리 상담 등 실질적 위안을 주는 '실천적 수행'의 공간으로 개방하는 것 역시 출가자의 몫이다.

**출가, 현대 고통 꿰뚫고 지혜 제시**
**재가, 능동적 실천·현실 화두 제기**
**불교혁신 출·재가 파트너십에 달려**

다음으로 재가불자는 '실천의 넓이'를 구현해야 한다. 세속의 삶 자체가 수행의 장이므로 스님의 법문에 의지하는 수동적 신자의 모습에서 벗어나 '능동적 실천가'가 돼야 한다. 이는 자신의 소비 생활이나 직업윤리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정신을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불교가 외면해서는 안 될 '세상의 질문자'로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이나 환경 문제 같은 현실의 화두를 교단에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 이러한 질문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불교의 지혜를 깨워 현실과 만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공양이다. 이러한 '사회적 실천'은 개인의 해탈을 넘어 공동체의 안녕과 시대의 아픔을 보살피는 보살의 길과 다르지 않다.

결국 불교 혁신의 성패는 이 둘의 파트너십에 달려 있다. 이 관계는 서로의 고유한 역할을 존중하는 '상호 인정'과 일방적 공격이나 무시가 아닌, 끊임없는 대화로 합의를 만들어 가는 '설득'의 토대 위에 서야 한다. 물론 그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이견과 갈등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이 생산적인 긴장이야말로 더 높은 차원의 합의를 도출하는 화쟁의 과정이다. 재가가 삶의 현장에서 길어 올린 절박한 질문을 던지고, 출가는 깊은 성찰로 지혜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 출가가 지혜의 '수직축'을 세우고 재가가 실천의 '수평축'을 넓힐 때, 비로소 불교는 우리 사회의 좌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살아난 불교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새로운 공동체의 희망을 제시하고, 우리 사회에 대안적 삶의 가능성을 보여 줄 것이다. 출가와 재가라는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갈 때, 불교라는 수레는 시대의 고통을 싣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社 說

# 법 집행과 종교 존중의 균형을

최근 경찰이 금산사와 은적사를 압수수색한 일은 불교계 안팎에 큰 충격을 던졌다. 조계종의 교구본사가 불미스러운 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도 안타깝지만, 전통사찰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았다.

불교는 1700년 동안 이 땅의 정신문화의 근간을 이뤄왔다. 금산사와 은적사 역시 그 역사와 전통, 수행의 정신을 잇고 있는 신앙의 터전이다. 법은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이지만, 법 집행이 문화적·종교적 가치에 대한 존중을 잃는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폭력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불교계가 이번 일을 단순히 '종교탄압'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조계종이 강조했듯, 이번 사건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돼야 하고 만약 내부의 부정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종단 스스로의 투명성과 도덕성이 담보될 때만이 불교의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도 회복될 수 있다. 법의 과잉이 문제이듯, 종교의 자기성찰 부재 또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이제 필요한 것은 상호 존중과 절제다. 경찰 당국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종교적 특수성과 국민의 신앙 감정을 충분히 헤아려, 신중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불교계 역시 자정과 쇄신의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법이 공정하게 작동하면서도 신앙의 존엄이 훼손되지 않는 사회,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불교가 지향하는 자비 공동체의 길일 것이다.

# 광화문 광장서 확인한 태고종의 저력

11월 8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원에서는 '2025 태고종 영산재·국제수계대법회'가 봉행됐다. 이날 법석에는 전국 태고종도와 국내외 불자, 시민 등 1만여 명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웠다. 이번 법석은 태고종이 지난 20여 년간 진행한 행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변화한 태고종의 위상과 발전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1만여 태고종도와 불자, 시민들은 십선계를 수지하고 인류의 행복을 위해 바라밀과 보살도를 함께 실천할 것을 다짐해 큰 감동을 알렸다.

태고종은 상진 스님의 총무원장 취임 이후 내부적으로 종단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외부적으로는 종단 홍보와 사회 실천 사업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특히 임제종 제18대 법손인 석옥 청공 선사와 태고 보우 국사의 법맥과 불교 교류사를 조명하는 일련의 노력들은 종단의 법통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올해에도 태고종은 후저우시불교협회를 초청해 국제학술대회를 이어가는 등 종조 법맥을 조명했다.

이번 영산재·국제수계법회, 국제학술대회, 태고 보우 국사 탄신 다례재는 변화·발전한 태고종의 위상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태고종이 빠르게 안정화·발전할 수 있는 것은 전통종단으로서의 저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태고종도들의 과제도 명징하다. 이 같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결국 태고 보우 국사의 원융 화합 정신에 그 근본이 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69년(2025) 11월 19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11월 19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11월 19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인천지역 상주하시는 종무원장 스님과 종도 스님들을 모집합니다.

010-6219-4757, 010-5385-3658

불기 2569년(2025) 11월 19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대행선사 탄신 100주년 기념

# 지구사랑 캠페인

"물과 불, 바람이 원만 순환하여 공용으로 물이 불어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마음 속에 물이 있고, 불이 있고, 흙이 있고,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쓰는 대로 바람이 일고,
불이 일어나고 그러는 겁니다.

- 대행 선사 법어 -



생활 속에서 꽃 피우는 자비 실천 - EM사용하기

www.smallactions.co.kr 한마음선원EM지구사랑작은실천 @earthloveaction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